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22일 수요일(주간) 제 295 호

금주 법구

인욕이야말로 힘이 많으니, 악을 품지 않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으며,
참는 사람은 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느니라.

-사십이장경-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선홍사 청동대불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승려교육

행자 교육원-법계제도 짓고 고치고 숙제 많다

승가가 과연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으로 미래사회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불교의 사회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같은 불자들의 의문제기는 근본적으로 교단에서 승려교육 및 육성, 자질향상에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이다.

승려교육은 교단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불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만큼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조계종은 교육 역경 포교의 3대 지표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강조는 말뿐 이렇다할 교육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8년, 99년 종단의 분규가 승가교육 부실화에 따른 폐해였음이 지적됐지만, 교육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의지는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다.

1994년 조계종 교육원이 들어서며 승가교육 체계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번번히 종단예산 등의 뒷받침이 없어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님이 되는 자질을 갖추는 행자교육마저도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원에 행자교육도량 건립을 위한 준비위가 올해 구성돼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중앙승가대 김프학사 이전, 총무원청사 건립 등의 종단 사안에 묻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교육 또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과목 등이 부실하고 승려재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승가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종단이 안정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한 도, 체양성이 이뤄질 때 승가위상은 저절로 확립된다. 또 종단에서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예비승려와 기존의 승려들이 마음놓고 정진과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련원과 연수원 행자교육원 등을 갖춰 승풍진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사이버 세계의 장경각! 책방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국내최대불교서점 여시아문 닷 컴
Tel:02)737-0695 Fax:02)737-0696

청년불자층 '흔들린다'

중소도시 청년회 감소현상 뚜렷
대불련 매년 7~8개 지회 붕괴

청년불교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가 최근 5년간 급속한 회원 수 감소를 보이고 있어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불교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을 주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실시한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도시 불교청년회는 이미 붕괴됐으며, 인구 15~20만명 규모의 춘천 안동 등 중형도시의 불교청년회 마저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대한불교청년회의 중앙회장 선거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해는 178개 지회가 등록한 반면 올해는 94개 지회만이 등록했다. 회원 수도 감소하여 90년대 초 10만명에 이르던 회원이 현재 5천여명에 불과하다.

또 대불련의 경우 지난 해 23개 지부, 171개 지회(학교단위 불교동아리)였던 것이 101개 지회로 감소했다. 매년 7~8개 지회와 2천여명의 회원이 줄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41개 불교동아리 가운데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등 10여개 대학만이 월1회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부처님 오신날 법회와 성지순례 등의 정기행사만 개최하는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다. 대불련 원광대지회 김민주(가정교육과 2년)회장은 "학생들의 관심이 어학과 컴퓨터 등 실용적인 동아리에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강하다. 차기 지부장, 회장을 뽑기도 힘든 마당에 불교동아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청년불교의 위기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무관심에 따른 예상됐던 결과다. 청년불자의 감소는 일반불자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노령신도가 많은 교계가 손놓고 있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불련과 대불청의 지도간사를 역임한 이영철씨(재가연대 사무처장)는 "타종교처럼 종단 차원에서 청년조직을 활성화하고 신입회원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그룹 양성을 위한 컨설팅연구소등을 설립해 새로운 시대 포교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4개 종교 성직자들은 14일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2천인 생명·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14일 종교인 2000인 생명·평화 선언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교의 성직자 200여명 등 500여명의 시민들은 14일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2천인 생명·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 월드워치연구소 회장도 참석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다른 생명체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시화호와 같이 회복불가능한 대규모 환경재앙을 초래할 새만금 간척사업을 조기에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국세를 대거 낭비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반환경적, 반평화적인 작금의 의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인 새만금 갯벌에 대한 거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원로의원 응담스님 원적

간소한 산중 다비식

"죽음 알리지 말라"

모아둔 보시금 7천만원 생명나눔 등에 고루 나눠



"시주의 은혜를 입거나 신도와 상좌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내가 죽었을 때 사방에 알려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산중에서 조촐하게 화장하여 흩어버려라."

14일 주석처인 수덕사 서당에서 원적에 든 응담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스님의 유언대로 부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동참 행렬이 줄을 이었다. 청룡독경과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인사말, 상좌들의 인사로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의 영결식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영결식 후 응담스님의 법구는 산중의 다비장으로 옮겨져 곧바로 다비에 들어갔다.

"요즘 절집의 다비가 너무 번거롭고 호화스러워 불조의 뜻을 저버리고 시주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니, 너희들이 내 상좌라면 내가 이야기한대로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니 소홀히 하지 말라."

법장스님과 문도 대표 수경스님은 "스님의 한평생 살림살이는 본분납자로서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런 스님의 간곡한 유훈이니, 원로의원의 위상에 따른 영결식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산중에서 다비를 모실 수밖에 없었다.

'덕숭산 호랑이' 응담스님.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가장 싫어해 빈둥거리는 스님을 보면 반드시 호통을 쳤다. 시봉도 마다했다. 한번도 빠지지 않은 새벽예불을 위해 계단을 오를 때 옆에서 거들려하면 "평생 나를 도우려면 부축하라"는 말로 말렸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죽지 않는 법을 찾아 용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금오스님의 선맥을 이은 응담스님. 세수 87, 법랍 70세를 일기로 사바의 인연을 다하기까지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천지가 생기기 전에 본래 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天地未生未前 是心歷)'를 참구했던 참수행자였다. 86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재지로는 지리산살리기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과 충남 개심사 주지 현성스님, 동국대 박선영 교수 등이 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법전스님, 부의장 종산스님,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을 비롯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전 종회의장 설정스님, 불국사 주지 세민스님, 종회부의장 명진스님, 종회의원 장윤 자승 지홍 향적 현각 범종 성관 현응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응담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수덕사=정성문 기자
(swjung@buddhapia.com)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관절염 앓는 노스님이나 불우신도를 주위에서 추천해 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 ◆지원 규모: 6~8명 정도
-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무통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동인천 길병원
후원 :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길녀)

충북불교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

한·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

1. 행사 개요

행사명 : 한 · 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
증 명 : 남산 정일 큰스님(선학원 이사장)
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 19일(화) 5박 6일
장 소 : 태국 방콕(대리석 사원) 및 불교성지 일원
대 상 : 대법회 동참 희망 스님 및 불자 약 300명
동참금 : 80만원(불상조성금 포함)
주 최 : 재단법인 선학원
주 관 : 충북불교문화회관
후 원 : 문화관광부, 충청북도, 청주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월간 불광
협 찬 : (주) S.J. 여행, 성창보석, 성화불교



WAT BENCHMABOPITR(대리석사원)은 ?
태국에서 왕이 아닌 대왕으로 불리는 몇 안 되는 왕 중의 하나인 쫄라롱꼰(라마 5세, 1868-1910 통치)대왕이 1900년에 세운 사원으로써 세계 각 국(아시아)의 불상을 창건 당시부터 사원 내에 모심으로써 여러나라의 불교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사원 내에는 강원과 스님들의 기숙사가 있어 우리나라 스님들도 공부하신 분이 계심.

2. 행사 의의

세계 각 국의 불상이 모셔져 있어 불교 국가인 태국을 방문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여행객들이 한번쯤은 꼭 들려보는 사원 중의 하나인 WAT BENCHMABOPITR(대리석사원)에 우리나라의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 양식의 불상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음은 물론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 · 태 불교계간의 지속적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으로 세계 속의 한국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충북불교문화회관 TEL : 043)294-6193

사 설

사고로 문닫는 '신협'

조계사신협에 결국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말았다. 법원이 조계사신협의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말로는, 조계사신협처럼 전혀 관리가 안된 곳은 처음이라 하니, 파산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너무도 방만한 운영의 결과였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또 앞으로는 어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또 다시 던질 기력이 없을 정도로 불자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심각하다. 이제 단지 신협 뿐이 아니라 불교계가 하는 일은 어찌 이렇게도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좀 과감하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교계에서 벌이는 사업에서 자주 문제가 터지는 까닭으로 스님들이 불교계의 모든 문제에 운영의 최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스님들은 본질적으로 세속사의 운영에 치밀성을 가지기 어렵다. 아무리 세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출가자의 속성에 세속사는 안 되면 버리면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런 의식 속에서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기는 불가능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세속적인 일에서 일체 스님들이 실제적인 책임자의 자리를 맡아서는 안될 것이다. 신협도 비록 따로 관리 체계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조계종 종단의 속성상 스님들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관행을 벗어던지고, 일단 어떤 사업 결정이 이루어져 시작하면 철저히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시행되는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하루 빨리 스님들이 세속사를 관여하는 방식을 벗어던져야 불교계의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리고 스님들은 어떤 일을 벌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불교적으로 벌여야 하는가를 지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사업선택과 사업의 큰 방향에 대한 이념적인 지도 역할에 철저히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역할이 분명히 그어질 때 불교계에서 벌이는 일들이 진정한 불교적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불교계의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어중간한 출세간의 입장이 세속적인 사업에 끼어들어 얼버무려지기 때문이다. 결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바로 출세간도 살고 세간도 함께 사는 길이요, 불교의 특성이 올바로 사는 길이다

군포교 대책 무엇인가

군포교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은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군생활이 긴장의 연속인 까닭에, 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떠올리며 생사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군생활의 환경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회집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군장병들은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물론 여러 종교에서 군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불교계의 관심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따지는 일은 둘째로 치고, 현재의 군포교 현황을 다른 종교와 비교해보는 것으로 우리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군종장교의 수는 개신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개신교 군목은 307명이다. 반면 군승은 군목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44명이다. 법당은 348곳, 교회는 899곳, 성당은 243곳이다. 현황을 가리키는 숫자가 군포교의 절대적인 척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토대가 아직도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95년 국방부는 군종장교 가운데 조계종에서 파견하는 군승의 수를 매년 18명씩 증원, 2002년에는 260명으로 늘리겠다고 불교계에 약속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약속은 군신자 비율에 의해 개신교 군목의 수를 줄이고 군승의 수를 늘이겠다는 조치였으며, 이는 개신교쪽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종교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부의 결단으로 불교계는 받아들였다.

국방부의 약속이 있은 지 5년이 지났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군승의 수는 200여명이 되어야 한다. 불교계가 국방부에 요구하고, 정부 당국에서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왜 그런지 심각하게 짚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군포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관심이 곧 포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심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군불교위원회령'을 제정한다고 한다. 현재의 군승단을 확대 개편해 군불교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교계 첫 대안학교 문연다

실상사 중등과정 내년 3월 개교

정원 20명…발우공양 · 좌선 등 교육

불교계 첫 대안학교가 드디어 문을 연다.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을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인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내년 3월 실상사에 세워진다. 개신교 원불교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13여개 있지만,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가 설립 추진중인 '작은 학교'는 3년 과정의 비인가 과정의 대안 중학교이지만 귀농자녀들을 우선대상으로 하면서,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와 맞물려 운영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학교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영어 과학 역사 등의 정규과정은 물론, 농사짓는 법과 발우공양, 좌선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

첫 신입생은 20명 내외로 제한하며 전교생 인원은 60명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집이 먼 곳의 학생들은 2명 내외로 나뉘어 교사의 사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 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중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을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전형중 학생·학부모에게 3박4일의 예비학교(12월 17~21일)를 체험하도록 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최근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실험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상사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상사가 추구하는 '살림의 삶', 건강하고 자립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실상사는 2년 과정의 승가 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과 불교 생명·환경운동의 구심체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생명살림을 원칙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공동체, 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습을 겸한 귀농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도 이같은 세계관을 반영하는 일부분이다.

실상사는 선생님들(현재 6명)의 연수회와 작은학교를 미리 체험할수 있는 실습의 장을 연다. 청소년 겨울학교(12월 31일-1월 5일)와 어린이 겨울학교(1월7일-12일, 1월 14일-19일)가 그것. 오는 26일 오후 2시 실상사에서 내년 입학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설명회가 마련되며, 과학·수학·영어·사회 전공 교사 4명을 모집한다. (063)636-3369.

김재경 기자



◇13일 영결식을 봉행한 혜웅스님의 법구가 문도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보명사로 이운되고 있다.

"사바왕생 중생 제도하소서"

관음종 혜웅종정 다비식

관음종 제5대 종정 운공당 혜웅 대종사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던 천안 보명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종단장(葬)으로 엄수됐다. 33번의 명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헌향 및 헌화, 행장소개, 영결사, 추도사, 조사, 찬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사에서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인자한 그 법구 뵈올 수 없고 자상한 가르침 다시 들을 수 없으니 온 천지가 비어있는 듯 합니다"고 애도하고 "법연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사바에 왕생하시어 관음종도와 무루중생을 제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영결식이 끝난후 스님의 법구는 보명사로 이운되어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다비식이 엄숙히 거행됐다.

이경숙 기자

"달라이라마 연내방한" 재촉구

KCRP · 조계종 성명…中대사 발언 '물의'

달라이 라마 방한 예정일이었던 16일을 전후해 달라이 라마 방한을 다시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았다. 그러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대사는 또한번 달라이 라마에 대한 극언을 서슴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1일 고문단과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입국을 연내에 허용해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방한을 불허한 당국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15일 폐회된 148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세계인류의 화해와 평화를 지지·성원하는 한민족의 모습을 외화(外化)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며,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적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16일 한국언론재단 초청 조찬강연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문제와 관련, 미국, 영국 등 서방열강과 달라이라마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한국내 민간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계속 망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정부의 사과와 우다웨이 대사의 소환·파면을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스님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정대)은 16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앙승가대 총장에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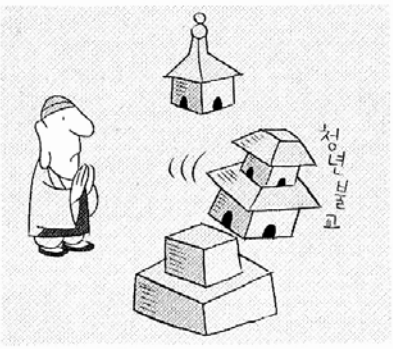
이날 총장에 선출된 종범스님은 "김포학사 이전으로 대학교정이 마련되는 만큼 승가학풍 구현을 교육이념으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며 "승가대가 어려움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지만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승가대학은 승가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승가정신 구현을 중심으로 행정을 맡으면 연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승가정신구현은 승가전통성과 현시대에 필요한 현실성, 그리고 미래지향성 등 3박자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승가대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범스님은 1963년 통도사에서 벽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도서관장, 선어록연구회 회장, 삼보법회 교양대학 학장으로 재직중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붕괴 조심

3개특위 구성 등 안건처리

조계종 148회 종회

조계종 148회 중앙종회는 동국대 조사특위 등 3개 특위 구성 등 15개 안건을 처리하고 14일 폐회했다. 불기 2545(2001)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은 12월초 임시종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로의원 추천:상운(광주 향림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동춘(범어사) 스님 등 3명을 원로의원으로 추천.

종헌특위 위원장 사직 처리:종헌특위 위원장에 종하스님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보선:현응스님과 원담스님(법주사)을 새 위원으로 선출.

종헌종법 개정안 재검토:총무원에서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관람료관리법등 4개 법의 개정안에 대해 종헌특위에서 재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

추경예산 승인:총무원에서 요청한 일반회계 7억4천만원, 특별회계 12억원의 증액을 승인.

이와함께 종회는 조계사 신협 조사특위(위원장 수완), 동국학원조사특위(위원장 세영), 중앙승가대 조사특위(위원장 여연)를 구성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사찰내 탁아소등 추진

불교여성개발원이 27일 오후5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불교여성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대정경 속의 여성관련 자료집 출간, 국내외 불교여성학 연구조사, 조계사 경내 탁아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독립기구인 불교여성개발원은 현재 이인자(경기대교수), 왕선자(부산여성불자회 회장), 배금자(변호사)씨 등 12명의 이사를 비롯해 고문, 자문위원, 상임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주영 간사는 "여성 불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 환경,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訃 告

大韓佛教三論宗 宗正 大汕堂 惠鳳 大宗師께서 佛紀 2544年 11月7日午前8時 世緣이 다하여 入寂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44年
11月11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愚岩精舍 大道場

■ **茶 毘 場 :**
青龍寺址 茶毘場

大韓佛教三論宗
葬儀委員長 慧承

大韓佛教三論宗 宗團葬儀委員會 ·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葬儀委員

證明 : 덕암, 천운, 일공, 석우
顧門 : 청호, 청일, 설운, 능오, 성운, 각규, 의천, 월산, 혜승, 진무상
護喪 : 각화
葬儀 委員會 委員長 : 혜승
副委員長 : 지해
委 員 : 도경, 정응, 도우, 지암, 법관, 향담, 덕운, 지명, 지안, 태관, 인봉, 행도, 덕송, 청담, 지산
日本三論宗葬儀委員長 : 지마
執行委員會 委員長 : 석파
副委員長 : 진봉
委 員 : 현우, 의표, 무봉, 성훈, 옥광, 성현, 달봉, 지심, 토암, 해마, 보현, 역일, 해불, 무성
財政委員會 委員長 : 기의효
副委員長 : 김광수
委 員 : 지효, 해각, 도광, 의룡, 성월, 박파, 지암, 달봉
指導委員會 委員長 : 법진
副委員長 : 성도
委 員 : 지창, 성도, 혜담, 지선, 성심, 혜월, 지응, 태서, 보원, 법연, 법신, 해인, 지안, 대공
義典委員會 委員長 : 신수
副委員長 : 지운
副委員長 : 지율, 혜명, 혜관, 묘진, 법전화, 봉명, 무량각, 대덕화, 성아지학
涉外委員會 委員長 : 대안
涉外委員會 副委員長 : 지도
委 員 : 법륜, 묘지심, 지법, 성관, 일행, 성인, 지동, 혜인, 조남득
動員委員會 委員長 : 혜광
副委員長 : 지원
委 員 : 원보, 법진, 김순옥, 진여심, 대덕화, 보현행, 성관, 보현화, 보연, 자비행, 자비심
治山委員會 委員長 : 정봉
副委員長 : 지경
委 員 : 지인, 보리심, 도심, 선덕행, 자비행, 보운행, 보현, 용선, 최수동, 임화향, 김옥녀, 황혜연, 이정훈, 석운, 다솔
門中代表 : 향운, 백운, 혜공, 대운, 대심
恩法上座 : 송봉, 상봉, 월봉, 원봉, 강봉, 기봉, 영봉, 연봉, 회봉, 효봉, 수봉, 태봉, 문봉, 은봉, 경봉,보봉, 진봉, 록봉, 우봉, 택봉, 지봉, 동봉, 선봉, 광봉
의덕, 의송, 의륜, 의성, 의광, 의교, 의천, 의택, 의완, 의선, 의룡, 의탄, 성월, 법원, 진오, 성범, 지장, 지호, 성회, 지마
손상좌 : 혜각, 일각, 행운, 혜명, 혜안, 혜련, 혜인, 성덕, 혜정, 혜천, 성득, 혜초, 혜성, 법달
比丘尼 : 지연, 혜운, 법작, 법진, 지율, 성학, 해월, 일선, 용선, 지향, 성심, 지화, 응진, 지경, 혜인, 도연, 도영, 지겸, 혜명, 혜정, 혜안, 혜천, 혜련, 도심
信徒代表 : 배사옥, 윤원주, 방대명화, 박도안, 송마명

문의 및 연락처 : 총무원 전화 02)3216-0165 / 팩스 : 02)3216-0166

大韓佛教三論宗 宗正大汕堂 惠鳳 大宗師葬儀委員會

인 사 말 씀

大韓佛教三論宗 宗正 大汕堂 惠鳳 大宗師 永訣式 및 茶毘式을 宗團葬으로 佛紀 2544年 11月11日 宗團의 元老 스님 및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및 各界人士 諸賢을 모시고 엄숙히 奉行 하였습니다.
公私間 多忙 하심에도 時間을 아껴 參席하여 주심에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오며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을 빌어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올리오니 慈悲로운 마음으로 攝受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어

한탕주의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니 한탕주의가 난무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도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정상적 도덕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챙겨왔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혼란과 불균형으로 혼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재계 고위층들은 피땀없이 부를 누리게 됨에 따라 국민경제가 곤두박질쳐 서민이나 노동계층의 불만 불신이 팽배하면서 도박과 도둑이 난무하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인간의 심리 한 구석에는 누구나 다소의 탐욕심이 잠재해 있다. 어느 계기가 되고 유혹의 전율이 닿게 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국민소득 만불시대가 IMF라는 정치 장난과 기업의 횡포에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노숙자와 걸식아동 등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서 곪고 있는데, 국민들도 모르는 '공적자금'이라는 국가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어느 누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고, 불법대출과 은행종사자의 횡령과 기업의 부도와 부실경영으로 주가마저 급락하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국가의 통치자나 정부, 국회, 기업가, 국민은 소극적 떠넘김보다는 자성의 고요한 뉘우침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헐떡거리는 욕망을 쉬게 하고 괴로운 번민에서 해탈하여 고비를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

〈벽지불인연경〉에 이런 말이 있다.

"까시국의 왕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먹는 것은 한 가지 음식에 지나지 않고, 내가 입는 것은 한 벌의 옷에 지나지 않고, 내가 앉고 눕는 방도 내 몸을 들일 수 있으면 될 뿐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어찌 과다한 욕심을 내어 만족할 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옷과 집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탐욕과 사행심을 버리고 한탕주의로써 금방 무언가를 거머쥐려는 성급한 생각과 행동일랑 한순간 멈춰버리자. 무작정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흐르는 물을 역류하지 말고 순류하며 사는 지혜를 바랄 뿐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6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120평 법당에 겨우 10여명 참선법회

기획연재 신도시 포교

①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❷중산층 포교거점인데…
③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신도 적고 재정 빈곤 문닫는 포교당도

11일 토요일 오후 4시 분당 A사찰의 참선법회시간. 120평 규모의 법당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고작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평일 법회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년의 짧지 않은 역사와 편리한 현대식 내부시설을 갖춘 법당이 무색할 정도로 신도가 적다. 이렇게 신도가 한정되다보니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신도시 대부분의 사찰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동의 대원포교당 주지 현성 스님은 "신도시 포교당은 대부분 상가건물에 자리잡고 있어 빌딩 관리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을 합하면 보통 한달 운영비가 3백만원이 넘어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큰스님 법회나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려 해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아파트 단지 위쪽 산등성이에 자리잡은 산본의 B사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회나 기도를 도맡아 할 스님이 없고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 탓에 신도들도 많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난으로 사찰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등산로를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사찰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예 문을 닫아 버린 경우도 있다. 중동의 마하사와 부산의 신도시 해운대에 있는 대승프라자 건물에 문을 열었던 한 포교당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포교에 나선지 3년만에 문을 닫았다. 초창기 이 포교당 주지 스님은 각 가정을 방문하며 포교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중산층의 포교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포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재정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교구본사급 사찰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유지해 가고 있지만 개인의 원력으로 세운 포교당들은 한달 한달을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포교에 임하지만 1년도 채 못돼 지친다는 게 신도시 지역 스님들의 이야기다.

교리공부 체계화 등 포교 프로 절대 부족

또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도들이 교리 공부에 대한 열의는 타 지역보다 강한 편이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스님과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산의 C사찰에 다니는 김현성씨(42)는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도 주지 스님 이외엔 스님이 없어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스님들에게 신행 및 인생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주하는 스님이 없어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든다"고 볼멘 소리를 낸다.

신도시 사찰이 안고 있는 또 한가지 문제는 그냥 앉아서 오는 신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포교 태도다. 독거노인이나 지역내 소외계층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중산층들에게는 장례식과 결혼식 등의 관혼상제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교회에 비해 포교 전략도 뒤떨어진다.

이외에도 신도시 포교당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곳으로 이사온 기존 불자들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사찰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불자나 신도를 만들고 교육하는 투자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또 도심 속에 묻혀 있는 포교당을 오기보다는 주말에 가족 나들이 겸 산사 분위기가 나는 사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포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명우·김재경·김주일 기자 (mwhan@buddhapia.com)

23일 선암사에서 열리는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현 총무원장 인곡스님, 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 운산스님, 성주암 회주 종연스님 이렇게 세 스님이 출마한다. 인곡스님은 14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 운산스님은 같은 날 오후 2시 송현클럽에서 열린 종책토론회에서, 종연스님은 13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종책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종책을 요약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종책 발표문

"불합리 제도 개선" 인곡 스님



△종단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 온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종헌종법상의 비현실적이고 미비한 점(사정원법, 상벌법, 종단공유사찰관리법, 법인법, 각종 선거법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한다.

△직·공영사찰의 운영체계를 정상화 또는 강화해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종단사찰로서의 모범사찰이 되도록 한다.

△종단교육기관을 보다 활성화, 내실을 기하고 도제양성에 주력한다. 선암사 불교전문강원을 승가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전국에 3개 이상의 전문강원을 증설한다.

△종책과 종무를 항시 공개, 투명한 종무행정을 실시하고, 중앙종회를 통해 각급 종무기관과 부서업무에 감사제도를 확립시켜 재정안정을 기한다.

△선암사·태고사를 성역화, 수도정진하는 중심도량으로 만든다.

△분원제도를 부활, 종무원을 활성화시켜 종단 중요 교구로 정착시키며 종무행정을 지방교구에 대폭 이관한다.

△인천 용궁사에는 현대적인 불교수행·포교도량을 건립, 전불자들이 활용토록 한다.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확대 증진시키고 통일 이후의 불교에 대비한다.

이력: 1934년 生. 52년 월성화상을 은사로 득도. 현재 태고종 총무원장, 선암사 주지, (사)한국불교 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종회 양원제 도입" 운산 스님



△중앙종회를 상하 양원제로 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한 스님을 상원으로 하고 젊은 스님들을 하원으로 하여 종단 참여를 통한 화합을 도모한다.

△각 시도교구 종무원의 행정을 강화한다. 현재의 총무원 업무중 사찰 등록, 승적, 제 증명 발급 등 사찰의 민원성 업무를 모두 시 도교구 종무원에 이관하며 교구종무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종단이 자생적으로 기금을 조성,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생산적으로 종단재정의 안정을 확보한다.

△선암사주지 등 운영권을 선암사 재적승에게 환원시키고 총림을 활성화 한다.

△총무원장 단임제를 정착시킨다.

△동방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종도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종도의 대화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사찰등록, 사찰주지, 교임임명, 승적 입적, 법계, 포상, 징계, 사면, 과거 태고종을 탈종한 사찰 등)를 강구, 종도의 총의로 시행한다.

△우수 승려 및 포교사 확보를 위해 승려의 득도제도, 교육제도 등을 전통과 진보를 조화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비, 태고종의 대 사회적 위상을 고양시킨다.

이력: 1942년 生. 59년 용봉화상을 은사로 득도. 현재 월간 〈불교〉 사장, 천중사 주지, (재)한국불교 태고원 이사장.

"지역 종무원 활성" 종연 스님



△참신하고 공심있는 인사를 중용, 담당부장 책임제를 도입하고 총무원 실무의 직접적인 부분은 국장이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자치체제의 균형을 맞춰 각 지방교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종무원을 활성화,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적정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

△재정확보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재원을 본인이 마련하겠다.

△총무원과 종회, 사정원이 명실상부하게 3권이 분립,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중앙종회의 사무를 총무원 직원겸임을 지양, 법률사에 종회사무국을 설치한다.

△동방불교대학의 정식인가와 설립을 추진하며 인천 용궁사 부지 4만평을 활용, 동방불교대학을 세우겠다.

△수서지구 불국사 소유인 일원동 1500평 부지에 총무원사를 신축 이전, 현 총무원사를 동방불교대학의 학교인가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암사는 재적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강원 활성화를 위해 종단에서 고명한 강사를 초빙하거나 실력있는 강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다.

△불교분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자해지토록 하겠다.

이력: 1947년 生. 67년 남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현재 성주암 회주

비록 1명 참가 했지만 종책 공개토론회 '뜻있다'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회장 대은)가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후보예정자 초청 종책토론회는 3명의 후보중 운산스님만이 참가하는 반쪽짜리 토론회가 돼 교계의 실망을 샀다. 현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연스님은 하루전까지만 해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13일 저녁 "후보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라 실효성이 없고, 선거 후 종단화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참했다.

승가의 선거가 후보자들이 난립하거나 과열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덕망과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추대되는 형식이 이상적이다. 이번 태고종의 종책토론회가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어 승가의 이미지에는 합당치 않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초미의 관심을 끈 것은 토론회를 계기로 태고종이 침체된 종단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교계의 기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종책구도를 들어봄으로써 종도들에게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 종단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겠다는 취지가 전폭적인 공감을 샀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됐기에 태고종의 젊은 승가단체인 보현도량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토론회가 좀더 체계적이고 종책지향적인 양상이 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제하고 "입후보 스님들이 연석하여 종단발전에 관한 진지한 자리가 마련되어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화합된 종책안을 의결 어느 후보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종단의 대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교계는 태고종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스스로 찾은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23일 선거에서 누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든지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며 이번에 제시한 종책이 종단전체의 협조속에 적극적으로 추진돼 태고종이 발전의 도약대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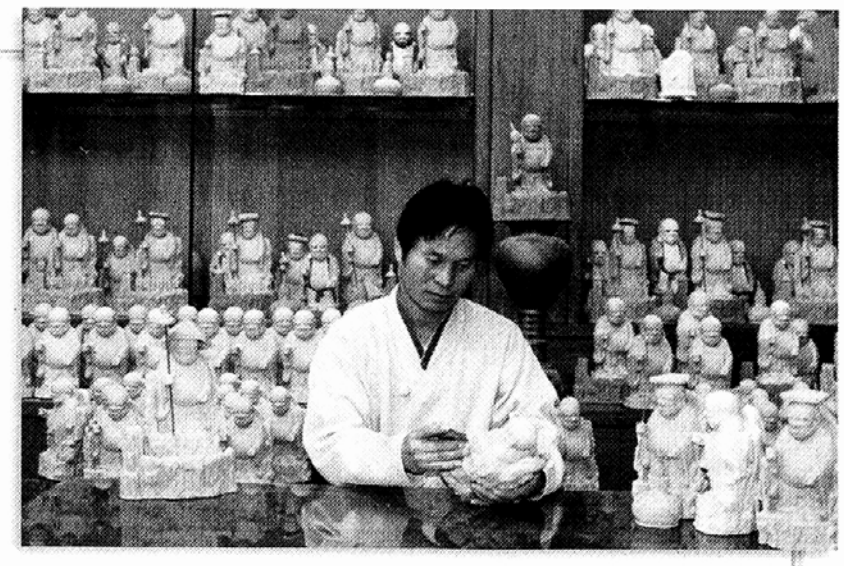
황토달마 무상보시 큰마당 야단법석

불법이 동토에 전래되여 진리의 길을 밝히심이 달마로부터 연유함이며 그런 연고로 시공을 초월하여 미혹한 중생들의 길을 밝히시는 달마의 원력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 사바세계에 비추이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해 오던 세월속에서 몰록 인연지여진 황토와 달마의 만남이 한개인의 심신을 회복시켰고 주위를 밝혀 나감을 깨달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국난의 시기에 보리달마의 원력을 모아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발길에 빛을드리우기를 지극함으로 발원합니다. 이에 삼천대천세계의 신장으로 화현하실 삼백삼십만불 황토달마 조성의 원을 세우고 제방의 사부대중에게 고하고져 합니다. 이차인연으로 이국토가 더욱 청정 하여지고 무명의 굴레속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 지이다.

- 새천년 동지전(2,000년 12월 21일 오후 10시 24분까지) 먼저 인연 지여지는분들 우선으로 삼천삼백불을 무상 보시 하는 인연을 짓겠습니다.
- 평상시 새벽 3시 – 6시 사이에 직접 오셔서 수많은 달마 가운데 한분을 인연지어 모셔 가시면 됩니다.
- 각 가정에 모시고 개인의 바램과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 할 분들이 모셔갔으면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불기 2544년 11월 좋은날 토불산방 金魚 常大 김휘철



황토달마 조성, 토불산방 개원 1주년 기념 및 자신과가족, 국난극복을 위한 천일기도 입제

삼백삼십만불 황토달마 조성의 원력을 발원하면서 토불산방 대중은 3년결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에 개인과 집안의 액난을 달마의 위신력으로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나라는 평화롭기를 서원하는 천일 기도 입제를 다음과 같아 봉행합니다.

[redacted] 다 음 [redacted]

- 기도 입제 : 불기 2544년 12월 24일 오전10시30분 - 장 소 : 토불산방 법당
- 문 의 : 교통이 편리한 부산으로 오십시요.

부산진역건너편 서면쪽 국민은행 옆 옥수봉에서 무상보시 합니다



전화 : 051)633-4800, 635-2154

알주문



동산반야회 유마경 설법

무진장 전 조계종 포교원장은 11일 동산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동산반야회창립 18주년 기념대법회에서 '유마경'을 주제로 설법했다.



명원차문화대상 수상

성우 불교텔레비전 회장스님〈사진 위〉은 15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주최의 명원 차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상을 수상했다.

김기원 진주 산업대 교수〈사진 아래〉는 학술상을,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공로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집 10권' 출판기념회

정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22일 오후 5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정휴스님 전집(전10권)' 출판기념회를 연다.



달서분원 고승초청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16~22일 7일동안 달서분원에서 7인 큰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 (053)766-3747



점자책 기금마련 하루찻집

덕신 서울 조계사 원심회장은 19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대장경 점자책 발행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한국미술발전㈜ 개소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경기대 석좌교수)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극장 옆 풍전빌딩 402호에 '한국미술발전연구소'를 열었다.



대승사 대웅전 낙성식

리선행 강원도 횡성 대승사 회주는 26일 오전 11시 대웅전 낙성식 및 석가모니불 점안법회를 연다. (033) 345-7666



종교사회복지포럼 세미나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18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1회 종교사회복지포럼 세미나 및 〈현대불교 사회복지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WFBY총회 참석차 출국

이치란 WFBY 한국본부 회장은 태국 방콕에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2차 WFBY 총회에 참석키 위해 12월 5일 출국한다.



본사-동인천 길병원 공동실시

관절염 무료수술 받은 김원순씨

"아프지 않고 걷게 돼 감사"

현대불교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동인천길병원(원장 이수찬)과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퇴행성관절염 무료 의료지원사업에서 경기 광주군에 사는 김원순(75)씨가 11일 양쪽 무릎관절수술을 받았다.

김씨의 수술은 능인선원 신도인 딸 박경숙(53)씨가 본사에 딱한 사정을 호소해오면서 이뤄졌으며, 올해 의료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됐다. 수술은 이수찬 원장의 집도로 이뤄졌다.

30년 전부터 관절염을 앓아 온 김씨는 양 무릎의 연골이 닳아 없어져 최근에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금까지 약 한 번 변변히 써보지 못했었다.

"김씨는 연골이 녹아 없어져 뼈가 뼈를 갉는 심각한 상태라서 무릎인공관절을 시술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통이 심했을텐데 병원 한 번 못 가봤다는 얘기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수술 3일 뒤인 14일 기자와 만난 김씨와 딸 박씨는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23살에 남편을 여의고 75년 딸마저 출가한 뒤 25년을 홀로 살아 온 김씨는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12만원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늘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도 병원에도 못 가본 한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풀었으니 더 이상 무얼 바라겠습니까. 더구나 수술비와 병원비가 5백만 원이 넘는다는데…."

딸 박씨의 말에 김씨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본사와 공동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절염 환자 8명을 무료수술해준 등인천길병원의 이수찬 원장(40)은 퇴행성관절염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퇴행성관절염이 육체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도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고통받는 이 없는 불국토 만들자"

창립 10돌 맞은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스님



"조계종이여 그대는 화합위해 나투게 하라 /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침으로 역사와 민족 앞에 / 부끄러움 없는 부처님 여래 사도 되게 하자 /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눈물이 되게 하자."

불모지와 다름없던 불교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진관(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스님은 20일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0돌을 맞은 감회를 이런 시로 노래했다. 불교인권위는 10주년기념으로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고승 선서화전, 인권상 시상식, 민족민주열사 천도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지난 90년 11월 20일 불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한 후 10년을 하루같이 '사람의 살 권리'를 옹호해 온 스님은 통일·인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단 화합과 중생제도의 원력을 새로이 정립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최근 교통사고로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 '종단화합 발전을 위한 승려 사면 복권 서명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진관 스님은 "인권위 창립 10돌을 계기로 북한 동포의 인권 보호와 통일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며,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건립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한 스님은 "인권·통일·환경 운동을 외면해 온 스님·불자들이 그러한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때만이 침체기의 불교 인권운동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63년 15세의 나이로 금산사에 입산, 68년 자운 화상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진관 스님은 4.19 학생운동, 불교법난에 저항, 광주민주화운동,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사형제 폐지운동 등 민주화·인권·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천태종 스님 등 9명 북한 방문

20~25일 영통사지 복원 등 논의



◇덕수 스님



◇남궁도재 스님



◇길상현 교수



◇길유혁 회장

천태종 박덕수 총무부장, 남궁도재 재무부장, 김경천 교무국장, 김세운 의전국장 장송재 사회국장 스님, 김유혁 중앙신도회장, 최용춘 부회장, 동국대 김상현·김동현 교수 등 9명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

천태종 방문단 일행은 20일 서울을 출발 북경에서 하루를 머문 뒤 21일 평양에 들어가 25일까지 영통사지 등 북한의 불교 유적 및 사찰을 참배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천태종 방문단은 북한당국과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지인 영통사지 복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삼론종 대산 종정 입적



삼론종 종정 대산당 혜봉 스님이 7일 충주 우암정사에서 입적, 11일 오전 우암정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영결식이 봉행됐다. 법랍 65세, 세랍 83세.

1941년 원각사에서 영하순관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대산 스님은 45년 정암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해동 역경원에서 대교과를 마쳤다. 옥련암 정방사 원각사 한산사 주지와 천태종 감사원장 고시원장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89년 대한불교 삼론종을 창종했다. 스님의 법구는 11일 오후 청룡사지 다비장으로 옮겨져 다비식이 봉행됐다.



육지장사 노인 1천명 경로잔치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10일 양주 관내 125개 경로당 노인 1천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삼보사분원 육지장사 지장만일 결사기도 입재를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개그맨 최영준씨의 사회로 명국환, 한명숙, 송춘희, 장미화씨 등 불자 가수들의 공연과 삼보사 합창단과 무용단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도봉서 경승법당 부처님 점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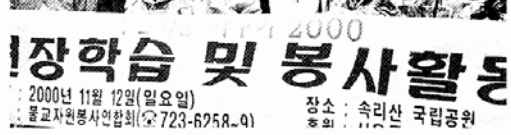
도봉경찰서 경승실(실장 원종)은 11일 경승법당 부처님 점안식 및 경찰의 날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벽암,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 경찰청 경승단장 자우, 승가대총동문회장 원종 스님과 도봉경찰서 김도식 서장, 고광선 법우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명대사연구 학술대회

사명대사연구논총간행위원회와 토향회(회장 김무조)는 11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향토정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사명대사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옥련선원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사명대사와 호국불교의 이념'으로 이진오 부산대 교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오너 119 봉사단 자연보호 활동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2일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자원봉사연합회 사무국장 선재스님을 비롯해 '그린오너 119 봉사단'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숲의 생명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다.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불교 진각종에서는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과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모 집 내 용】

1. 모집부문
   가.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전담직 종무원 : 남자 약간명
   나. 통리원 전담직 종무원 : 남자 약간명
   다.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 직원 : 남자, 여자약간명
2.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3. 자 격 : 제한 없음
4.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5. 접수 및 접수처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가.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통리원 전담직 종무원
   → 통리원 총무부(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
   나.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
   → 사단법인 중앙사무국(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
6. 문 의
   가. 전 화 : 02)913-0751~4
   (총무부 교환 122,123,125 / 사단법인 교환 173,174)
   나. 팩 스 : 02)913-0755

2000 겨울 선 수련회

삼매체험 - 재가·출가 - 선 수행

내가 달라지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 내가 쓰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이 극락으로도, 지옥으로도 바뀐다. 내가 쓰고 있는 내 마음을 살피면 금강석보다 더 견고한 고통과 원한 장애물 등 삼독이 연기같이 녹아서 사라진다. 올 겨울에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자.

1. 대상 및 인원 : 일반인 직장인 주부 청년 대학생 스님 70명
2. 수련일정(4박 5일) - 1차 : 12월 23일 - 27일, 2차 : 12월 30일 - 1월 3일
3. 접수 : 12월 10일까지.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 이용자는 팩스로 속히 신청 바람.
   ◆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4. 회비 없음 - 재가자
   (뜻 있는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 수련이 이루어지게 됨)
   ▶ 출가자는 회비 또는 일정기간 소임 봉사
   후원 1구좌 10만원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음)
   온리인 - 농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000548
   예금주 : 원명선원
5. 신청 및 서류
   ① 일반인 1.성명(한글,한자) 2.주소(자택,직장) 3.전화(자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학교(과)반 7.참기동기 8.수련회 참가 유 무 (유 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1~9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접수 안됨
   ② 스님 1.법명(한글,한자) 2.재적사(주소 및 사찰 전화, 휴대전화) 3.승려증사본 4.수행경력 5.참기동기 6.원하는 차수(팩스 보낸후 반드시 전화해 내용 파악할 것)
6. 자원봉사신청과 내용 : 매 차수별 5명내외
7.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복, 간편한 신발, 작업용 장갑
8. 일상수행내용
   수행중묵언, 법문, 점검(단체 또는 개별점검)
   행선 20-30분, 좌선 10-15분, 예불, 선문독송, 요가, 울력
9. 특징 : 원명선원 선 수련 법회에서는 타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수행을 체질화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 몸이 있는 어디에서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혜를 익힐 수 있다. 누구나 본 수련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아 실천하면 무상상매를 체험할 수 있으며, 먼저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처한 생활의 속박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생활을 이루어갈 것이다.
10. 문의시간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월-금)
    ▶ 일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통화를 하지 않음.
11. 기타
    수행방침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면 즉시 퇴장, 퇴방 시킴
12. 접수처
    제주시 화북동 한라산 조계종 무차법회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
    전화 064-755-3322 전송 064-755-0880

무차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우리모임에선

수협중앙회 은해사 참배



수협중앙회 불자회(회장 정근용)는 12일 대구 은해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30여명은 이날 은해사 혜통스님에게 '기도와 생활'이란 주제로 법문을 들은 뒤 거조암을 참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 경북지회 불자회 창립을 준비중인 남대구지점장 이희로씨와 1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은혜사를 방문해 수협중앙회 불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수협중앙회 경북지회 불자회는 12월초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불자회 창립

경남은행 불자 20여명은 14일 본점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회명을 경은법우회로 정하고 이찬영 마산 산호동 지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찬영 신임회장은 "인원은 많지 않지만 불자들의 신심을 모아 경은법우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12월 초에 정식으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로승무소 백양사 순례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8일 백양사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성지순례에서는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또한 29일에는 안알동 상락원을 방문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할 계획이다.

MBC불교硏 유식강의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효)는 16일 여의도 불교문화회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대각사 부주지 원일스님이 유식에 대해 법문했다.

귀농학교 현장탐방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법)가 운영하는 제5기 귀농학교 학생들은 13~15일 윤구병씨의 자택을 방문한 후, 16일~22일까지 개별 현장탐방을 떠난다.

또한 25일에는 3개월과정의 귀농학교 교육을 마치고 회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02)733-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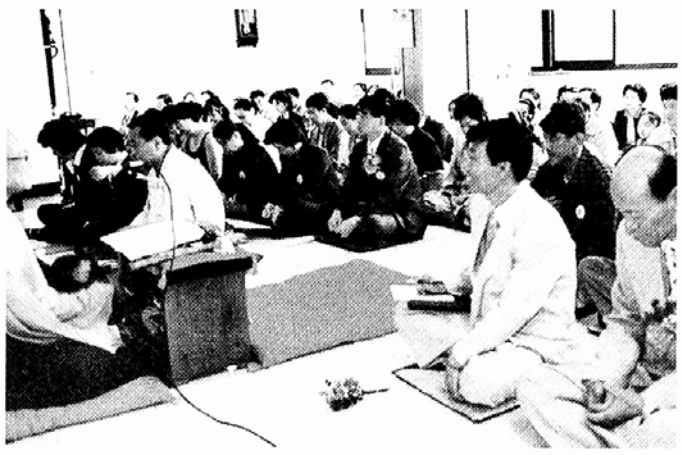
"초발심 회복 재도약 다짐"

직장·직능 불자회 창립기념법회 잇달아

경산조폐창금강회 다도교실 개설·야외가족법회

경기도청불자회 성지순례·수련대회등 준비

나우누리 불동 지도법사 초빙·바자 개최



◇금강회, 부처님마을, 경기도청불자회가 창립기념법회를 통해 다도교실, 새로운 활동계획을 세우고 불자회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금강회 창립 18주년 기념법회모습.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경기도청 불자회가 창립 기념법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자회 활성화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불자회인 금강회(회장 윤종우) 회원 70여명은 지난 14일 회사내 법당 금강원에서 창립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금강회를 생활불교·가족불교·실천불교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서원했다.

금강회는 1982년 불제자인 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도반으로서 서로를 경책하며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목적으로 창립해 그동안 매월 2차례의 정기법회 봉행,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설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옥천조폐창이 경산조폐창으로 통합된 후, 전체 직원 2천명 가운데 천여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금강회도 회원이 절반으로 주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강회 회원들이 이날 창립법회를 계기로 법회시간을 활용해 다도교실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한차례 야외가족법회를 갖는 등 법회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펼쳐온 소적새마을 후원,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지역내 복지시설에서 봉사 및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제 2의 창립을 선언했다.

윤종우 회장은 "최근 회사 형편이 어려워 많은 법우들이 직장을 떠나 금강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조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며 "제 2의 창립을 선언한 만큼 회원 모두가 구도와 친목, 그리고 사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침체된 회사분위기도 진작시키고 금강회 활성화도 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침체일로를 걸었던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 마을(대표시샵 최용원)은 12~13일 파주 보광사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동호회 활성화를 다짐했다.

지난 94년 200여명의 통신불자들의 신심을 모아 부처님 마을을 개설하면서 한때 천여명의 회원들이 통신상에서 신심을 키워온 부처님 마을은 지난 1년간 지도법사의 공석으로 현재 온·오프라인 활동이 모두 침체된 상태. 이날 참석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도법사를 선임하고, 연말에 송년법회 및 바자회를 개최해 침체된 부처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자고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내년 1월 새 대표시샵을 선출하고 대화방에 전담자를 두어 온라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창립 3주년을 맞는 경기도청 불자회(회장 이근홍)도 17일 용주사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법회만 보는 소극적 신행에서 탈피해 성지순례, 수련대회, 야외가족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심을 다지자고 결의했다.

이근홍 회장은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창립 당시의 초발심을 되새겨 신행활동을 점검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회원 개개인이 이번 창립법회를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신행생활을 한다면 불자회는 당연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자 약사보리회는 16일 상락원에서 후원의밤을 개최했다.

"약보시로 밝힌 자비의 등"

약사보리회 후원의 밤 서울시 1200만원 지원

탑골공원에서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무료투약행사를 실시해온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나청자)가 16일 상락원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과 전국불교운동연합 배영진 의장,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박찬웅 회장, 선재의료원 황정봉 총무를 비롯해 제약회사 관계자 등 그동안 무료투약행사를 후원해온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이날 지난 2년간 3만명에게 무료투약행사를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천이백만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모인 후원금은 전액 무료투약행사에 쓰여진다.

나청자 회장은 "나눔의 정신과 현실 참여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후원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실직자와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약 보시를 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일화로 살펴본 덕숭선맥

방송작가 수덕사서 연수

KBS, MBC, SBS, BBS 등 대중매체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작가 불교학술세미나가 '일화로 살펴본 덕숭선맥'이란 주제로 16~17일 수덕사에서 열렸다.

방송작가 불교학술세미나는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매체의 작가들에게 올바른 불교적 소양과 정서를 심어줌으로써 방송을 통한 자연스러운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72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BBS '고승열전'의 윤청광씨, SBS '옥이이모'의 김운경씨 등 현직 방송작가 41명이 참석한 이번 불교학술세미나는 법주사 주지 법장스님의 '덕숭선맥의 이해'와 소설가 최인호씨의 '만공스님의 일생'에 대한 주제발표, 개심사, 서산 부석사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경허, 만공스님의 일화를 통한 덕숭선맥의 이해는 한국 선불교의 올바른 가치와 내용의 깊이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송작가들이 불교의 본질과 한국 선불교의 중심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무료 직업안내소 개소=진주불교회관은 무료 직업안내소를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가정일, 환자·아이 돌보기, 가정행사 보조 등의 업무를 무료로 소개받을 수 있다. (055)747-0108

▲주간 탁노소 운영=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경증치매, 중풍어르신을 낮동안 돌보아 드리는 주간 탁노소를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미술·음악·물리·원예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385-1351

▲무료 법률상담=용호종합복지관은 21일부터 매주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법률담당에는 해군 제 3함대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051)628-6738

▲무료 취업교육=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24일 오전 10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02)2282-1100

강좌

▲동산반야회 불교교리=동산반야회는 12월 13일부터 동산법당에서 직장인을 위한 3개월과정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한다. 강의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이며 김재일법사가 강의한다. (02)732-1206~8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일본어=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금요일 11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일본어교육을 실시한다. (031)716-4215~7

▲문화유적답사 전문가 과정=역사탐방연구회는 12월 2일부터 2개월간 문화유적답사 전문가 양성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운현궁, 종묘 등 유적지에서 현장체험을 위주로 진행된다. (02)722-1615

모집

▲쑥뜸 연수생=능인선원은 제 3기 쑥뜸 연수생을 모집한다. 강의시간은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3시이며 선원장 지광스님이 강의한다. (02)577-5800

▲무료 중식 제공 후원자 및 후원단체=65세 이상의 무의탁 및 결식 어르신들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백미, 김장재료 및 부식류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후원자 및 후원단체를 모집한다. (02)365-3677~8

▲불교진각종 종무원=불교진각종은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전담직 남 종무원과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여 종무원을 모집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각종자격증 사본이며 불심이 돈독한 불자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02)913-0751~4

▲차량운행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피아노 강사=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 피아노반 개설을 위해 강사 선생님을 모집한다. (02)571-2988

불국토 홈페이지 : www.bulgukto.or.kr

불국토의 밤 2000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및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식

올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했습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때에
불사의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셔 포상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리고자하오니 축하와 격려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회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보리방송문화상은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 계승창달과 불교사회발전을 목표로 1999월 11월 1일~
2000년 11월 15일까지 방영된 불교관련작품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추천기간 : 2000년 11월 15일 ■제출서류 : 추천서, 작품개요서
■추 천 작 : VHS 녹화 및 녹음테이프 1개
■시상내역 : 1. 일반 TV부문 / 작품상
대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2,000,000원 우수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2. BBS부문 / 개인상 : 연출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진행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지역방송상 : 상패 및 연구지원금 1,000,000원
■문 의 처 : 보리방송모니터회 (02-712-5813)
■역대수상자안내 : 제1회 : 마애석불의 미소(대전 MBC), 오백번째 나한(교육방송) / 제2회 : 선찰대본산 범어사(부산 MBC), 한국의 불교(한진영상 KBS) / 제3회 : 인간기행 보리(현대방송), 직지〈直指〉(청주 MBC), 고승열전(서울 BBS),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서울 BBS) / 제4회 :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대구 KBS), 팔공산 백흥암(대구 MBC), 자비의 전화(서울 BBS), 물같이 바람같이(부산 BBS) / 제5회 : 팔만대장경(서울 KBS), 천재 서예가 김진민(전주 KBS), 한국의 명찰(서울 BTN), 자비의 천수천안(서울 BYN), 무명을 밝히고(서울 BBS) / 제6회 : 미소의 원류를 찾아 … (다큐서울 KBS), 만행〈卍行〉(KBS, 아리랑TV), 시장을 찾아서(서울 BTN), 천태종 3부작(서울 BTN), 무명을 밝히고(서울 BBS), 다시 듣고 싶은 노래(서울 BBS), 지혜의 샘(대구 BBS) / 제7회 운주사 - 천불천탑의..(서울 KBS), 미륵사〈2부작〉(전주 MBC), 신행365일(서울 BBS), 우암산 풍경소리(청주 BBS), 특별상(서울 BBS)

제8회 자랑스런 불자상 공모

자랑스런불자상은 2000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가장 기여한
재가불자를 선정하여 원력과 신행생활을 널리 알리고 포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추천기간 : 2000년 11월 18일까지 ■추천양식 : 이력서와 공적서
■포상내역 : 상패 및 부상(2,000,000만원)
■역대수상자안내 : 제1회 : 이문옥(전 감사관) / 제2회 : 황영조 / 제3회 : 용태용(변호사) / 제4회 :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 제5회 : 최완수(미술사학자) / 제6회 : 백승완(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익채(금정중학교 교법사), 김원수(동호여상 교사) / 제7회 : 이하우(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유정길(불교환경교원 사무국장)
■문 의 처 : 불국토 사무국 (051-868-0951)

시 상 식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오후 5시 ◆장소 : 코모도호텔 1층 충무홀

주최 : 사단법인 불국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청소년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주관 : 자랑스런불자상 운영위원회 혜총스님, 보리방송문화상운영위원회 위원장 수불스님(일반TV), 정여스님, 범산스님(라디오), 보리방송모니터회, 자랑스런불자상운영위원회
후원 : 감로사, 관음사, 내원정사, 부산불교회관(여여선원), 안국사, 영주암, 장천사, 천성사, 청담선원, 개금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 불국토한의원, 관음어린이집, 사이버스련관 POWER1318.com

매일 30여명 철야독송…절…참선

신행현장 | 기도객 붐비는 마산 금강정토사

"여시아문 일시불 개사위국기수급고독원…"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마산의 금강정토사(주지 자원) 법당에는 호궤합장한 우바새 우바이들이 금강경 독송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다. 직장을 마치고 혹은 가정에서 법당을 찾은 불자들의 독경소리와 일배 일배에 담긴 참회의 간절한 마음들이 도량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매일 금강경 3독, 108배 혹은 3백배, 1천배를 하는 사람들. 하루 한번의 절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정진을 이어가는 사람들. 금강경에 나오는 '희유하다'는 말을 저절로 떠오르게 하는 이들이 이곳에는 많다. 매일 천 배씩 4년 6개월을 이어온 보살, 3천 배를 100일 동안 원만히 회향한 거사, 반야심경 사경 5천 독을 회향한 보살, 2년째 매일 저녁 금강경 독송과 절을 거르지 않는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10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박종부(49·기계제작회사 대표) 거사와 부인 안태선(45) 보살은 매년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3천배 기도를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따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옳심히 정진 할 것을 발원하는 기도란다. "일주일을 출가의 마음으로 삼천배를 통해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고 한없는 하심의 마음을 다져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루 하루가 사뭇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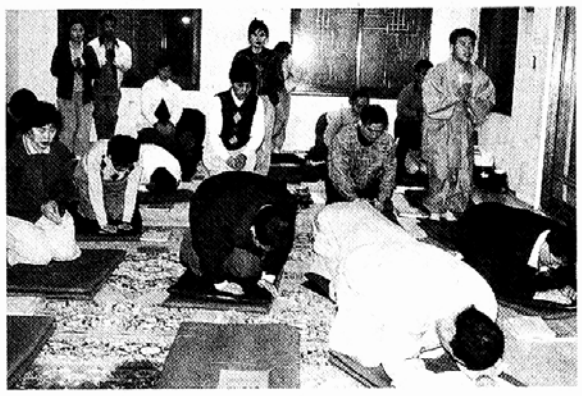
2년 전 사업 실패로 실의에 젖어 있던 강병군(54·자영업) 거사도 3천 배 기도로 실의를 딛고 의욕을 되찾았다. 88kg이던 몸무게가 10일만에 12kg이 줄어들 만큼 힘들었던 나날이었지만 기도를 하다보니 사업실패가 인생실패는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병군 씨는 "기도를 원만히 회향했던 것은 일체 장애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주지스님과 격려해준 도반들 덕분이었다"고 토로한다.

반야심경 사경만독
4년동안 매일 천배
온가족 만배기도

5년간 20여명 출가

이들은 한결같이 '나'라는 상을 놓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시작했던 기도는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고 말한다. 가정에 충실한 아내,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직장인, 마음 따뜻한 동료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역시'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스스로의 삶이 변화한 것.

"아내가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하면서 너무 밝아지고 편안해져 그것을 지켜보다 절에 오게 되었다"는 하치근(43·공무원) 거사, 그의 부인 천정아(43) 보살은 현재 반야심경 사경 만독을 입제하고 정진중이다. 온 가족이 만배 기도를 한 가족도 있다.



◇매일저녁 300여명의 불자들이 자신의 근기에 따라 철야 수행하는 금강정토사.

이렇게 이곳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부가 혹은 온 가족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사는 '불제자 가족'들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는 대가족의 공부 뒷바라지를 맡고 있는 정한숙(46) 보살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 공부"라고 하루종일의 수고로움을 수행으로 돌렸다.

이렇게 수많은 불자들이 찾는 금강정토사는 매일 30명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절에서 먹고 자며 수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5가마쌀이 한달이면 바닥날 정도의 큰 살림을 하는 주지 자원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를 꿈꾸며 여법하게 꾸려왔다. 이곳에서 공부한 이들만도 지난 10년간 3천여명을 넘었다. 매일 퇴근 후와 출근 전 새벽 금강경 독송, 절, 참선 등으로 수행하던 이들은 하나둘 출가해 최근 5년간 20명 남짓이 출가한 기록도 세웠다.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금강정토사 화엄법회, 묘화법회 불자들은 이제 법형제와 자매로 대가족을 이루었다. 일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부터 서로의 공부를 탁마해 주고 자원스님의 원력불사인 〈금강경〉,〈지장경〉, 〈부처님 나라(법요집)〉 보시에 힘을 보태는 일에까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천미희 기자

생활속의 불교 — 적자생존이란 망발때문에

인체를 소우주라고 한다. 오장육부의 돌아가는 모습이 우주의 운행 원리와 비슷하고 장기마다 수십억 개의 세포가 어우러지는 모습도 지구 같은 혹성을 닮았기 때문이다.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인체 내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세포 안에 다시 독립된 생명체(미생물)가 있고 부위 부위마다 세균이 함께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간에 통신하는 기능, 유통 기능, 생산·소비 기능 등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 소산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인체를 일컬어 중생의 국토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 셈이다.

수많은 생명체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어울려 돌아가는 모습은 지구 속에서, 나라 안에서 사람들끼리 뒤섞여 사는 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세상도 인체도 우주도 모두가 공동체이다. 개개인이 따로 따로 사는 게 아니며 세포나 장기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며 혹성들이 제각기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주고 받는 질서 아래서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불자의 서원은 이를 세상살이에 대입하면 해탈의 도를 닦아 보살행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를 인체에 대입하면 상구보리-내 몸을 끌고 다니는 근본을 아는 것이고, 하화중생-그럼으로써 내 육신 속의 수십조 세포를 몽땅 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체와 세상과 우주가 공생·공용·공체의 섭리 위에 존재할진대 '나 하나 잘되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반(反)우주적, 반인간적인 사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생 생활 중에 좀처럼 공생·공용·공체의 섭리를 자각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자각하기는 커녕 그 섭리를 '적극적으로 깨트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그런 삶을 유능한 삶, 보람있는 삶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수미산같다 한들 틀린 말이라 하겠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생존의 관계이다.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길만이 제 길이요 바른 길이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신 말씀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행복해지는 방법 하나 나눔의 복밭 일구세요"



운붕스님
포항 대성사 주지

살펴보세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우주의 움직임을.

들어보세요.
여름 내내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저 아득한 소리를.

헤아려 보세요.
잎들을 떨구어 내고 마침내 알몸으로 서서 겨울을 지탱해 나갈 저 나무들의 장한 결심을.

그리고 느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고, 자신의 깊은 심연에서 울려 나오는 전율과도 같은 삶의 의미를 느껴 보세요.

'씨앗 뿌려야 열매'
이 원리가 바로 인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 몸을 숙여 3배를 하며 무엇인가를 빌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처님께 빈 것은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란 것. 나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 지는 방법 하나를 제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과(因果)의 종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바로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잘 파악하면 최고의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홀홀 나뭇잎들을 떨구어 내는 저 가을 나무들을 보고 겨울을 준비하는 우주의 흐름을 응시하라고 한 것도 바로 원인과 결과의 엄연한 관계를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성하던 잎을 떨쳐 내는 버림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메마른 겨울을 견디고 봄날의 새 잎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흐름도 결국 인과의 굴레 속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인과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인과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나아가 좋은 인(因)으로 좋은 과(果)를 창조해 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란 것도 인과의 법칙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아무리 부처님께 행복을 빌어도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 행복을 빌기에 앞서 먼저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어긋남이 없이, 왜곡됨이 없이, 삿된 마장에 걸리지 않고 올곧은 결실을 맺도록 해달라고 비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다 행복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우주 법계 어느 한 곳도 복전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복의 밭은 넓고 넓습니다. 그 밭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씨앗을 바로 자비희사(慈悲喜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기쁘게 던질 줄 아는 마음으로 복밭을 일구십시오.

복밭 가운데 가장 으뜸의 복밭은 인간이란 밭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의 주변, 바로 내 이웃이 가장 으뜸의 복전입니다. 이 겨울 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갖지 않았나 하는 자기 반성과 남을 위해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어느새 세월은 연말로 치닫고 있는데 경제 한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면, 자신이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나누어야 할 이웃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신행캘린더

11월 22일(수)

■ 법왕사 달서분원 자광스님 초청법회=대구 법왕사 달서분원은 오전 11시 30분 문경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53)644-8108

■ 대한불교 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회는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각화사 주지 혜담스님을 초청해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18

11월 23일(목)

■ 군불교진흥회 정기총회=군불교진흥회는 오전 12시 국방부 종교센터 내 군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02)749-5135

■ 밀양 삼양사 낙성식=밀양 삼양사는 오전 11시 종합불교회관 낙성식 및 관음불상 점안식을 봉행한다. (055)354-3267

■ 운물련 대구지역회 창립 14주년 기념법회=운불련 대구지역회는 오후 2시 혜림원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17-820-7777 김주본

■ 능인선원 사찰순례법회=능인선원은 강화 보문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02)577-5800

11월 24일(금)

■ 전력인불자연합회 순례법회=전력인불자연합회는 오후 1시 장성 백양사에서 연합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02)3456-5784 홍기성

■ 봉림사 백고좌 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도시고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1월 25일(토)

■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송년법회=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는 26일까지 충북 천태산 영국사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2)500-3069 강인준

11월 26일(일)

■ 통도사 화엄산림=통도사는 12월 25일까지 한달간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한다. (055)382-7182

■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포교사고시=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6개 도시와 미국 LA에서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02)720-7060

11월27일(일)

■ 불교여성개발원 창립법회=불교여성개발원은 오후 5시 송현클럽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02)722-2101

11월21일(화)

■ 천불전 원불 봉안 및 천일기도 입제=대구 보현사는 오후 2시 천불전에서 원불 봉안 및 천일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한다. (053)254-6966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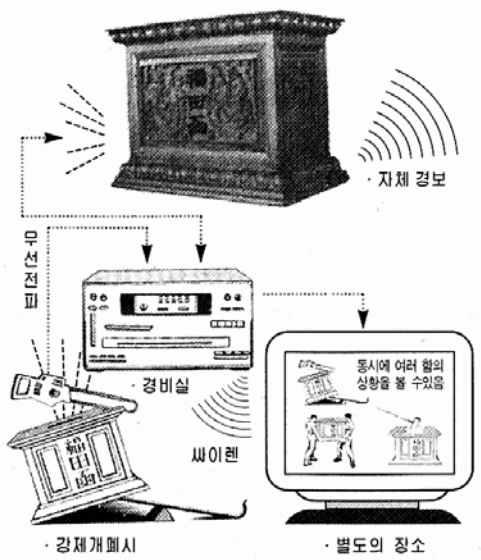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 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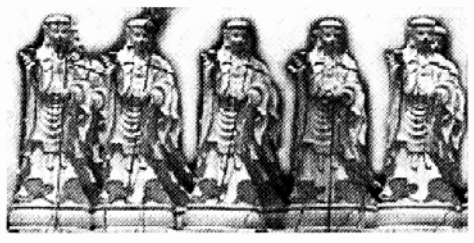
법당 경비 전용
불 전 함
도난방장치 ◆특허 2000-0011559◆



◆ 특수 전자 장치가 내장된 철재 금고에 외부는 통판조각으로 접합 했습니다. (리모콘으로만 개폐 됨)
◆ 범당內 한정된 지역을 침입하면 함의 요란한 경보와 함께 경비실 및 원하는 타 장소에 무선으로 침입 사실을 알려 줍니다 (옵션)
◆ 주·야 감시 센서가 항시 자동 작동되며, 전원 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개폐기능은 마비되고 경보는 계속됩니다.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100가지
병(病)을 고치는 의초(醫草) 인진쑥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영천 보현산 자연산 채약



가격 : ₩ 39,500

■ 비만/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쑥은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있어 체중감소, 살이찌면 어혈이 초래되고 살이찌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압조절, 어혈을 해소 여성비만에 큰도움이 되며 인삼 녹용에 버금가는 생약으로 【명의별곡】【본초강목】【동의보감】【유태종 박사의 식품보감】에도 나와있습니다.

■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해 집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이나빠 고생하시는 분께 좋으며, 옛날에는 황달에는 쑥을 달여 마셨습니다. (최영석 교수의 임상 실험으로 쑥이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있음을 증명)

■ 신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장이 좋아집니다」
쑥을 달여 먹으면 위장의 점막에서 혈액이 개선되어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소화 흡수도 잘되며 복부도 따뜻해지며 기운이 솟으므로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최고입니다.

■ 여성/몸을 따뜻하게..
쑥은 만성적인 통증(허리,어깨결림)냉기와 습기를 해소, 비타민 C도 많아 감기 예방과 고혈압·저혈압·신경통에 효과 있습니다.

■ 변비/쾌변(快便)으로 장을 튼튼하게
점액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하므로 대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도록 해줍니다. (붉은 변을 해소)

우체국
704064-02-029893
예금주 이민택

입금하시고 바로 전화해 주시면 한국 택배로 전국 어디든지 하루만에 우송해 드립니다.

지장선원/한국건강가족동호인회
053)982-6778 011)813-3679



박태원 교수의 13

불교로 보는 인생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

진리 추구하려거든 마음열고 집착말라

태어난 후 한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갑돌이. 앞산에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산신령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은 온통 그 산신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그는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였고, 산신령을 섬기는 마을의 전통 역시 확신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 지식과 신념은 갑돌이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탱하는 확고한 토대였다. 그 토대 위에서 그의 마음과 정서는 질서 잡혔고 또 안정되었다. 산신령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기에, 신념 공동체의 강한 유대로 맺어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탄탄하였다.

어느 날 여러 곳을 여행한 사람으로부터 산신령에 대한 그의 지식과 신념을 뿌리 채 흔들어 버리는 말을 듣는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지배하는 유일한 산신령이란 것은 없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소문과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미신일 뿐이야! 마을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바보 취급을 받지!" - 이제 갑돌이는 혼란스럽다. 이제까지 삶의 질서와 안정을 제공했던 기반이 흔들리니 어찌해야 하나. 길은 두 가지다. 과거의 신념을 흔드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의면해 버리는 길이 있다. 이 길을 택하면, 과거의 지식과 신념을 흔드는 자를 강하게 비난해야 한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말 대로라면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 라면서 그의 말에 강하게 도리질친다. 현상 유지·변화 거부·보수의 길,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길이다.

또 하나의 길이 있다. 기존의 안정이 깨지는 혼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보다 깊고 온전한 진실을 찾아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미혹에 입각한 안정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향한 불안과 고통을 용감하게 택하는 경우이다. 진리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부추기는 길, 변화에 과감한 길, 진보 노선이다. 이 길을 택하면 상당기간 괴롭다.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혼란이 괴롭고,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질서 위에 형성된 관계들이 흔들리니 괴롭다. 깊고 넓은 온전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와 안정이 자리잡게 될 때까지는.

고등학교 시절 필독서로 유행하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다. 감동으로 되새기던 그 유명한 구절, "알에서 깨어나 새가 되려면 알이 깨어지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해!"였던가. 진리를 향한 여정은 그렇게 괴롭기 마련이다. 무수한 알깨기가 거듭되어야 하는 길이 구도의 여정이다.

"거듭 들어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전통이 그러하다고 해서, 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통용되는 일반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그럴듯한 추리에 의한 것이라 해서, 곰곰이 궁리해 낸 견해이기에 그것에 대해 갖게 되는 편견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그럴듯한 능력 때문에, '이 분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칼라마경)"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탐구의 자세이다. 우리의 앎과 신념은 어디에서 연원하고 있는가? 혹 반복학습이나 전통, 소문, 성전, 통념, 스승 등의 권위에 압도되어 형성된 것은 아닌가? 전통이 진실일 수도 있다. 성전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이 진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권위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럴듯한 권위들에 집착하여 닫혀 버린 마음으로는 진리를 사랑할 수 없다. 무집착의 용기로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라야 진리를 담아 낸다.

방송 중인 '도올의 논어 이야기'가 화제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도올 선생의 강의는 언제나 대중들에게 학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강의 내용 중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견해가 해당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받으면서 시중이 시끄럽다. 오고 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부처님이 권하는 진리 탐구의 자세를 떠올리게 된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바른자세-운율법 '마음 안정'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③-어떻게 하나



◇ 참선에 가까운 자세를 취해야 올바른 염불수행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장궤합장을 한 채로 염불하고 있는 모습.

머리와 척추 일직선 심장박동에 맞춰

초심자 목탁사용 무난 법당 밖에서도 가능

염불수행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그렇다고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부처님께서 설한 주요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만큼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옛 조사 스님들이 염불할 때 조금이라도 '나'라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올바른 염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다.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염불할 때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자세를 취한다.

청견 스님(양평 법왕정사 주지)은 가장 효과적인 염불수행 자세로 장궤를 추천했다. 이 자세는 호궤 합장한 자세와 같으나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펴야 하고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야 한다. 이는 단전호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세로 오랜 염불수행에도 목이 아프지 않고 혀가 꼬이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스님은 합장하고 심장박동에 맞게 염불해야 올바른 염불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염불을 너무 빠르게 하면 발음이 제대로 안되거나 혀가 꼬일 수 있고, 너무 느리면 잡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합장을 하는 이유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고, 심장박동에 맞게 염불하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목탁을 치거나 염주를 손에 쥐고, 또는 큰 소리로 염불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초심자나 집중이 잘 안되는 사람의 경우 목탁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염불수행의 방법으로 여기거나 오래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능한 염불은 여럿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좋다. 불보살을 관하는 것이 염불이니 만큼 자신의 염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염불수행법을 설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4종 염불이다. 칭명염불(稱名念佛)은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며, 관상염불(觀像念佛)은 부처님의 상호나 탱화 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관상염불(觀想念佛)은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것이며, 실상염불(實相念佛)은 법신관으로 일체법의 자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을 펴낸 정목 스님은 "이 네 가지 염불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칭명염불은 단순히 명호만을 부르며 마음을 집중하는데 이르지만 점차 상호를 상상하며 보다 세밀한 상태로 몰입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스님은 "관상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관상은 상호의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입으로 명호를 부르되 입으로 한다는 생각을 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실상염불은 신업이 청정한 상태에 이르고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불수행은 반드시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길을 걸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공양을 할 때 등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을 번뇌망상과 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염불수행의 자세와 운율법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결국 가장 올바른 염불수행은 참선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에 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국내 연구수준 中·日 비해 미흡

35 선어록의 연구 (3)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선어록언어

국내에서의 선어록 언어 연구는 이웃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분야별로 간략하게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

선어록 번역의 시작은 간경도감(1461년 설치)의 언해본이며, 그 이후로는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의 〈한글대장경〉으로, 그 가운데는 〈조당집(祖堂集)〉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련선서간행회(白蓮禪書刊行會)의 〈선림고경총서(禪林古鏡叢書)〉(1988-1993)인데, 그 중에는 〈임제록(臨濟錄)〉 등 다수의 선어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어록의 체계적 기획·번역·출판이라는 면에서, 국내 선학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상 어록의 판본(版本), 간행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또한 원문과 대역(對譯)하지 않은데다가, 주석(註釋)도 없어 학술적 가치를 다소 떨어뜨리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법장(法藏)이 주해(註解)한 〈조당집주해(祖堂集註解)Ⅰ〉은 〈조당집〉 전 20권 가운데, 우선 1-5권을 번역·주해한 것인데, 한 두 가지 아쉬운 것은 대만에서 간행된 〈불광대장경·선장(佛光大藏經·禪藏)〉을 참고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현대식 표점(標點)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말 현토(懸吐)를 첨부하였으며, 당송(唐宋)의 속어(俗語) 해석의 오류가 적지 않은 점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한 가지만 지적한다.

508쪽 註解 21 '要且 : 요컨대, 결국, 어쨌든'→[수정안] '要且 : 여전히'

師曰 : 在彼中,卽如此,我這裏,作麼生? 對曰 : 要且不違背

(번역)스님이 "그대가 그곳에서는 그러했지만,이곳에서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묻자,"여전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철교, 일지, 신규탁이 편찬한 〈선학사전(禪學辭典)〉(1995)은 일본의 〈선학대사전〉〈선어사전〉 등을 기초로, 9100여 항목을 수록한 것으로, 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선어록의 경우 대상 어록의 판본, 간행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어휘 예문의 우리말 번역이 전혀 없고, 현대식 표점 부호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선어록에 자주 출현하는 어휘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설명의 오류가 있는 등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에 하나의 예만 들어 본다.

〈선학사전〉 735쪽 : 호여(好與) 분명한 .확실히→[수정안] 호여(好與) : 조심하다, 주의하다, 신중히 하다

問雲居: 愛色不? 對曰 不愛. 師曰 : 未在. 好與!(〈조당집 6 洞山和尙〉)

(동산 스님이) 운거에게 묻기를 "자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동산)스님은 "자네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먼, 주의하게!" 라고 말하였다.

이 밖에 선어록 언어를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정경규(석사), 송인성, 박영록, 장호득(이상 박사) 등이다. 이 중 박영록과 송인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편으로 각각 4편 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특히 후자는 1995년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 중국 및 일본 학자들에게 한국의 존재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의 선학 연구는 주로 단독 연구 중심이 있으나, 금년(2000)에 아래의 두 학술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연구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선학회(www.seonstudy.org):3월에 결성되어(회장 현각 스님), 선사상은 물론 문학 사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선과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 발표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선어록연구회(www.sinology.org/séon):4월에 결성되어(회장 종범스님), 매월 정기 윤독회를 갖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월 1회 정기 모임 이외에 매주 1회 윤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최초개발! 초강력 고효율 근적외선 히타 사찰에 인기폭발!

이동용
▶GQ-1000C(1.3kw)
▶GQ-2000C(1.8kw)

사무실,점포용 사찰전용

상,하로 15°
좌로 45°
우로 45°

벽걸이용
▶GQ-1000W(1.3kw)
▶GQ-2000W(1.8kw)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 히타!

주요제원
용 량 : 220V 1.8KW
220V 1.3KW
램프수명 : 9000시간
열 효 율 : 85~90%

근적외선(Near Infra Red NIR)이란?
근적외선 NIR은 첨단과학에 의하여 새로이 발견된 적외선 단파로서 2200이상에서 생성되므로, 직진성이 매우 좋아 사람들이나 정해진 대상에 복사에너지를 통하여 순간 난방을 제공하여 원적외선에 비하여 2배이상 고효율이므로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Gold Quartz Heater는 초현대적 기술과 과학에 의하여 발견된 근적외선(NIR,Near Infra Red)을 이용한 고효율, 고에너지 난방방식으로써 고육가 시대를 맞이하여 석유를 대체할 수있는 초강력 난방시스템입니다. 특히 Gold Quartz Heater는 직사에너지이므로 기존의 석유, 가스 스토브로는 난방이 불가능한 야외, 냉동실, 공장, 넓은 장소등에서 매우 유효하고 경제적입니다.

원적외선 (Long wave Infra Red)이란 ?
원적외선은 적외선의 장파로서 500 이하에서 생성되며 대류에너지에 의한 난방 방식이므로 공기중에 많은 에너지 손실등의 문제가 있으며 원하는 온도의 난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므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되어 비경제적입니다.

Gold Quartz Heater 이래서 좋습니다.
◆ 사람과 대상물만 난방이 되고 공기는 그대로 이므로 환기가 불필요한 쾌적한 난방효과
◆ 1초이내의 쾌속난방이므로 예열이 필요없습니다.
◆ 전기에너지의 거의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열의 낭비가 없으며 9000시간의 램프수명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 연소의 냄새나 오염이 없으므로 매우 위생적입니다.
◆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카다로그 필요 하신 분은 보내드립니다.

본사 제조원 (주)성화엔터프라이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빌딩 1221호
http://www.goldquartzir.com
e-mail:acedk@netsgo.com

본사 특약점 성동엔지니어링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2
☎ (02)723-2729 / 732-2461 / 011-234-3941

불교용품의 선구업체 가야기획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공직자 비리 및 기강해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 기본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제 2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수선한 요즈음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절실한 이 때 공직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경전 말씀을 통해 들어보자.

이렇게 들었다

공직자 윤리

법답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고 고요하고 견고하게 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마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그렇게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3악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안(彼岸)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3일의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요, 영원할 줄 알고 탐낸 모든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자문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 〈능엄경〉

▨차라리 도(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다. 〈육도집경〉

▨아첨하는 마음은 道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은 자타를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미 대선의 교훈 '민주주의 험난한 여정'

불자 세상보기

차이 차별하지 않는 무차정신 더 절실

냉혹한 합리성으로 정의-평등 계산불가



구승회
동국대교수
윤리학

2억 6천만명의 나라, 한국의 5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나라,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 미국을 대표할 대리인 선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겨우 수 백 표를 놓고 지금 갈등중이다. 누가 대통령이냐를 놓고, 플로리다식 산수에 여념이 없다. 많은 나라들은 셀 때마다 틀리는 팜비치의 계산법을 즐기고 있다.

인구의 40%가 안되는 1억명이 투표하였고, 80%의 반대자 혹은 방관자들에도 불구하고 총인구의 20%의 지지일지언정 단순히 몇 백표 더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권력을 위임받는 민주주의, 이른바 인민지배(democracy)의 아이러니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대의정치가 있는 곳에선 언제나 있어왔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지배라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념은 아크로폴리스의 아고라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 전설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통치 권력은 그 몇 백 표의 대의(代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말했다시피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외부상황(적), 정치문화, 그리고 제도에 의한 지배이다. 그런 점에서 '형체 없는 모래알 같은 개인이 아니라 배타적이면서도 자발적 연대로 충만한 복합체, 수백년 지속되어 온' 미국 민주주의가 이번 일로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제도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처칠은 어느 주에서 단 한 표만 많아도 선거인단 전부를 싹쓸이하는 승자독식 같은 선거제도를 최악의 민주주의로 비난한 바 있다. 이 제도에서 개인의 권리 양도(투표행위)는 오직 주(州)단위에서 대표될 뿐이다. 선거인단 선거제도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연방 헌법이 기초될 당시 1인 1표의 직접선출방식이 채택되지 못하고 남부, 백인에게 유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각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연방국가인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였으며, 역설적으로 이는 200년 이상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주의라는 심원한 갈등을 통합하는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정책도 정당도 아닌, 오직 머릿수로 말하는 원시적인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6:2로 이기고 있는 9회초에 번트를 대는 (예를 들면 지난번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 것과 같은 잔인한 대통령 선거를 즐기는 우리로서는 남의 나라 제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우리의 대선에 비하면 차라리 덜 야만적이다.

민주주의는 근대적인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다.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은 후기 산업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합리적 계산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호혜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 근대 이전의 문화적 관습은 민주주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여론은 두 당사자에게 법적 관단보다는 초기 미국 혁명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위대한 세계시민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토마스 페인(Tomas Paine)의 휴머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다이내미즘의 원천은 미국의 종교적 전통이다. 초기 청교도에서 최근의 모르몬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종교적 전통은 강한 개인주의와 공동체 지향성이라는 미국인의 이중적 가치를 조정하는 두터운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 해 왔다.

미국 대선은 냉혹한 합리성만으로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계산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다. 불교의 자비정신은, 셀 때마다 틀리는 '플로리다식 정의(正義)' 계산법을, 계산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새로운 세기의 합리성이다. 그 힘은 바로 같지 않음을 같게 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무차(無遮)정신에서 나온다.

"다종교 사회 폐습 성역화 해체"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



오늘날의 한국 종교는 다종교상황을 이루고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가 공존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많은 한국민족종교가 활동하며, 무속은 샤머니즘의 원형을 의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다종교 사회는 문제를 안게 된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절대확신을 표현하는 행동이 타종교인을 탄압하거나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곧 교단과 사회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각 종교는 교단의 팽창을 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일정 선에서 종교의 선전과 전교(傳敎)의 전략·전술을 자제하지 않으면 전체 사회는 종교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를 파괴하게 된다.

종교단체들이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그 안에 안착하는 것은 문화창조 주체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역화의 첫째 경향은 교조주의, 경직된 전통주의, 그리고 훈련받지 못한 신비주의 운동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사회의 역사적 지성과 양심의 건전성을 읽지 못하고 자기 주장에 유폐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양심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들이 성역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다종교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이익집단의 하나가 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익집단으로서의 성역화는 결국 사회전체문제보다 자기 단체의 이익을 사회에서 경쟁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교운동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피선교인에게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단군상 문제에서 보듯이 공격적인 태도로 타종교를 대하는 사례도 있었다.

종교단체들 간의 무리한 경쟁도 문제다. 개신교를 비롯해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많은 종교단체들이 북한문제에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경비와 인력의 분배, 선교방식 등을 서로 협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별단체의 개별성격을 특성화하는 것은 성역화 과정을 걷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종교 사회의 폐습인 성역화 과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언론과 종교계, 학계, 문화계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구체적인 공동목표를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 교육, 교통, 도덕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예절과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들이 사회적 주체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고민해야 한다.

건전 종교문화 발전 세미나

주제발표 요약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이만신 목사)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건전 종교문화 발전 세미나'가 13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의 '건전 종교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 주제의 기조강연과,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의 '건전 종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내종교만…' 맹신 버려야 화합"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가 국가의 지도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교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 상충 가능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대립의 심각성은 그 절대적 신념체계 때문이다. 통상의 가치기준은 상식적이며 상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종교적 가치기준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종교전쟁은 없었다. 그 까닭은 관용을 표방하는 불교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신의 믿음 이외에 다른 믿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물론 이 관용성을 한국인의 국민적 심성과 관련해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유난히 현세적 복락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내세라든지, 자유-평화 등과 같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문제들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욕구들이 종교에 그대로 투영될 때, 종교 또한 현실 중심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것은 한국인의 기복성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현세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동시에 여러 종교들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종교들이 호교화 되면서 갈수록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최근 개원한 '훼불전시관'은 우리시대의 종교적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표상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대화부재'에 있다고 보여진다. 종교적 대화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며 본질적이라기보다는 현상적이다. 대화의 패턴이 보다 지성적이어야 하며, 그 주제 또한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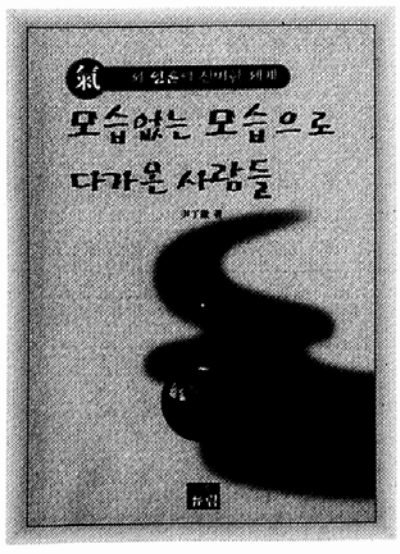
한국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교학적 기반이 미약하고, 열렬한 신도만 있을 뿐이고, 철저한 자기 성찰의 수도적 자세가 부족하다. 따라서 독선과 자기도취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타종교에 대한 배척이 등일시돼서는 안된다.

종교적 대화는 반드시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지 않아도 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방편임을 인식하는 '공유정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 속에서 진여(眞如)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인 것이다.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진여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著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著 도서출판 유림 펴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몸의 아픔이 천도가 안된 보이지 않는 영혼(靈魂)의 의식인 기(氣 : 에너지)체가 사람의 몸 속에 시공을 초월해 들락거리므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초능력적 체험 이야기를 세계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세밀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원극학의 진인(眞人)인 장지상(張志祥) 교수로 부터 기(氣)와 광(光), 음(音)의 이론으로 구성된 원극학(元極學)을 전공받았으며 원극학(元極學)연구와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 윤정주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儀式)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1~2초 내에 영가천도(靈駕薦度)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독특한 초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기(氣 : 저자의 마음에너지)를 서울과 대구의 수련원에서 시공을 초월해 나누어주며 해결해 주고 있다.

영남일보, 매일신문 논평기사중에서 -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에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사·부·대·중

모성애와 자비



안옥선
철학박사 · 전남대 강사

11일 불교학연구회의 추계학술발표회가 있었다.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주제는 청중의 뜨거운 토론을 유발시킨 것 가운데 하나였다. 보수적 사상이라고 여겨지는 유교는 이미 작년에 '유교와 페미니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진 바 있다. 거기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도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그 연구를 다각화하고 있음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남녀차별 문제는 빈부격차, 환경파괴, 생명의 도구화 등의 문제와 함께 우리 시대가 피해갈 수 없는 화두이지 않은가.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불교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과 '웬 불교페미니즘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성애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모성애가 역사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해 왔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후자는 여성 고유의 것으로서의 모성애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모성애의 상실이 심각한 사회피폐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는 모성애가 여성에게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성불평등적 · 여성억압적 이데올로기로 기여해 왔음을 문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모성애의 감동적인 힘을 강조하고 모성애 상실에 의한 도덕적 피폐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흥미로운 것은 불교페미니즘 주창자이든지 '웬 불교페미니즘이냐'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모성애가 갖는 가치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양쪽이 모성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는 '모성애의 성초월적 수용' 내지는 '전인간의 모성화'일 것이다.

사실상 불교의 자비는 모성애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며 모성애적 사랑을 그 모델로 한다. 모성애가 무조건적이고 비타산적이며 모든 것을 다 바치듯이 자비 또한 그러하다. 모성애가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보듯이 자비도 모든 중생을 자신의 몸으로 본다. 모성애가 모든 아이를 동등하게 사랑하듯이 자비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부처님도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듯이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생명체)을 사랑하라'고 한다. 요컨대 불교의 자비는 모성애적 사랑을 여성만의 가치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목탁소리

실종된 종무원 복지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불교계의 일꾼들인 사찰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어떨까.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개 일반 기업 급여의 60~7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겨우 먹고 살 정도이며,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질수록 생활고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 일' 하려면 맞벌이는 기본, 신심으로 버틴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가 지난 10월 한달간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서울지역 주요사찰, 주요 불교단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가입),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도 종무원들의 복지가 열악한가 새삼 놀라게 된다.

조계사 능인선원 봉은사 등 주요 사찰과 생명나눔실천회 우리는선우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구본사의 경우 종무원들이 보험가입을 요청해도 스님들의 인식부족으로 하지 않고 있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종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불교단체도 사정은 비슷해서 상근직원 수의 미달과 재정 부족으로 보험가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사고나 병이 생겼을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계종이 내년도 중심사업으로 '본말사 행정체계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 · 말사 종무원의 신분보장과 급여체계 등을 규정한 종무원 복무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조건 '신심'을 강조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근무환경과 적절한 급여로 사기를 올려주어야 일도 잘 하게 되는 법이다. 불교계도 이젠 재가 종사자들의 복지를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여시 왕흥사지. 부여시는 98년부터 왕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농가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올해 9월에서야 구체적인 발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토지매입을 원칙으로 한 NT는 이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NT 국민신탁운동

"훼손되기 전 땅 사서 문화재 지키자"

문화유산 보호 '새물결'

"폐사지 · 비지정문화재 관리 적극 활용"

문화재청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이하 NT)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 스스로, 문화재를 보호 · 관리하는 데 쏟는 현재 수위의 행정 · 재정적 지원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재 애호 욕구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이춘근 기념물과장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과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기능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사고일 뿐이다"고 말한다.

NT를 우리말로 옮기면 '국민신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자산 기부를 통해, 훼손될 소중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하고, 이를 시민 주도적으로 영구히 보전 · 관리해 가는 극민운동'이다.

개발의 논리나 자본의 힘에 맞서 '옛 가치'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년 전 불교계를 흥분시켰던 가야산 해인사 골프장 사건은 그 한계를 잘 보여주는 실례다. 골프장 건설허가는 취소된 상태지만, 당시 공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관전 건물로부터 직선거리로 2.7㎞ 안팎에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는 발파 여진을 감당하기에 너무 짧은 거리였다. 더욱이 해인사 일원 사적 및 명승 지정구역 경계와는 불과 600여m 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 · 자연 유산들은 개발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T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다는 데 있다.

NT운동이 보존할 수 있는 대상은,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되었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생태환경, 경관, 명승지, 문화재 등이다. NT운동은 불교계와 매우 밀접하다. 개발과 절도범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는 폐사지나 비지정문화재가 NT의 보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폐사지

전국의 폐사지 수는 3200여 개. 경주 황룡사지나 강화 선원사지, 원주 거돈사지, 양주 회암사지, 여주 고달사지, 제주 수정사지 등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을 어귀나 산등성이의 빈터로 남겨져 있는 이름 없는 폐사지일 뿐이다. 일반인들은 그 곳이 사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밭을 만들거나 묘지로 쓰는 등 훼손하기 일쑤다. 심지어 사지에 남아 있던 유물들은 대부분 비지정문화재인 탓에 절도범의 손을 타기 쉽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폐사지 보존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해 조계종 문화부에서 북한산성 내 폐사지 20여 곳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5 곳이 사유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원주 흥법사지, 화순 공림사지, 예천 개심사지, 서산 보원사지, 장흥 금장사지, 경주 남산리사지 등과 같이 정작 소유권 때문에 보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폐사지들이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화순 공림사지나 장흥 금장사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지표조사나 발굴 등과 같은 학술적인 접근 이외에는 어떠한 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전국문화유적총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문화유적은 총 3만70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 관리되고 있는 것은 현재 7800여 건에 불과하다.

파악된 문화재와 지정된 문화재가 수적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 뒤따르게 되는 정비 · 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보존할 가치를 갖게 된다. 현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훼손 · 멸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 제도적으로는 '가지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지만, 대상 선정이 까다롭고 6개월 내에 지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제된다. 비지정문화재 전반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조명래(단국대) 교수는 "비지정문화재를 NT의 보존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없어 개발과 활용이 수월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관리 · 운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NT를 시작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지정문화재라도 NT운동을 통해 보존상태가 양호해지고 시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강화 선원사지 파수꾼 성원스님



"주변 논밭 신도 경작 유도 난개발 억제"

16일 강화 선원사지 4차 발굴조사 개토식을 가진 선원사 주지 성원스님은, 한국불교 1천 6백여 년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폐사지가 이제는 불교 유적이기에 앞서 지역 유산임을 강조했다.

폐사지에 대한 스님 지론에 따르면, 해당 토지를 되찾는 게 관리의 기름길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스님에게는 한 가지 방책이 있다.

"선원사지 주변에 있는 논밭 중에는 강화군 소유로 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신도들에게 이들 논밭을 임대해서 경작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군 소유 논밭은 자주 거래되는데, 이 때 경작했던 사람이 우선 순위일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거든요."

개발로부터 폐사지를 보호하고 또 능력이 되면 사지의 땅을 사들이기가 용이하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지표 · 발굴조사 역시 땅을 넓히는 방법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 · 발굴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폐사지의 범위를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성원스님은 "절터에 무조건 전각을 세우는 일을 폐사지 복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폐사지는 발굴하고 또 잘 정비해 지역 유산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사찰은 사지 인접 지역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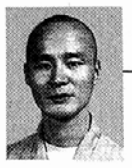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④

마음밖서 부처를 찾지 말라

본심 알면 번뇌망상·생사 없어 해탈

눈(肉眼)으로 보는 것을 시(視)라 한다면 마음(心眼)으로 보는 것을 관(觀)이라 한다. 불교는 보는 세계보다는 '관(觀)하는' 세계에 중점을 둔다. 보는 세계는 외부의 세계요, 관하는 세계는 내부, 즉 주관(主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의식중에 있는 세계요, 생각하는 세계다.

혜능스님 사상의 진수(眞髓)가 〈육조단경〉이라고 한다면 '마하반야바라밀법(摩訶般若波羅蜜法)'은 그의 심지(心地)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육조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선지식이여! 마하반야바라밀이-가장 높고 최상이며 으뜸이니 머무름(住)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또한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 좇아 나오셨느니라." (善知識 摩訶般若波羅蜜 最尊最上最第一 無住無往 亦無來 三世諸佛 皆從中出)

이 마하반야바라밀법은 불교의 공사상(空思想)을 여실히 밝힌 법문이니, 선가(禪家)의 다시 없는 심지(心地) 법문으로써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마음의 지혜를 성취하면 번뇌망상 속에 부처가 있고, 시장 한복판에서 온갖 시비분별을 하더라도 보리반야(菩提般若)가 밝게 빛난다. 만일 마음이 미혹 깨치지 못했다면 아무리 깊은 산 조용한 굴 속에 숨는다 해도 번뇌망상이 죽끓듯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 관조(觀照)하면 안팎이 하나로 밝게 드러나서 제 본심을 알게 되고 본심을 알고 보면 번뇌도 망상도 없고 생도 사도 없고 육체도 생각도 없어서 누가 괴로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 이것이 개안(開眼)이고 열반 해탈이며 반야삼매(般若三昧)의 성취이며 무념(無念)이다. 무념법을 깨달아야 부처님의 지위에 이른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혜능스님은 자성미타(自性彌陀)를 역설한 정토관(淨土觀)의 선정일여(禪定一如)와 재가불교 대중화 운동의 시사적 법문을 하시고 있다. 마음을 닦아 마치면 이곳이 곧 극락이지만 십선(十善)을 행하지 않으면 서방정토에 나고자 해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본문 내용에서 '승속간(僧俗間)에 흔히 아미타불을 칭념하여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는데, 과연 그곳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이 의심을 풀어주소서'라는 질문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하근기의 사람에게는 먼 길을 말하고 상근기의 사람에게는 가까운 법을 말하게 되는데,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것은 하근기의 사람이 하는 법이고, 상근기의 사람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부처를 구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상근기는 곧 10악8사(十惡八邪)를 끊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품을 보아 성불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이 곧 부처님 국토가 청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보고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현상으로 보는 것은 현상계(現象界)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자성(自性)의 입장에서 보면 아미타불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극락세계가 서방에만 별도로 있을 수 없으며, 극락세계 아닌 데가 없고 아미타불 아닌 사람이 없다.

혜능스님은 후학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자성진불계(自性眞佛偈)를 남겨 스스로 구하도록 가르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임종게(臨終偈)를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 그날 밤 삼경에 천화(遷化)하셨다. 〈육조단경〉은 이 때의 광경을 "신비로운 향기가 방안에 그윽히 나는 듯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 꽂혀 있는 듯 하였으며, 숲의 나무들은 흰색으로 보이는 것 같았고, 날고기는 짐승들도 슬피우는 것 같았다"라고 장식하며 그 막을 내리고 있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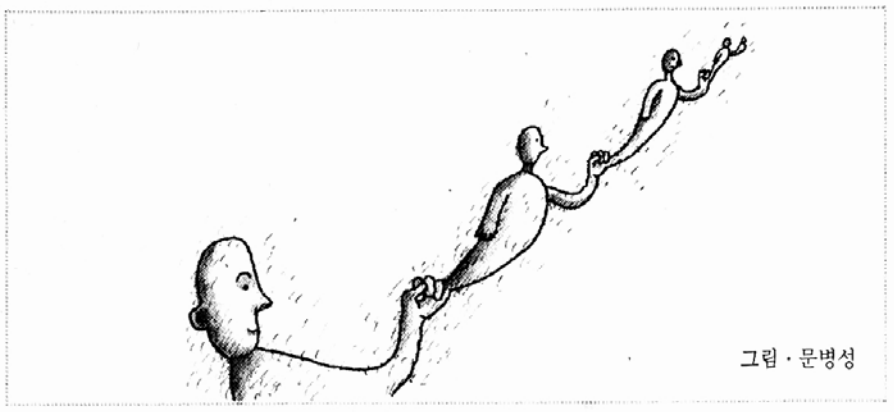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전체와 부분은 항상 대화

불교와 과학 〈7〉

일상성 - 2

과학 모든 사물은 고립 독립된 존재
불교 나와 세계는 본래 연결된 하나

어느 숲 속에 일개미들이 모여 사는 두덩이 있다. 그런데 일개미들의 두덩 안에는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개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개미들도 일정 비율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와 연관하여 어느 일본 생태학자가 8년 전에 발표한 것을 이야기해 보자. 그 생태학자는 파일로트 실험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규모 표본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미 군집의 생태적 연대성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10만 마리의 개미군이 있다고 하자. 그 중에서 7만 마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3만 마리는 놀고 있다. 그래서 일하는 개미 7만 마리와 노는 개미 3만 마리를 분리시켰다. 그런데 분리시킴과 동시에 일하는 개미 7만 마리 소군집 안에서 자동적으로 30%는 다시 노는 개미가 형성되고, 노는 개미 3만 마리 소군집 안에서 자동적으로 70%는 다시 일하는 개미가 된다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분리시킨 두 소군집 사이에서 일어난 비율의 변화가 동시적이라는 사실과 그들 사이에서 어떤 개미는 일하고 어떤 개미는 놀게끔 하는 외형의 물리적 신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노는 개미와 일하는 개미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의미를 우리 인간들에게 던져 주고 있다. 개미의 개체가 분리되었다는 이성적 전제를 가질 경우 우리는 이런 개미군집의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 이하는 사물들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이 고립되고 개별적인 모든 개체적 사물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원자론적 사유방식에 근거한다. 이런 원자론적 사유는 서구 과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만들었으며 오늘날 산업사회가 낳은 개인주의의 한 단편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획득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오고가는 관계의 끈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이런 문명론적 상황을 철학에서는 '인간소외'라고 표현한다.

이런 소외의 상황은 서구사회에서 먼저 그 위기감으로 표출되었다. 당연히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서구에서 먼저 일어났었다.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많은 서구사회의 대안들 중의 하나가 바로 화엄경의 인드라망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이었다. 그래서 과학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드라망은 서구인에게는 하나의 신비로운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인드라망은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재된 일상성의 세계임을 확인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역시 그 일상성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으며, 특별한 기도나 영성 혹은 신비한 주술을 통해서 그 인드라망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말에 엄살떤다는 말이 있다. 엄살떤다는 말은 몸의 작은 한 부분이 다쳤을 때 온 몸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엄살의 어원은 '온 살'이며, 옴살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경전에서 '옴'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옴은 빨리어의 전체라는 뜻이기도 하다. 새끼손가락 끝을 조금 다쳤다고 하자. 그렇게 다친 것을 갖고 엄살을 떨 수 있으려면 새끼손가락 끝이라는 몸 한 부분이 전체의 몸과 평등한 관계로서 하나의 연결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손가락과 온몸이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한다. 이런 엄살은 나 하나의 몸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일종의 자기보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엄살이 나 하나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연대와 관계를 통해 전체와 부분이 항상 대화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임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불행하게도 나와 너의 공동체적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미군집의 사례는 바로 엄살 구조의 자연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다. 이는 원자론적 사유방식이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는 공동체적 생태계가 원래 그것도 아주 일상적으로 있었음을 예시한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떨어져, 내 사랑을 확인하는 동시에 내 존재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아프리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인드라망의 한 부분임을 느끼는 일이다.

나 하나의 존재는 실은 전체의 그물망 속의 한 매듭일 뿐이다. 그 매듭은 삶 속의 작은 자비의 실현을 통해서 거대한 우주적 삶과 만나면서, 전체 그물망을 하나로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드라망은 억지로 만들거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을 찾는 일임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꽃 직접 심고 가꾸며 바른 마음·행동 배워요

지구촌 불교 / 팔정도 정원

미국 캘리포니아 그린 굴치(Green Gulch)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물으면, 아이들이 먼저 지목하는 곳은 '팔정도 정원(Eightfold Garden)'일 것이다.

〈트라이시클〉 최근호를 보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수에히코 오노(Suehiko Ono · 23) 씨가 만들고 있는 이 정원에, 지난 5월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학교에서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이 곳에서 그냥 놀기보다는 꽃을 심고 가꾸는 데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힐의 〈비밀의 화원〉(1577년)과 같은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 그린 굴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의 평범한 공터였죠. 그래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다보니까 '팔정도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오노 씨의 말처럼 '팔정도 정원'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다. 200여 평의 공터에 꽃을 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팔정도 정원'이 된 것이다. 물론 이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 '팔정도 정원'을 가꾸는 아이들.

팔정도 정원을 찾은 지 2개월 째라는 파빈(12)은 "이 곳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노 아저씨의 말처럼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배움)가 있어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美 캘리포니아 동심 밝히는 정원 화제
"아프리카 굶는 친구 돕자" 콩 키워

이 곳을 찾는 아이들은, 팔정도(八正道)라는 것이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등을 말하고, 또 이것들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정원의 이름인 '팔정도'에는 올바른 마음, 행동, 말, 생각 등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노 씨가 아이들에게 꽃의 의미로 팔정도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탓이다.

팔정도 정원에서 노박덩쿨의 진실함, 데이지의 겸손함, 스타티스의 열정, 아마릴리스의 수줍음, 시네라리아의 명랑함, 제라늄의 결심, 해바라기의 굳은 믿음 등이 피어나고 있는 것도, 팔정도의 가르침과 유사한 '꽃말'을 가진 꽃을 심었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은 '콩'이다. 정원에 무슨 '콩'을 심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콩'을 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콩이 공터와 맞붙은 이웃집 담장을 휘감으며 자라는 동안, 그린 굴치 지역의 아이들의 마음에 나와 타인을 똑같이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커가고 있는 셈이다.

〈트라이시클〉 지에 '팔정도 정원'을 기고한 웬디 존슨(명상가) 씨는 "오노(Ono) 씨의 정원이 아이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정원으로, 그린 굴치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蓬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2000년 11·12월호

Buddhism & Culture

불교특강 - 21세기의 화두를 불교에 묻는다
엄과 윤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봉수(동국대 사회교육원) 선생의 정확하고도 확실한 설명. 불교교리 중에서 업과 윤회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⑤ 선정(禪定) · ⑥ 반야(般若)
육바라밀 중에서 선정과 반야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화두선에서의 선정 · 반야(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 비파사나를 통해 본 선정 · 반야(원담 스님/송광사 선원)
■ 연재를 마치며/이 시대 진정한 육바라밀행은 무엇인가 (김호성/동국대 교수)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⑤
-위당(威堂) 신헌(申櫶, 1810 ~ 1884)이 쓴 서울 화계사 '보화루(寶華樓)'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①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기람의 숨결 - 김천 황악산 직지사

컬러화보 ②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 - 선운사와 쌍봉사의 주요 전각들의 신구 사진을 통해 살펴본다

포커스/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오싱젠과 불교
- 국내 미발표된 그의 불교적 작품, 『영산(靈山)』을 소개한다



좋은 책 읽기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페마 쵸드론 스님의 책 읽기(진우기/KBS, 불교문화센터 강사) - 『하늘이 무너질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불교가 주는 마음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결법을 말하고 있다.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⑤
- 신라 진평왕과 왜의 백제인 스이코 여왕(하)
신라 진평왕대에 동양에서 최초로 여왕에 오른 일본의 백제사람 스이코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라불교와 문화를 만난다

중국 속의 한국불적 /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마지막회)
- 강서성의 선종관련 한국사찰 답사 ②

인물포커스 근 · 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문학편)
1 譯經과 불교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월하 김달진 선생
2 禪을 노래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계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한갑진 회장이 사찰과 신행단체에 보시하기 위해 쌓아둔 〈아함경〉 전집을 살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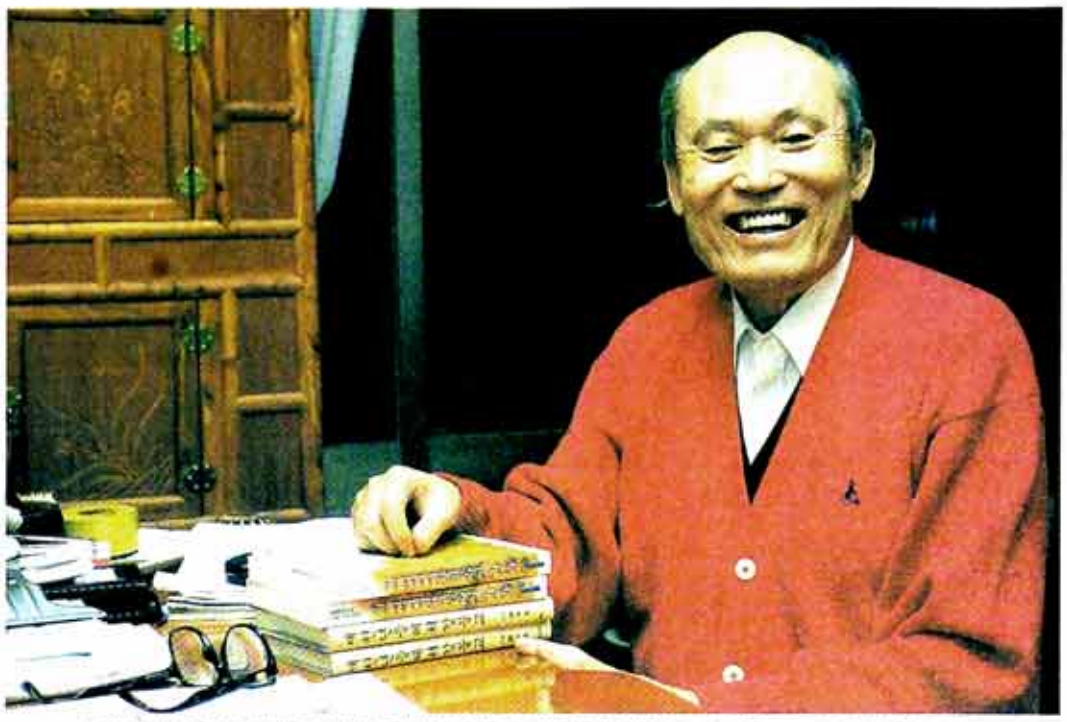
"사는동안 할 일 집착 끊는 공부뿐"

노란 은행잎들이 흩날리는 늦가을 오후, 서울 필동에 살고 있는 원로 영화인 한갑진 회장(77·한진흥업)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람보다 책들이 먼저 맞아 주었다. 그가 펴낸 〈아함경〉 4권과 저서 〈새 천년 헤쳐갈 불교〉가 출입문 주위에 그득한 때문이다. 한켠에는 아직 포장되지 않은 책들도 수두룩하다.

남산을 배경으로 들어선 그의 2층집은 겉보기와 다르게 온통 책의 향기로 가득하다. 마치 서고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다.

산문밖의 선禪

불서 펴내고 법보시 한갑진翁



◇영화인에서 불서를 펴내고 보시하는 평범한 불자로 탈바꿈한 한갑진회장. 그는 지금까지 100여권의 책을 펴냈다.

"불교 알리기 여생 바치고 싶다"

아함경 전집 3만권 찍어 사찰·신행단체에 보급
80년대 말 법보시 시작
영화 '팔만대장경'도 제작

한 회장도 〈아함경〉 전집을 포장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불서를 포장하는 일 속에서도 불법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 작은 상자 속에 불법의 진수가 들어 있어요. 모든 불자들이 그 불법의 바다에 흠뻑 빠져들면 좋겠어요. 불교를 알리는 데 남은 생을 바치려 합니다."

한 회장은 요즘 불서를 보시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아함경〉 전집도 3만 권이나 찍어 전국의 사찰이나 신행단체에 무료로 보시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0년대 말에 쓴 〈부처님의 생애〉를 1만 여권이나 보시했고, 그 이전에 쓴 〈인도와 불교〉, 〈알기 쉬운 불교〉 같은 책들까지 포함하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책을 보시해 온 셈이다. 그리고 지금은 2년 후 출간예정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집필하고 있다.

40여 년을 영화 만들기에 매진한 한 회장은 영화 '팔만대장경'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인이다. 팔만대장경 목판 제작과정은 담은 이 영화는 그에게 영화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제작비가 보통 영화 5배나 들었던 그 영화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팔만대장경은 몽골군의 침략 아래 16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 파란만장한 드라마였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자 한자 간절하게 판각하는 제작과정을 자행하면서 많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수행정신이 아닐까요."

수행은 한정된 공간이나 특별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행자가 치열하게 정진을 하듯 불자들도 자신이 일에 혼신을 다할 때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과 영화 만들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한 회장은 대양영화주식회사(66년)에 이어 한진흥업(70년)을 설립해 '김의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난중일기' 등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로키' '깊은 밤 깊은 곳에' '스팅' '스파이' 등 많은 외화를 수입했다. 적지 않게 돈도 벌었다고 한다.

영화계의 대부(?)로 통하는 그가 만년에 불서를 만들어 보시하는 일을 두고 영화인들은 '영화에서 번 돈을 전부 불교에 갖다 바친다'고들 말한다고 한다. 그 때마다 한 회장은 '베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서를 보시하는 법보시가 가장 수승한 베품이다'며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72년 아버지의 죽음은 한 회장을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의식 불명의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머리맡에 놓여 있던 팸플릿을 무심코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진아, 그 소리 참 듣기 좋다"며 의식을 차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즐겨 독송하던 〈반야심경〉이었다. 그 후 한 회장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반야심경〉을 읽고 또 읽었다. 목이 쉬어 독송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녹음을 해 아버님에게 〈반야심경〉을 들려드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신촌 봉원사에 위패를 모셨다. 그리고 1년 간 매일 새벽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아버님 위패에만 절을 했는데, 다른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왕 절에 왔으니 부처님한테도 절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절을 했어요. 한두 번 절을 하다 보니 왜 절을 하는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불교공부를 시작했지요."

국내 불교서적뿐만 아니라 영화 일로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불교서적을 구입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번역해가며 읽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첫 책이 〈알기 쉬운 불교〉다. 이 책은 1만여 권이 팔려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수많은 영화를 흥행시켜 몬트리올세계영화제, 아시아영화제, 대종상, 청룡상 등 국내외의 굵직한 상을 휩쓸었던 한 회장. 그는 요즘 '일야현자(一夜賢者)'를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지나간 일을 쫓지 말고 지금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다. 여기에는 영화 등 그동안의 화려했던 삶과 미래에 대한 집착을 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한 회장의 원력이 숨어 있다.

"살아 있는 동안 해야할 일은 집착을 끊는 것, 그 뿐입니다. 이 순간에 방일하지 않고, 공덕도 바라지 않는 삶이 내 생명과 하나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그는 특정한 수행법을 고집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모두 방편일 뿐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베품의 폭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팽배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사이에 베품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부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불교에서는 보시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물론 불자들이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다운 보시는 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때 유명 영화인들이 들락거리던 그의 집은 '법당'이자 '장경각'이다. 2층의 작은 법당에는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방방마다 손때묻은 불서들로 가득하다.

저녁 예불시간이라며 법당으로 향하는 한 회장은 〈아함경〉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일체세간 위에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위에도 아래에도 또 사방에도 원한 없이 자비심만을 베풀어라."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한갑진씨가 펴낸 책들

·〈석존의 직관〉(79) ·〈알기 쉬운 불교〉(80) ·〈불교경전〉(80) ·〈알기 쉬운 불경집〉(81) ·〈알기 쉬운 불교사〉(82) ·〈인도와 불교〉(85) ·〈알기 쉬운 법요집〉(87) ·〈부처님 생애〉(93) ·〈진리의 말씀 감흥의 말씀〉(94) ·〈2500년 전의 비구 비구니의 시〉(95) ·〈저승에 갔다온 사람들〉(95) ·〈우리 어머니처럼 살면 무엇이 두려우랴〉(98) ·〈아함경〉(전4권,00) ·〈새천년을 헤쳐갈 불교〉(00)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우엉찹쌀전병



언기대사의 제자인 환성스님의 설법은 그 이치가 오묘하여 명성이 자자했다. 법회를 여는 곳마다 수천 명의 학인과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환성스님을 칭송하는 대중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 환성스님은 역모를 꾸민다는 누명을 쓰고 제주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7일만에 순교한다.

환성스님이 열반에 들자 한라산이 소리내어 울고 바닷물이 끓어올랐다고 한다. 제주도에 전해지는 전설에는, 세 명의 성인(聖人)이 제주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중의 한 분이 바로 환성스님이었다고 제주 사람들은 믿고 있다.

어지럼증·뇌졸중·고혈압에 좋아

환성스님은 철저한 자연식주의자였다. 어느 때인가 명산 대찰을 만행하다가 며칠을 걸어도 죽 한 그릇을 보시 받지 못하고 저녁 때가 되어 지리산의 어느 절에 도착했는데, 마침 저녁 공양 시간이었다. 욕심이 가득했던 그 절의 주지는 환성스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가 지났다며, 공양을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산수유열매로 시장기를 면하고 잠시 잠을 청한 스님의 꿈속에서 한 도인이 나타나 "어서 이곳을 피하시오"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황급히 그 절을 벗어난 스님이 발밑을 보니 육심 많은 주지가 있던 절이 불타고 있었다.

환성스님은 화엄사에 들러 불에 타죽은 이들을 천도하기 위하여 제사음식을 장만하였는데, 산사람에게도 우엉이 좋지만 죽은 영가들은 우엉을 더 좋아한다며 제사음식에도 우엉을 빼놓지 않으셨다. 우엉은 우방근(牛旁根)이라 해서 모든 고기 중독을 해독하는데 필수 식품으로 이뇨작용과 신진대사의 촉진에도 효능이 있다.

■ 악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우엉 1토막, 찹쌀 1컵, 식용유, 볶은 소금, 꿀(조청)

요리법 ① 우엉은 껍질째 씻어서 곱게 갈고, 즙과 건지를 분리한 후 즙에서 녹말을 가라앉혀 걸러둔다.
②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가루를 낸다.
③ 위의 재료를 소금으로 간을 하고 송편 반죽과 비슷한 강축이 나게 반죽해서, 적당한 크기로 빚어 노릇하게 지진다.
④ 꿀이나 조청을 곁들여 먹는다.

효능 ·당뇨병, 폐결핵, 기침, 폐렴, 위염, 소화제로 쓰인다.
·뇌졸중과 고혈압에 좋다.
·불임증, 생리불순, 중이염, 만성 부종, 어지럼증, 임파선암, 자궁경암, 직장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복단 902


봉황 202

▶ 콩콩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베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패드가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조


101 성글보료

옥스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길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족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숭베개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버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숭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는 별도 소박스 : 3,500원】
서두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단체 주문 환영※ 침대 3대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할인가격 우대!! ☎ 02)424-9427/2203-7821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⑧

智者觀行 與此相反 外忘諸理
지자관행 여차상반 외망제리
內求自心 求心至極 忘理都盡
내구자심 구심지극 망리도진
盡忘所取 取心都滅 所以能得至無
진망소취 취심도멸 소이능득지무
理之至理 畢竟無退 還住無住涅槃
리지지리 필경무퇴 환주무주열반
又復小聖計心 先有生性故
우부소성계심 선유생성고
過微心得心滅無 無智無照 不異空界
과미심득심멸무 무지무조 불리공계
大士解心 本無生性故
대사해심 본무생성고
離細想不得滅無 眞照智在 證會法界
이세상부득멸무 진조지재 증회법계

그러나 지혜 있는 이의 관행은 이와 반대이다. 밖으로 모든 이치를 잊고 안으로 마음을 찾되 찾는 마음이 지극하므로 이치를 다 잊어버리고 취해야 할 대상도 잊어버리므로 취해야 할 마음마저 없어진다. 이때문에 이치 없는 지극한 이치를 얻게 되고 마침내 물러남이 없게 되어 도리어 머무름이 없는 열반에 머물게 된다.

또 소승의 성인은 마음이 있다고 헤아린다. 그래서 먼저 성품(性品)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무 미세한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없어지는 경지에 들어가서 지혜도 없고 비춤도 없어서 허공의 경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보살은 본래 성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세한 생각을 버리지만 마음이 아주 없다는 생각도 없이 참되게 비추는 지혜가 있어 모든 법의 경계를 증득하게 된다.'

如是辨別愚夫與智者 小乘及大乘人
여시변별우부여지자 소승급대승인
觀行得失 不隱微毫 是知若禪若教
관행득실 불은미호 시지약선약교
古今得意觀行之人 皆達自心
고금득의관행지인 개달자심
妄想攀緣 本自無生 智智用中
망상반연 본자무생 지지용중
無有間斷 證會法界 永與愚夫小乘
무유간단 증회법계 영여우부소승
途路且別 豈可不觀自心
도로차별 기가불관자심
不辨眞妄 未積淨業
불변진망 미적정업
而先索神通道力耶
이성색신통도력야

比夫未解乘舟而欲怨其水曲者哉
비부미해승주이욕원기수곡자재

이와 같이 어리석고 지혜로운 이와 소승과 대승의 관행에 대해 그 득실을 분별하여 털끝만큼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선종이나 교종에서 고금을 통해 관행의 의미를 바로 안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을 통달하여 망상과 반연이란 본래 일어난 곳이 없다. 그래서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의 작용이 끊임이 없어서 법계를 증득해 알므로 영원히 어리석은 이와 소승과는 그 길이 다르다. 그런데도 어찌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고 진실과 허망을 분별하지 않아 깨끗한 업을 쌓지 않고 먼저 신통과 도력만을 찾는가. 마치 배를 부릴줄은 모르면서 물굽이를 원망하려는 이와 같구나."

問若約自己眞性 本自圓成
문약약자기진성 본자원성
但任心自在 合他古徹 何須觀照
단임심자재 합타고철 하수관조
而無繩自縛乎
이무승자박호

물었다. "만약 자기의 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자재롭게 자기 마음에 맡겨 두어도 옛 법에 부합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관조함으로써 노끈도 없는데 스스로 결박을 받으려 하는가."

答末法時代 人多乾慧 未免苦輪
답말법시대 인다건혜 미면고륜
運意則承許託假 出語則越分過頭
운의즉승허탁가 출어즉월분과두
智見偏枯 行解不等 近來禪門
지견편고 행해부등 근래선문
汎學輩 多有此病 皆云旣自心本淨
범학배 다유차병 개운기자심본정
不屬有無 何假勞形 妄加行用
불속무유 하가노형 망가행용

대답하다. "말법 시대의 사람은 꾀많은 지혜만 많아서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하며 마음만 내면 곧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받들고 말을 내면 곧 분수를 지나치고, 지견이 모자라고 메마르고, 행과 앎이 같지 않다. 요즘 선문에서 공부하는 자들은 흔히 이런 병이 많아서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유무(有無)에도 속해있지 않는데 왜 몸을 수고롭게 하여 억지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보살은 참되게 비추는 지혜로 모든법의 경계를 증득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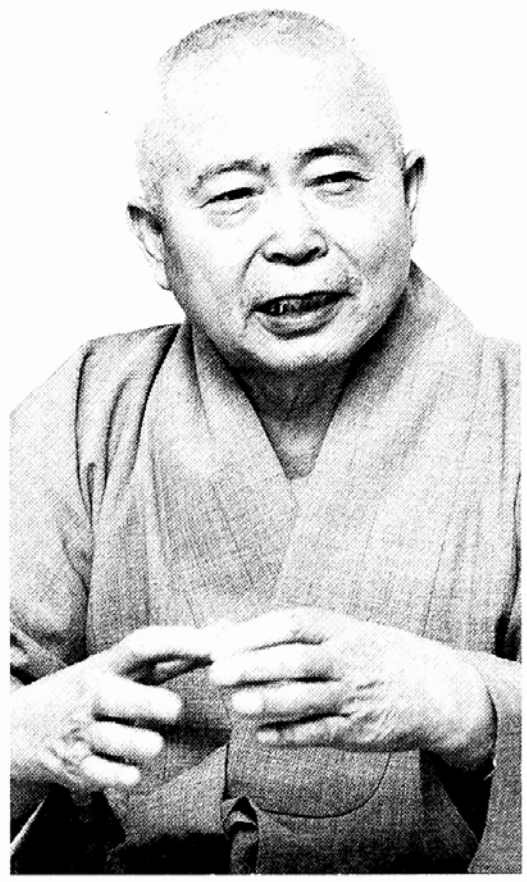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송월스님

해인사 한주

계곡을 휘감은 붉은 단풍, 가을의 끝을 남김없이 보여주듯 더욱 화려한 빛깔에 취해 도착한 해인사. 가을의 나무는 붉은 빛을 더하고 잎을 떨구며 지난 계절의 자취를 지워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바로 지난 봄, 여름의 나무임을 어찌 부정하겠는가. 해인사 우화당에 주석하고 계시는 송월스님께서는 "자연도 지구도 사람도 모두 성주괴공(成住壞空)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법문을 시작하셨다. "생멸을 뛰어 넘어 현재의 삶을 진실 되게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 법의 전부"라고 강조하신 스님은 특히 모든 것은 기본이 바로 서야 순리대로 조화롭게 돌아감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그 기본을 바로 세우는 중심에는 어머니, 즉 여성이 서 있다고 힘주어 역설하셨다.

진실된 삶은? "욕심 버려라"



· 1925년 경남 합천 生
· 45년 해인사 혼해스님 은사로 경성스님을 사미계사로 득도
· 47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역임
· 명봉사, 김용사 등 주지 역임
· 불교전국미술전에서 다수 특선 및 입선. 사군자 서예개인전(9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書竹작품 2점 소장.
작품으로 해인사 청화당·우화당·진영각·경주 기림사 범종각 대구 선본사 극락전 현액등 다수.

—스님께서 평소 즐겨하시는 서화(書畵)도 기본이 탄탄해야 깊은 멋이 우러나는 법이고 나무도 그 뿌리가 튼튼해야 잎과 열매가 번성할 것은 필연입니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은 어떻게 기본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는 모두 진정한 가정의 부재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고 해서 전부 진정한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정안에 따뜻한 사랑과 깊은 신뢰가 밑바탕에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나 아내가 올바른 생각과 사상을 가져 살림을 잘하고, 지혜가 밝아야 그 가정이 옳게 됩니다.

살림을 규모있게 잘하고 지혜가 밝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 하면 사상 확립이 잘 돼 있어 사람이 옳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 관단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심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애정,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가정의 기본이 되는 어머니가 이러한 올바른 사상과 지혜를 갖춘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잘되고, 가정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가정이 잘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확립시켜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둥글둥글하니 잘 어울리고 화합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이 교육도 그렇게 시킬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가정에서 여자, 즉 어머니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책임 막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가지 않나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지요?

▲욕심을 떼어놓고 봐야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바른 잣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와서 밥을 한끼 먹을 때라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다니고 손님들이 먹는 밥상에 가서 버릇없이 해도 요즘 부모들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다들 한 두 명씩만 낳아 기르니 내 자식 귀하다는 생각에 빠져서이고, 기죽이면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지요. 교육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내 자식이라는 욕심이 붙어 있으니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그러면 교육도 안됩니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어릴 때 잘못하는 것은 바로 지적을 해 주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어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버릇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지요.

태어나면 바로 만나게 되는 스승인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 어머니의 역할이 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내 자식, 내 것 이라는 욕심을 떼어버리고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키세요. 가정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모두 남의 책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니 문제지요. 이 세상이 잘 되려면 자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인 부모가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 훌륭한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남편을 누가 도둑놈을 만드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남편이 무조건 많이 벌어오면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거든. 돈이 적느니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은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것이 도둑질이 되기도 하고, 사기도 되고 또 공금 횡령이 되지요.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영향력이 많은 편이 여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방법은 내가 일러주지 않아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글씨를 써줄 때 많이 써 주는 것이 '정관자득(靜觀自得)'입니다. '고요히 생각하면 얻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만가지 생각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만가지 생각들을 자꾸 지워내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심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잘되고 하는 모든 관단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잘 살펴보아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잘 써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짚어 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고리로 연결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 없이 이어지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바로잡아 나가면 좋을까요?

▲진실함을 되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밝아집니다. 진실이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요구되는 기본적인 뿌리거든요. 국민 하나하나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국민 전체가 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옷을 입어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치는 그러한데 실상은 진실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알아도 진실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허허. 그것은 왜냐하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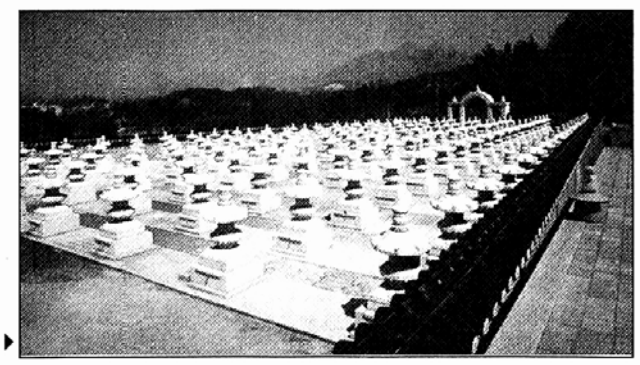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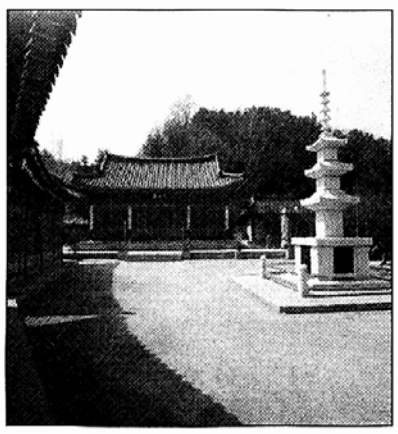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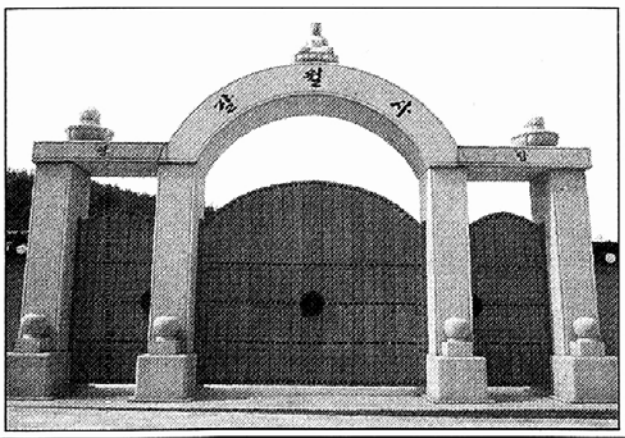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눈에 보이는 잘잘못
> 따지며 허송세월말고
> 인과에 매이지 않는
> 공부 하나씩 하세요

쓸데없는 욕심, 자기 분에 맞지 않는 욕심 말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 남이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허허허. 부처님께서는 히말라야의 산을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든다 해도 한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욕심을 경책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그 욕심은 청정한 본성을 덮어 버리지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몸뚱이 가진 이상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생업을 하게 되죠. 그 생업을 할 때 생각을 잘 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약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염불하거나 기타 다른 공부를 해서 성불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성불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수행을 위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 수행의 방편으로 공무원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또는 누구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니 일상 생활 중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고 또 수행의 방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뚱이 유지하고 부처님 법 공부하는 방편으로 일상을 생각한다면~탐을 속이거나 뺏을 일도 없어지고 저절로 욕심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간혹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정직하게 살다가는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서도 현실이 모두인 줄 알고들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양 알지 말고 인과법을 알아야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는 풀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몇 년 살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인과를 풀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즉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옥을 가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고 인과에 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줄에 꿰어 돌아가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밭을 일구어 먹고사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 키우는데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 부모와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 생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어느날 지나가는 노스님께 울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들어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만드는 왕골을 한 다발 갖다 놔라"하거든요. 그래서 노스님 말씀대로 해놓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또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리번거리다 그 왕골을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아내를 세 번 때렸답니다. 세 번을 때리고 나서는 한숨을 푹 쉬고 더이상 안 때려요. 그 날 이후부터 때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 마부였던 아내가 말이었던 남편을 그 왕골 숫자만큼 때렸던 겁니다. 왕골의 결이 많으니 그 숫자를 모두 되갚고 나니 더 이상 때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인과의 법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잘 잘못을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인과에 매이지 않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부처 이루도록 노력 생활속 작은실천 모이면 가능"

-그러면 인과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모든 원인을 밝혀 알아서 풀어 나가면 가장 근원을 푸는 방법이겠으나 잘 모를 때는 '원수를 친아버지처럼 섬겨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수라면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주어도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을 뺏어 가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 그 원인을 밝혀 알려고 노력하면 원수도 섬길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인과법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의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인과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 남편이나 직장동료나 이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좋게 마음을 못 써서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에서 오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을 알고자 하는 발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어도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앞이 가려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스스로 수행해서 견성오도하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복을 빌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을 비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가족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기도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불제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내 마음을 밝혀 알아 견성오도하겠다는 굳은 발원과 정진, 신심이 뚜렷해야 합니다. 어영 부영 절에 다니며 가족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뭐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해서는 부처님 법 근처에도 못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팔만사천 가지가 있습니다. 팔만사천 법문이 문문가입이라 했어요. 팔만사천 법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곳으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선, 염불, 독경, 절 어느 것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받으면서 욕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법화경〉에 제법종본래(諸法從本來) 상자적멸상(常自寂滅相) 불자행도이(佛子行道已) 내세득작불(來世得作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적멸한 법이어서 불자가 도를 행해 마치면 이 세상에서 부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내세'를 다음생이라고 새기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천년에 다음생을 기약하면서 공부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본래 적멸한 법을 깨우쳐 지금 이 세상에서 열반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도록 발심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속에서 부처를 이루고 극락을 이루도록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충실히 챙겨나가는 노력들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꽃돼지' 스님

산중의 겨울밤은 참으로 길기만 했다. 이른 저녁공양을 마치고 나면 예불 간경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어느새 삼경(밤 아홉시) 종소리가 조용한 산사의 밤하늘을 때렸다. 이제 취침시간이다. 바깥 마을에는 아직 초저녁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겠지만 불꺼진 산중에서는 꽤 밤이 깊은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할 시간이다. 이르게 먹은 저녁공양은 빠듯한 공양 죽비소리에 시간맞춰 먹는지라 배도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화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 전이다. 때문에 지대방에 한해 밤 열 한시까지 주어지는 개인학습 시간에는 낮에 요령껏 꼬불쳐 둔 간식거리를 소매밑에 숨겨 행여 누가 볼새라 책속에 얼굴을 푹 파묻은 채 먹는 맛이란 정말 꿀맛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의 짜릿함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 중 하나다.

간식거리가 풍족하지 않을 때라 거의 매일 이다시피 누룽지가 유일한 간식거리가 되었던 날들의 이야기지만 이것도 동작빠른 스님이라야 챙길 수 있었다. 행자님들의 공양푸는 시간에 맞춰 미리 공양간 한켠에 서서 대기하고 있으면 상행자가 알았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누룽지 한줄을 주걱으로 주욱 갈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주곤 했다. 그걸 개인 관물함에

재치·웃음으로 도반즐겁게

공부는 앞만보고 뚝심정진

숨겨 두었다가 깊은 밤중에 몰래 먹는 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누룽지를 이빨로 부숴 먹으면 그 '오도독' 소리 때문에 혹 상판스님께 들킬까봐 입 속에 소리 없이 뚝 잘라 넣고는 침으로 소리 없이 녹여 먹곤 했다. 급한 마음에 가끔씩 그냥 삼키면 덜 녹은 누룽지가 목에 걸려 따갑고 쓰라림을 감내해야 했었다. 그래도 마냥 좋기만 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 강원한달 수령비가 이만원 이었으니 그 돈으로 책 한두권 사면 남는게 없었던 터라 자연히 공부도 좋지만 먹을 것을 더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도반중에 '꽃돼지'란 별명을 가진 스님이 있었다. 유난히 든든한(?) 몸집에 잘 웃긴다 하여 생겨진 별명이지만 그 덩치를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먹을게 많이 부족하긴 부족했었나 보다. 어느 날 이 스님께서 사시공양 후 식곤증을 못 이겨 졸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졸다 게슴츠레 눈 떠보니 지대방 한가운데 큰 죠리퐁 하나가 보였다. "아니, 죠리퐁?" 이 스님, 누가 채어 갈새라 얼른 집어 입안에 날름 털어 넣었는데 "이게 무슨 맛?" 달콤한 과자맛 대신 입술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간식거리 귀한 때에 방바닥에 죠리퐁이 떨어져 있을리 만무, 그 스님은 죠리퐁과 모양이 비슷한 벌을 삼켰던 것이다.

입술이 퉁퉁부어 올라 만딩고가 된 채 몇날 며칠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이 스님, 도반들이 놀려 대자 "진짜루 내눈에는 죠리퐁으로 보였다니께" 짜증섞인 항변과 유머있는 재치로 그 와중에도 대중스님들을 즐겁게 해 주려 노력하던 스님이었다. D대 사학과를 졸업한 이 스님 웃기는 행동만큼이나 출가사유 또한 대단히 이채롭고 재미난다.

대학졸업 후 친구들과 무전여행을 했었나 보다. 그렇게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 돈 떨어지고 배고프니 환장하겠더란다. 차마 점잖은 체면에 구걸은 못하겠고 머리를 짜내 꾀를 쓴 것이 마침 출가한 친척누님이 가까운 절에 계시더란다. 그래서 그 법당의 보시함을 털기로 작정하고 절에 들렀다가 그길로 내친김에 더 큰 도둑(?)이 되기로 결심하고 삭발출가하였으니, 여하튼 그 괴짜성품은 출가전부터 있었나보다.

이 스님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 도반들이 무심중에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토씨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써먹는다고 해서 '공포의 삼겹살'로도 불리우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그러나 이 스님, 도반들이 선방에 한 두철



살면 그만일 것이라고 놀려댔건만 정말 발심이라도 한건지 강원졸업 후 여태 동안거 하안거 모두 결제 들어가 몇 년 동안이나 여법하게 정진하고 있으니 모두가 부끄러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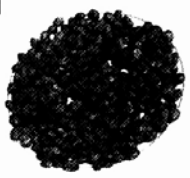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면 항상 천진하고 익살맞은 행동으로 도반들의 여가시간을 즐겁게 해주고 서먹해진 도반관계를 재빠른 재치와 웃음으로 화합하게 할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추호의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정진하고 주변사람들의 사소한 아픔까지도 보이지 않게 챙기며 위무해 줄줄 아는 스님이라는 걸 알게된다. 그래서 도반들 사이에 인기 '짱'이다.

얼마 전 해제철에 여기저기 다닐 곳 많은데 버스나 기차 타면 시간을 너무 뺏긴다고 해제금 털어 거금 오십만원 주고 고물차를 한 대 샀다. 차를 운전할 때도 그 성질 그대로 절대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차는 오직 앞으로 가기 위해 있는 거라며 앞으로만 운전할 줄 아는 스님. 그래선지 자신의 공부도 절대 뒤돌아보거나 방일하는 법이 없다.

우직한 성품으로 오늘도 수행의 숲길을 묵묵히 헤쳐나가고 있을 스님. 올 동안거 해제철에는 진짜 부처의 법을 흡친 큰도둑(?)이 되어 "할"소리 한번 하시길…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정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괴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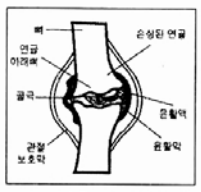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禪武道 겨울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0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 1주일 단기반 : 매주 일요일 입산하여 토요일 오후 하산
  - 장기반 : 수시입산가능
- 대 상 : 초등학교 이상, 일반인 남·녀 (불교 학생회, 신행단체 위탁 연수)
- 시 설 : 선무도 대학 본관이 완공되어 200명 수용이 가능함
- 동참금 : 학생 : (1일 2만원, 1달 45만원)
  대학생 이상 일반(1일 2만5천원, 1달 60만원)
- 준비물 : 운동복, 운동화, 세면도구, 우산, 필기도구
  (라면, 과자, 음료수 등 간식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문의 : (054)744-1689, FAX : 746-0172
  (예약하지 않으면 입산할수 없음)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불교 전통문화와 선무도를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고 도반의 인연을 맺으며 호연지기를 기른다.

선 기공을 수련하여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수 련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봉참시에는 삼천배참회 및 전대중 1일분식)	13시	영어회화(월, 수, 금) 일어회화(화, 목, 토)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 및 등산
6시	조깅	15시	전통무용강습
7시	아침공양(발우공양)	16시	운력(농장가꾸기, 도량정비, 청소)
8시	주변청소 및 방정리	18시	저녁공양
8시 30분	불교교리 강좌	19시	저녁예불과 기도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30분	자율학습 및 참회록 작성(학생) 저녁수련(일반인)
11시	108참회기도(발원문 낭독)	21시 30분	점호 및 취침
12시	점심공양		

※입산 후 개인 외출은 불가하며 술, 담배 간식을 허락되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은 성지 순례와 전통도예 강습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선무도협회 대금강문 선무도대학


◇교계 최초 인터넷 방송국 '한마음 불교방송'.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교인터넷 TV.

BIT…한마음 방송국…에띠엔…대불련…

불교 인터넷 방송시대

천태종·여래사 등도 '준비' …지속관리 '숙제'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계에도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이 하나 둘 늘어나며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 포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영상포교를 위한 인터넷 방송국이 늘어나는 일은 반가운 일이지만, 수적 증가 자체만으로 환영하기보다는 네티즌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생생한 불교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운영중인 교계 인터넷 방송국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컨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TV나 라디오와는 달리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컴퓨터를 통해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계 인터넷 방송국은 불교인터넷 TV(BIT), 에띠엔, 한마음방송국, 대불련 등 총 6개 정도. 이중 지난해 11월 교계에서 첫 인터넷 TV 방송을 시작한 '한마음불교방송(www.hanmaum.org)'은 한국의 명찰, 선법가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네티즌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마음불교방송과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불교인터넷 TV(www.buddhatv.com)'도 7개의 채널에 불교교리, 사이버법당, 불교만화, 다큐멘터리, 음악 등 10대에서 50대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열린종교시민대학과 불교인터넷대학, 무불선원 등 불교교양대학과 연계해 교리 강좌와 학술 세미나 등의 현장 강의를 녹화 중계하고 있다.

이외에 지난 10월21일 개국한 청소년 대상 인터넷 방송국 '에띠엔(asTEN.net)'은 2개의 라디오 채널과 1개의 영상 채널을 개설해 팝송, 대중가요, 인디음악, 테크노 댄스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명상 설법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에띠엔은 개설된지 1달도 채 안됐지만 하루에 3백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포교 전문 인터넷 TV인 '한국불교TV'가 내년 1월 1일 개국할 예정이며, 불교정보센터, 천태종, 일산 여래사 등 불교 단체와 종단, 개별 사찰에서도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내년이면 교계에 10개가 넘는 인터넷 방송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교계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국이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힘든 상태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불련 인터넷 방송국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관리 부실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따라서 이미 방송중인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과 원활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오히려 불자와 일반 시청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인터넷 방송 시청자의 상당수가 10대~20대에 이르는 호기심 많은 젊은층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에띠엔'.

문화소식

국악교성곡 '붓다' 공연

불교음악협회(회장 반영규)는 12월 2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산하 3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발족 기념 창작 국악 교성곡 '붓다'를 공연한다.

박법훈(중앙대) 교수가 곡을 붙인 '붓다'는 지난 1991년 종교음악제에서 초연됐던 것으로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는 생애를 모두 10장으로 구성한 국악교성곡이다. 박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국립관현악단이 반주를 맡고, 불교음악협회 연합합창단, 서울대학교 성악과 남성합창단이 출연한다. 독창으로는 최진숙, 도신스님, 상운스님이 나서고 무용가 채향숙 씨도 특별 출연한다. (02) 904-5763

진주 불교음악 한마당

진주불교회관은 30일 오후 7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교대중화를 위한 제7회 '불교음악 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찬불가를 통한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성악가 시명스님과 정률스님을 비롯 불자가수 김무한, 명국환, 한명숙, 김영임, 머루와 다래 등이 출연한다. 또한 진주불교합창단, 대불련 풍물패 등이 참가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055)747-0108

서울대 불교음악 특강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는 24일 오후 4시 30분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 초청 '불교음악 특강'을 실시한다.

이 강의에서 스님은 '불교음악 범패와 불교무용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선보인다.(02)880-7471

"모양·색깔 생화같아요"

정명스님 법당용 연꽃 조화 개발



불교꽃꽂이를 연구하는 연화플라워회 회장 정명스님(연화사 주지)이 최근 법당 장엄용 연꽃 조화를 개발했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사찰에서 비싼 생화보다는 조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법당과 자연스레 어울리지 못하는데 아쉬움을 느낀 스님이 직접 연꽃 조화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스님은 "그동안 법당을 장엄해 온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된 조화들은 그 형태나 색깔이 일률적이고, 조잡해서 장엄용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2년 가까이 연꽃이 피는 곳을 직접 찾아 그 모양과 빛깔을 일일이 살피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꽃 조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연꽃'이라고 이름지어진 이 연꽃 조화는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모양이나 빛깔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또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에서부터 어른의 키를 넘는 정도의 대형작품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다.

한 송이의 연꽃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꽃잎 마름질에서부터, 염색하기, 꽃술기 다듬기, 연잎, 연밥, 연꽃봉우리붙이기 등 3백번이상의 손길이 직접 닿아야 한다. 스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연꽃 조화 작품 60여점을 12월 6일~12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갤러리에서 전시할 계획이다.(02)388-0108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한빛문화재단 소장품 12월 20일까지 화정박물관 전시

중국미술의 매력 화려함과 다양함

평소 접하기 어려운 중국 미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빛문화재단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화정박물관에서 12월 20일까지 여는 '중국 미술 소장품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도자기, 회화, 불화, 서예, 불교조각, 금속공예, 자수 등 중국 미술의 각 분야를 망라한 유물 18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도자기와 회화류지만 명·청대의 불교미술품들도 눈에 띈다.

특히 물이나 육지에 있는 중생에게 음식을 베푸는 수륙재를 지낼 때 일종의 걸개그림으로 사용했던 17세기 수륙화 7점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야외법회에서 사용하는 괘불보다는 크기가 작은 이 수륙회는 조각그림 맞추기처럼 여러 개의 탱화를 이어 붙일 수 있게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밖에 원대에 활약한 서예가 송렴의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바라밀다심경'을 사경한 서예 작품, 금·청동 불상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 장르의 유물로만 마련된 타전시회에 비해 중국 미술의 여러 분야를 고루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전시회의 매력이다. (02)798-1954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화정박물관서 전시중인 '수륙화'.

멕시코박물관 한국실 개관

대영박물관내 한국실이 지난 8일 개관한데 이어 멕시코에도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유물 전시관이 생긴다.

23일 문을 여는 한국 유물 전시관은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자리잡은 멕시코 문화박물관 2층에 37평 규모로 들어서며,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 7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78호)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씨가 나무로 재현한 목조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붉은 간토기와 빗살무늬토기, 무용총 수렵도, 분청사기 조화연화당초문호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로 꾸몄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은 멕시코 문화박물관은 멕시코 최초의 박물관으로 이집트관, 이탈리아관 등 전세계 23개 나라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고, 한국실이 개관한 2층에는 중국관과 일본관 등 아시아 지역 전시실이 들어서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인데다 마야와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인 멕시코 문화박물관에 한국실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사이버 문화

사찰과 건축

사찰건축의 변화 '한눈에'



사찰에 들어서면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에서부터 화려한 단청,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등 현대건축물과 다른 전통건축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찰과 건축(http://corndi.woosong.ac.kr/samsung/issue/home2.htm) 홈페이지다.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 그 중에서도 전통건축분야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들어 있다.

이곳에서는 지붕·공포·기둥·초석·기단 등 사찰 내 여러 전각들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요소들을 살살이 보여준다. 사찰건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건축양식과 가람배치도가 시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며 변모해 왔는가도 자상하게 설명해 준다.

한국의 사찰 코너에서는 쌍계사·통도사·선운사·개심사·화엄사·부석사 등 건축양식이 뛰어난 사찰을 골라 각 전각과 보유문화재 등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 사찰의 정취를 맡볏 느낄 수 있다.

또 사찰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청에 대한 자료도 많다. 단청의 의미에서부터 특징, 순서, 종류, 갤러리까지 갖추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mahamall mahamall mahamall.co.kr 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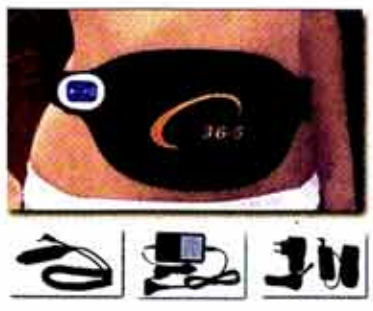
108나한단주



-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玉온열 건강벨트



상품설명 :
玉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피로, 취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밸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필질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야생참 인진쑥 액기스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흠陳고)을 여러 차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지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습관의 영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상품 효능/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 내용량 : 80g ×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양산
- 가 격 : 175,000원(2개월분)

CD 염불시리즈



영인스님 CD 염불 시리즈 20

1. 예불천수경
2. 석가모니불 정근
3. 관세음보살 정근
4. 화엄신중 정근
5. 약사여래불 정근
6. 천수경/아미타경
7. 장엄염불
8. 금강경
9. 장고가락 염불
10. 지장정근
11. 천도타령 염불
12. 회심곡
13. 부모은중경
14. 팔양경
15. 우리말 천수경
16. 지장경(상)
17. 지장경(중)
18. 지장경(하)
19. 신묘장구대다라니
20. 천도제 의식

가격 : 장당 10,000원
다량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수암 만다라 옥침



상품 효과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중풍·침에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태,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색 상 : 연녹색
- 가격 : 30,000원

참선 명상방석



입 반 : 30,000원
옻기반 : 35,000원
황토반 : 35,000원

명상방석을 이런 분들에 권해드립니다.
-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 공부를 하는 학생들
- 하루종일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사무원들
- 막 출산한 임신부 및 노년에 접어든 여성
- 기타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있습니다. Tel : 732-1522·732-1522

"불서, 불자 인생등대"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격이 있는 출판사를 설립해 불교출판 활성화에 초석을 다진 이봉수(68) 씨.

그는 기자의 질문에 앞서 "불교출판은 불법을 바탕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는 불자들이 읽을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며 "한 권의 책도 허투루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제는 기억이 없다며 한 두 마디 던지는 어눌한 말투에서는 수행자의 향기마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청년시절 동학사 강원에서 경봉 스님의 지도로 여러 경전을 공부했다. 이러한 불교공부가 결국 체신 공무원생활을 마감하게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그는 우연히 북한산 승가사 후불탱화 조성불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대가로 받은 18만원으로 미아리에 헌책방 미흥서점을 연 것이 출판인으로서의 첫 걸음이다. 그 후 사세를 넓혀 지난 64년 문을 연 것이 도서출판 보련각이다. 지금까지 영인본, 법요집 등을 제외하고도 약 1천 여 종의 불서를 펴냈다. 이 가운데는 〈선문촬요〉, 〈조선불교사〉, 〈사학대사전〉, 〈불교대사전〉, 〈불교동화시리즈〉(전12권), 〈한국잡지총서〉(전17권) 등 굵직굵직한 출판물들도 많다. 하지만 출판 종수의 많고 적음은 이 씨의 출판 인생에 있어 그리 중요치 않다.



보련각 세워 1천여종 펴내

그는 돈을 벌기보다는 일을 벌이는 것으로 더 유명하다. 〈불교학대사전〉(전7권)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이 사전을 만들 당시 불교학자 20여명이 상주하면서 집필할 정도로 보련각은 불교출판의 중심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과 운영미숙으로 결국 이 사전은 보련각에서 출판되지 못했다. 이처럼 그가 시작하기만 하면 다른 출판사에서 앞다퉈 더 좋게 출판물들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기획은 보련각, 돈벌이는 다른 출판사'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경제적 이득은 다른 곳에서 누렸지요. 이것이 바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자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책, e-book 등 새로운 책들이 전통적인 출판 관행을 한순간에 바꿀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서는 이제야말로 종이책만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제동을 건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출판환경은 변해도 처음 출판을 시작할 때 품었던 마음까지 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불교 출판의 선구자 이봉수 씨의 삶은 불교출판인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책과 삶

불교출판 선구자
이봉수 씨

불교 발원문 "가사문학의 뿌리"

'불교가사 원전연구' 임기중 지음

가사는 고려말에 발생한 이래 조선조에 들어와 크게 융성한 문학 형식으로 시조와 함께 우리 전통 시가의 양대 축을 이루어 왔다. 그 발생 기원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어왔는데, 고려의 경기체가에서 발생했다는 설을 비롯해 시조 발생설, 민요 발생설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말 나옹화상이 지은 〈서왕가〉에서 출발해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까지도 주로 승려들에 의해 창작되어온 불교가사는 지금까지 사대부가사, 평민가사 등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국문학사상의 통설을 뛰어넘어 가사문학 자체가 불교가사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책이 출간됐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임기중 교수가 최근 펴낸 〈불교가사 원전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는 순수 불교가사 108편을 모아 한글원전을 주석한 책이다. 이를 다시 국한 혼용문과 현대문으로 풀이해 본래 가사가 담고 있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임 교수는 이 책에서 가사문학의 한 분야로만 다루어온 불교가사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통설을 뒤집고 오히려 '한국 가사문학의 발생은 불교의 발원문에서 비롯되었으며 불교가사가 한국 가사문학의 효시'임을 증명해 보인다.

고려가요, 경기체가, 민요 등 가사문학이 나오기 이전의 한국 전통 시가는 한 줄이 세 개의 소리마디로 된 3음보였는데 어떻게 4음보의 가사문학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임 교수는 한문으로 된 불교의 발원문을 우리 말과 글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4음보의 가사체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불교의 계송은 4구게가 기본이고, 발원문을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누구나 쉽게 염송하고 기억하도록 하려는 데서 4음보 가사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불교가사, 유교의 가사, 동학가사, 천주가사 등 한국 가사문학의 핵심 축이 종교가사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 또한 불교가사가 한국 가사문학의 효시로 가사문학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음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설명한다.

4구게 등 4음보 효시
"가사체 신라 때부터"
춘원 불교가사 3편 수록

이렇게 볼 때 가사체의 발생시기는 고려말이 아니라 신라의 원효 스님이나 의상스님의 발원문이 나타나는 7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만 한글로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고려말 나옹화상의 〈서왕가〉라는 것이다.



원전표기와 작자, 출전을 근거로 불교가사 작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소득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춘원 이광수의 불교가사 세 편을 찾아내 정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소설 〈원효대사〉에 들어있던 '원효대사 법회송'과 '문', '청정행' 등은 불교가사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층에 의해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본을 낳은 '회심곡'에서 보듯 불교가사의 유통 주체는 일반 대중이었고, 대중적 놀이의 공간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불교가사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는 공감대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원전표기를 바탕으로 '회심곡'을 '환심곡'으로 바로잡는 등 몇몇 작품의 이름을 바로 잡은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이 책의 머리격인 1편의 불교가사에 대한 개관은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불교가사의 변천과정과 주요 작자층, 구성원리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값 6만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다"

빠빠지 면담록 대성스님 옮김



20세기 인도 성자의 한 사람인 빠빠지(1920-1997)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빠빠지 면담록〉(대성스님 옮김, 탐구사)이 나왔다. 빠빠지는 북인도 출신으로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유명한 성자인 라마나 마하르쉬의 수제자 중 한사람. 그는 마하르쉬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가정을 가진 재가자로서 오랜 직업 활동을 했으며, 만년에 럭나우에 거주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폈다.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장의 면담록에서는 '자유'란 말로써 표현되는 깨달음의 원리가 빠빠지와 면담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면담자들은 대부분 서양인으로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 명상을 오래 한 사람과 작가, 의사, 티베트 승려, 청학도, 정신치료사 등이다.

빠빠지는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으며 자유는 어떤 수행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처럼 그의 가르침은 간명하다.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존재가 문제이며 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나는 누구인가'는 탐구에 들어가게 된다. 이 탐구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의 근원으로 뛰어들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인도·중국 불교사 산책

문답으로 풀어보는…

법산스님 옮김



불교학자, 시인, 서예가 등으로 널리 알려진 조박초 전 중국불교협회장이 쓴 〈불교지식문답〉이 〈문답으로 풀어보는 불교입문〉(법산 스님 옮김, 불일)으로 옮겨져 출간됐다.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도·중국의 불교사와 불교교리를 간략히 정리하고, 중국 불교의 종파와 티베트 불교까지 5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 기초교리의 교재로도 활용할 만하다.

글쓴이는 서문에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불교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한 것에 착안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東西문화 접목 '연기'로 풀다

'서양문학에 비친 동양…'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햄릿〉의 불교적 의의는 탐욕과 집착에 근거한 삶은 덧없고 괴로우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속성을 이해하는 데 참 삶의 의미가 있으며, 모든 것은 연기(緣起)하므로 연기의 속성을 알아 연기하는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윤리성이 포함된 지혜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림대 인문학연구소가 펴낸 〈서양문학에 비친 동양의 사상〉에서 성기서(서원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에서 다루어진 복수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부처님의 연기설과 삼법인에 근거해서 풀어낸다.

이 책은 '구도자 톨스토이의 동양사상' '노장의 틀로 읽는 보들레르의 심층수학' 앨리엇의 '네 개의 사중주'와 만다라 등 서양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 동서양 문화의 접목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고 있다.

'니르바나의 시학'편에서 박경일 교수(경희대 영어학부)는 탈근대 담론에 보이는 불교적 패러다임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불교이론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해 영문학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기한다. 또 김인수(강원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불교의 선시와 허무주의의 순수시'편에서 허무주의의 순수시와 공사상이 담긴 선시를 동서양의 여러 작품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중관사상 시야 넓히기

중론연구

박인성 지음



한역 〈중론〉과 산스크리트본 〈중론〉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중론 연구〉(민족사)가 나왔다. 글쓴이는 박인성씨(중앙승가대학교 강사). 그는 한역본만으로는 〈중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론〉이 쓰여지기 전과 후, 즉 아비달마나 대승의 논서(유식)들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 동안 중론 연구는 〈중론〉 자체에만 치우쳤다는 것. 때문에 아비달마학파의 사상과 대승의 사상을 잇는 〈중론〉 각 품의 특성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을 비교하면서 한역 중론의 불완전한 점을 탐구한 '관인연품'을 비롯 '관거래품' '관삼상품'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 원측과 규기의 반야심경 주석을 비교하면서 유식학파의 중관 사상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한역본 〈중론〉에 무게를 싣고 전개되던 기존의 〈중론〉 연구들에서 벗어나 비교문헌연구를 통해 중론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이른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지혜의 나무
3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4	일만송 수행일기	강 옥 구	동쪽나라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아마타불 수행법	청 화	솔 과 학
7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8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9	빠빠지 면담록	데이비드카먼	탐 구 사
10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종로구 권촌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7(代) FAX 733-4279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일천 년 동안 맥을 이어 내려온 26분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겨 놓으신 다선시를 이번에 설선당 무산 스님이 십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는다 하니 참으로 큰 불사(佛事)요 기쁨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종문(宗門)과 세간에 있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기신 다도와 선의 진수인 다시(茶詩)를 한 곳에 모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게 됨은 종문의 대불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찻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연합뉴스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국제신문

"고려의 대각 국사로부터 조선 말기 범해 선사까지"

한국 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272쪽
값15,000원

명상 시선 11

그리운 님에게

한 출가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중생과 부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삶은 사랑과 함께 시작해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이 올 때 사랑의 에너지는 마지막 한판 승부를 겨룬다.
그것은 확 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 섬광은 그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수레바퀴는 다시돌기 시작한다.
시집 전편에 등장하는
'그대님 다화(茶花)'는 진정 누구인가.

그대 님 다화
홍조 띤 수줍음이
노을처럼 타고 있네.
밀회의 시공(時空) 사이
임술마저 타들어간 다화
당신의 숨결 하나로
나 설선
넋을 놓고 천년 살리다.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야
화석으로 굳어진들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다.
그대 님 다화의
눈빛 하나로
마음놓고 만년 살리다.

〈「천만년 함께 가는 님」 전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변형4×6판/96쪽
값5,000원

불국사 다보탑 훼손 심각

"석재 부식 겨울철 결빙 때 파손 우려"

"중앙부 8각 난간서 빗물 침투 가능성"

김수진 교수 주장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국보 제20호)이 중병을 앓고 있다. 석재는 검게 부식되고 있고, 그 강도는 손톱에도 긁힐 정도로 약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11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김수진(사진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 문화재위원) 교수의 다보탑 조사 보고서인 '불국사 다보탑의 훼손현황과 보존대책'에서 밝혀졌다.

김 교수가 10여 개월 동안 현장에서 다보탑의 훼손 실태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석재에 상당량의 수분이 침투해 겨울철 결빙작용으로 파손될 위험에 처해 있고, 석재 표면에서는 화강암 훼손의 주범인 염분과 철분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석재의 접합 부분에서는 이끼와 풀이 자라고, 내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두 차례의 해체 복원 공사로 석재의 접합 부분이 느슨해진 다보탑 중앙부의 8각 난간에서는 탑의 내부에까지 빗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물길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지면부터 8각 난간까지 각 부위를 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표면은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부식되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 표피가 떨어져 나갔다.

김 교수는 "불국사는 동해안과 가까운 곳에 있어 대기 중의 염분 농도가 높은 탓에, 다보탑의 훼손 속도는 다른 곳의 석조물 훼손의 10배에 달한다"며 "종합적인 정밀진단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다보탑의 훼손상태에 대한 정밀한 환경광물학적 진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조물의 훼손은 어디까지나 환경요인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 교수는 "부식이 심한 8각 난간의 빗물 누수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빗물이 8각 난간 부분의 강도나 접합 정도가 약해, 석재 틈을 따라 아래쪽과 내부로 흐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교수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는 방습처리며, 다보탑을 덮고 있는 오염물질과 이끼류 등을 세척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정 유형문화재 가운데 석조문화재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 김 교수는 "비단 다보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석조문화재들이 관리 소홀과 자연적인 풍화로 훼손되고 있다"며 "석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조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부도를 포함한 석탑 36.5%, 마애불을 포함한 석불 26.4%, 비석 22.5% 등이 있다. 이 중 국보의 53.8%, 보물의 42.7%, 중요문화재의 38.9%를 점유하고 있는 석탑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의 8각 난간 부분. 석재의 대부분이 검게 부식되고 있다.

"禪 경제학 생산과 분배 이상적 조화"

홍성민 박사 주장



한 경제학자가 무절제한 소비문화, 이윤만을 좇는 시장경제, 누적되는 빈부격차 등 현대 경제의 난제를 선(禪)의 가르침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화제의 인물은 18일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에서 '선과 경제'를 발표한 홍성민(사진 ·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박사.

홍 박사는 우선 선사상 가운데 공심(空心)과 불교에서 수행의 요체로 삼는 육바라밀에 주목했다. 공심은 결국 종교와 인간 생활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영역에서 즉, 인간 생활 속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 속에서 인간 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이기 때문이다.

홍 박사에 따르면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 · 인욕 · 지계 · 보시 등 4바라밀은 재가의 몫이고, 선정과 지혜는 승가의 몫이다. 홍 박사는 "여기에서 4바라밀은 생산, 유통, 소비, 분배 등 기본 경제활동에 해당되며, 선정과 지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이윤보다는 윤리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선(禪) 경제학'이라고 말했다. 선 경제학이란 부의 축적 자체를 생활 영위의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수단을 선택하고 또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박사는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인 경제 활동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선과 경제는 인간 생활 속에서 출발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야의 지혜에 도달한다는 공통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박사는 "4바라밀 중 현대 경제활동의 분배나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는 보시에서 '불교은행'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교은행은 보시의 재원을 금융화 하는 것인데, 이 재원은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는 윤리적인 동기를 갖춘 투자기법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불교은행을 서민은행으로 이용한다면 빈민구제의 개념을 넘어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의 참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자카트(Zakhat) 은행의 경우, 약 800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무이자은행으로 이슬람교도의 생활 안정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㉘ 기성의 동화사·은해사 편액



◇대구 동화사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 편액.



◇영천 은해사 '극락전' 편액.

봉 황 문

동국진체 특징 드러나

극 락 전

운필 수윤한 해서체

기성 쾌선(箕城 快善 · 1693~1764)은 경상북도 칠곡 출생으로, 13세 되던 해 칠곡 송림사에 들어가 14세에 민식(敏湜)을 스승으로 득도하였으며, 16세에 서귀(西歸)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대조(大照)와 홍제(弘濟)에게서 교학을 배워 25세에 홍제의 법을 이었다. 이후 그는 수년간 각처의 명산과 대찰을 돌며 수행하다가 다시 팔공산으로 돌아가 기기암(寄奇庵)을 짓고 정진하였다. 저술로는 정토신앙의 선(禪)적 수용을 설한 '청택법보은문(請擇法報恩文)'과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등이 있다.

칠곡 송림사에 있는 기성의 비문에 의하면, 그는 글씨에 능해 많은 사찰에 글씨를 남겼고, 준건(遵健)한 서체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현재 사찰의 전각에 걸려 있는 그의 글씨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 〈봉서루〉, 〈팔공산동화사봉황문〉, 영천 은해사 〈극락전〉,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성주 선석사 〈대웅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창원 성주사 〈대웅전〉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대웅전〉 편액은 모두 같은 글씨로, 대구 동화사의 것을 비슷한 시기에 번각한 것이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에 걸린 〈팔공산동화사봉황문〉 편액에는 '갑자춘성(甲子春成)'이라는 관지만 있을 뿐 도서는 없다. 1725년부터 1732년까지 절을 중창하면서 이에 대한 기록을 모아 편찬한 '팔공산동화사사적'에 기성의 서문이 있는데, 이 편액은 팔공산에 머물며 절의 중창에 관여했던 기성이 1744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가로획을 굵고 세로획을 가늘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무겁게 쓰는 동국진체(東國眞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글씨이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편액은 가로 두 개의 폭판을 3개의 거멀못으로 앞에서 고정 하였다. 이 편액 역시 '성상이십이년을축육월일서(聖上二十二年 乙丑六月日書)'라는 관지만이 있는데, 기기암에 머물던 기성이 1745년에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보살전의 편액은 조성 연대가 오랜 것일수록 액판의 전면에 서명하거나 도서를 찍는 예는 드물며, 필요한 경우 그 후면에 묵서나, 음각으로 표시하였다. 편액의 글씨는 결자(結字)가 근정(謹正)하며, 운필(運筆)이 수운(秀潤)한 해서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개성공단 예정지-경의선 주변

先 문화재조사 後 개발"

문화유산 대책협 주장

현대아산(주)이 추진중인 북한 개성산업공단 조성과 관련해 이 일대의 문화재 사전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내 역사 · 고고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역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회학회 등 15개 학회로 구성된 개성지역 문화유산 대책협의회는 10일 '개성 공단 예정지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 방안'을 주제로 학술보고회를 열고, "공단 조성에 앞서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규모는 개성시 판문군 평화리 일대 700만평. 국내 학자들은 "평화리 일대는 고려의 유적은 물론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유적과 조선시대의 유적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진홍섭(前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장) 박사는 "지하에 숨겨져 있는 유구나 유물은 우열을 불문하고 역사 바로 그 자체"라며 "개성의 지하유구에 대한 학술적 발굴조사가 한번도 없었던 만큼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진(숙명여대) 교수는 "개발예정지에서 경종릉, 충혜왕릉 등 왕릉 및 고분군과 홍왕사지, 천수사지, 불임사지, 지귈사지 등 절터는 수많은 유물들이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요 유적지"라고 강조했다.

장호수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의선 철도와 간선 도로망"이라며 "개성나성 안의 동서로 가르고 지나가는 철도와 도로는 개성의 지맥을 자르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따라 외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부처님은 성차별 안했다"

하상의 교수 '불교와 페미니즘'

"남녀와 성속(聖俗)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참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하상의(영산원불교대학) 교수가 11일 불교학연구회의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고, 남성과 여성을 상하로 보는 기성 종단을 비판해 주목된다.

하 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남성중심적 편견은 팔경법, 여인오장설, 부처님 32상설 등에서 비롯됐고, 나아가 불교계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즉 '여성혐오론'까지도 조장했다.

논문에서 "부처님은 성차별주의자인가?"라고 자문한 하 교수는 "최근 들어 젊은 여성불자들이 경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찾아내고 있다"며 "기성 종단에서는 페미니즘과 불교의 조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교단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불교계 스스로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용적 가치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에 따르면 여성 시각에서 경전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테리가다(Therigatha)〉와 같이 여성도 깨달음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초기 경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선전연구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제4차 선전(禪典)연구발표회를 25일 오후 1시 법련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보조의 진심직설은 과연 친저(親著)인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으로 있어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연식(서울대 사학과 강사) 박사가 '보조의 친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김방룡(영산대) 교수가 '보조의 친저임이 분명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전개할 예정이다. (02)733-5315

회당학회 추계학술대회

회당학회는 '21세기 한국불교의 방향'을 주제로 25일 오전 10시 서울 불교문화진흥원 3층 대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혜정 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에는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체성'(이봉춘), '현대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윤원철), '불교계 다종단의 출현과 그 역할'(법현 스님), '진각종 교화이념의 사회성'(경정 정사) 등이 발표된다. (02)913-0753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십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춘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해발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

東에서 온 '하나'의 진법, 온 곳으로 되돌려 주라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⑧

(7)진법 하나(一)의 내력

반야다라는 보리달마를 데리고 청봉산(靑峰山) 기슭의 한 절(寺)로 왔다. '청봉'이란 산 이름은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를 온통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이 절은 독특하게도 본당이 암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비록 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울퉁불퉁한 돌의 생김새에 맞추어 본당을 지은 것이 어떤 기품을 느끼게 했다. 본당 안엔 각이 제법 큰 한 알이 있고 커다란 머리 광배가 붙은 한 그루 노송의 거목로 매달려 있었다. 알 아리는 갖은 생물이 숫자치고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한 줄기 시냇물이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본당 안 한가운데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연 암석 위에 조각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머리 뒤로는 광배가 새겨져 있고 두 발은 상스러운 구름을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바위에 조각된 것이긴 하지만 부처님은 마치 살아 계신 듯 인자함과 자비를 한껏 풍기고 있었다. 부처님을 보는 순간 보리달마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튀어나왔다.

"오늘 여기 온 것은 모두 인연이로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의 탄성에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참 뒤 목욕 재계할 준비를 서두르라고 일렀다.

보리달마는 본당 옆의 정사(精舍)로 들어갔다. 그곳엔 향나무로 만든 통 가득 목욕물이 준비돼 있었다. 그는 옷을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씻었다. 목욕을 마친 다음 몸의 물기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닦아냈다. 환골탈태라도 한 듯 상쾌한 느낌이 은 몸을 휘감았다.

온 것은 모두 인연 소산

보리달마는 회색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올린 다음 본당으로 갔다. 반야다라 조사의 삭발을 받기 위해 새삼스레 마음의 준비를 했다.

조사는 본당의 감실(龕室) 앞에 놓인 방석 위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 합장하고 있었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본당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보리달마는 천천히 걸어가서 감실 위에 놓인 나무망치를 들어올려 세 번 연달아 경을 두드렸다. 이어 반야다라 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조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탁 드리옵니다!"

조사는 그제야 눈을 떴다. 천천히 일어나 손칼을 집어 들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리한 칼이었다. 보리달마 앞에 선 조사는 더부룩하고 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엔 격동이 일어나 억제할 수 없었다. 이 얼마나 오랜 바람이었던가!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승화가 아닌가! 이처럼 경건한 귀의를 이룰 수 있다니…, 한없는 감회가 꼬리를 이었다.

달마의 머리를 쓰다듬던 조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계(戒)를 송(誦)하면서 칼을 놀렸다.

"일체 세속의 생각을 끊어라!"

머리를 밀면서 읊는 조사의 소리에 달마가 복창했다.

"일체 세속의 생각을 끊겠습니다!"

반야다라 조사는 두 번째로 머리를 밀면서 외쳤다.

"일체의 선과(善果)를 닦아 이루어라!"

달리달마도따라서 말했다.

"일체의 선과를 닦아 이루겠습니다!"

조사는 세 번째로 머리를 밀면서 외쳤다.

"일체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라!"

달마도 같은 어조로 말했다.

"일체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습니다!"

반야다라가 손칼을 들이밀 때마다 보리달마의 머리카락은 한 묶음씩 툭 툭 떨어져 나갔다. 순식간에 머리에 계가 갖추어졌다.

반야다라는 달마의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은채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이윽고 눈을 뜬 조사는 눈동자의 촛점을 고정시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 갔다.

"네가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할 이유는 진법을 원래의 곳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너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남쪽은 너와 별로 인연이 없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비록 불교를 숭상하고는 있지만 불교의 참이치는 잘 모른다. 설령 네가 교화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 봉착할 것이다. 그곳에선 절대 오래 머물러서는 안되느니라. 내가 게송 하나를 너에게 들려주겠노라."

소림사 9년면벽 암시

보리달마는 조사의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공손하게 말했다.

"원컨대 조사님의 게송을 듣고자 합니다."

"길을 가고 물을 건너 다시 양을 만나고
홀로 외로이 강을 건너네
두 그루 계수나무 있는 곳 오래오래 정정히
(路行跨水復逢羊, / 獨自孤孤暗渡江.
日下可憐雙桂樹 / 二株嫩桂久昌昌)

이 게송은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갔을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다. 맨마지막 구절의 '두 그루 계수나무'가 있는 곳은 소림(少林)사를 말하고 '오래'를 나타내는 '구(久)'자는 아홉을 뜻하는 구(九)와 상통한다. 따라서 소림사에서 구년면벽으로 창성하게 될 것을 노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송의 첫 구절의 '양(羊)'은 양(梁)나라를 상징한 것이고, 다음 구절의 '외로이 강을 건너가는' 대목은 양 나라 무제(武帝)와 헤어져서 양자강을 건너가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의 코끼리와 말은 각각 양 나라와 위(魏) 나라의 임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송을 들은 보리달마는 반야다라에게 물었다.

"자꾸 여쭙게 됨을 용서하십시오. 다음엔 무슨 일이 있겠는지요?"

반야다라가 대답했다.

"내가 죽은 뒤로 105년이 지나면 작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난리를 말씀하시는지요?"

"나의 게송을 듣거라!"

반야다라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읊조렸다.

"마음 속은 길하건만 머리 밖은 흉하고
시냇물 아래 승방은 이름에 걸맞지 않네
독룡을 만나 무자를 낳고
홀연히 생쥐 만나니 오래도록 적막하리"
(心中雖吉外頭凶 / 川下僧房名不中
爲遇毒龍生武子 / 忽逢小鼠寂無窮)

보리달마는 몸을 굽혀서 읍을 하고 또 물었다.

"다시 그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반야다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이후에 너는 총림(叢林)에서 한 사람을 만나 도과(道果)를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게송 하나가 더 있느니라!"



◇범주스님의 달마도(중이에 수묵, 1992년作, 범주스님 소장).

길(道)을 닮은 정법 계승
인생은 비록 찰나지만
길은 다함없이 계속될지니…

불법을 구하려면 우선적으로 세속에 물든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아가 잡념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신을 닦아 정과(正果)를 이룰 수 있는 법이다.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에게 삭발을 받고 가사를 걸치게 됨으로써 형식적이긴 하지만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제 보리달마는 정식으로 불조 27대의 법통을 이어받은 28대조가 된 것이다.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지향해야 할 길을 물었다.

"조사님! 제가 이미 하나(一)의 진법을 받았거늘 마땅히 어디에 가서 불사를 행해야 좋을런지요?"

반야다라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보리달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一)의 진법은 본시 동쪽 땅에서 전래한 것이니라. 그 법을 마땅히 동쪽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이곳 남천(南天)에서 교화를 행하도록 하라. 그러다가 내가 죽은 뒤 67년이 지난 다음 동쪽 땅으로 가서 진법을 전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너의 본분임을 잊지 말거라!"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의 인과(因果)를 꿰뚫어 내리는 교시(敎示)에 새삼 감복했다.

"조사님, 듣자옵건데 동쪽 땅에도 고승대덕들이 많다고 하던데…, 제가 그곳으로 가야만 할 어떤 인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는 정법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절감했다. 짚신을 신고 운수행각(雲水行脚)하며 보리를 증험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불문의 계율과 선법을 널리 펼침으로써 세간의 도탄에 빠진 생령들의 죄악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가련한 중생들의 심령(心靈)을 밝혀주리라고 다짐했다.

불경에 파묻혀서 그리고 종소리와 경소리를 들으며 사는 완벽한 승려의 생활이 시작됐다. 이로부터 보리달마는 조사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었다. 어언 40년의 세

"그저 가르쳐 주시기만 바랄 뿐이옵니다!"

반야다라는 다시 낭송을 시작했다.

"동쪽 땅 비록 넓으나 벌다른 길 없구나
자손의 힘 빌려 걸어 나아가야 할지니
금계가 물어온 조 한 알로
사방의 나한과 승려를 공양하네"
(震旦雖闊無別路 / 要假兒孫脚下行
金鷄解御一粒粟 / 供養四方羅漢僧)

중생의 마음길 밝히리

게송을 끝마치자 반야다라는 불자를 한 번 털고는 본당 밖으로 훌쩍 나갔다.

보리달마는 조사의 현묘한 말씀과 이치에 새삼 감동했다. 자기도 모르게 찬탄의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는 반야다라가 불교의 융성과 침체를 예견하고 읊은 세 가지 게송의 속뜻을 깊이 되새겼다.

맡기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것과 같다. 인생은 비록 잠시 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니 함없이 무궁한 것이니라."

보리달마는 조사가 열반에 증험하시려는 것을 알았다. 장하고 엎드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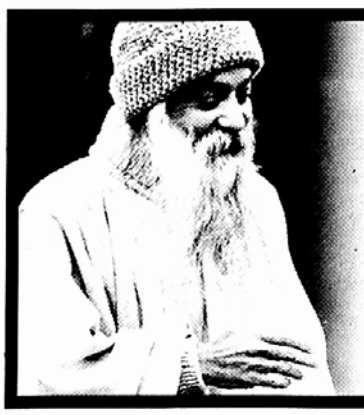
"제자는 삼가 조사님의 가르 나이다."

"그래, 그래."

반야다라는 얼굴 가득히 웃 리고 게송을 읊기 시작했다.

"마음 속에 여러 씨앗이 생 이로 인하여 다시 이치가 생 정과를 이루면 보리도 원만 꽃피는 아름다운 세계 열리
(心地生諸種 / 因事復生理
果滿菩提圓 / 華開世界起)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때 우주가 열린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 변화만이 영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

인터넷 불교대학 '인기 솔솔'

안방에서 클릭하나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불교 교양 대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부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요즘 더욱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불교 교양대학은 컴퓨터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유명 스님들의 설법 및 강의를 언제나 들을 수 있기에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무불선원大 등 5곳 개설
안방서 교리·경전 공부
고승법문 동영상 서비스

현재 개설돼 있는 인터넷 불교 대학은 '인터넷 불교대학', '아이 엠 넷' '무불선원대학원' 등 5개 정도다. 이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은 '인터넷 불교대학(www.buddhistweb.com)'. 이 사이트는 일반인들도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까지 제공하고 있어 5월 2일 문을 연지 6개월만에 매주 한 강좌당 7백명이상이 이용하는 등 인터넷 불교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인터넷 불교대학'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원격강의 교육시스템을 드입, 동영상으로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좌측에 강의노트가 작동돼 입체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주요인이다. 또 '불교교리 강좌' '불교원전 강독' '이주의 설법' '불교쟁점 100문100답'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와 최봉수 교수(前동국대 사회교육원)를 비롯해 혜거스님(금강선원장),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등 선지식들이 강사진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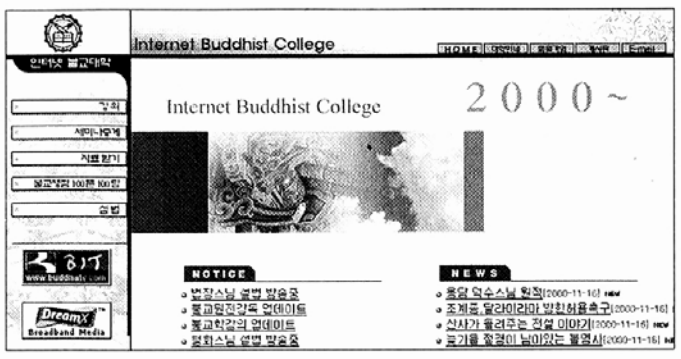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 대학'을 이용하고 있는 김순임 보살(40)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매월 2회 하고 있는 다보법회나 강좌를 듣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몇달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법문을 들으니 마치 법당에서 듣는 것과 같아 좋다"며 자랑을 늘어 놓았다.

무불선원도 최근 인터넷 불교대학인 '무불선원대학원(www.moobool.com)'을 개설하고 인터넷 온라인 불교 강좌 시대를 열었다. 유일하게 한 강좌 당 1천원씩 유료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무불…' 역시 현각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해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강건기 교수(전북불교대 학장) 등의 유명 강사진의 강의가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요약식 강의 노트도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종교 전문 사이트인 '아이 엠 넷(www.imn.net)'도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모임 회주), 숭산스님(화계사 조실) 등 선지식들의 설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또 '불교탐구'란 코너를 개설해 불교 기초교리는 물론 〈금강경〉 〈반야심경〉 등 경전 해설과 달라이라마, 틱낙한 스님 등 외국 선지식들의 법문을 수록해 놓아 언제든지 동영상과 풍부한 자료를 통해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꾸며 놓았다.

이외에도 대구 영남불교대학(www.cyberbuddha.or.kr)도 인터넷 불교 대학을 개설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를 하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 인터넷대학에서는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나눠 불교교리 기초 경전강의가 진행된다.

인터넷 불교대학 최봉수 학장은 "다양한 컨텐츠와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 불교대학도 성공할 수 있다"며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특히 안방에서도 편안히 교리 공부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네티즌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 불교대학'의 동영상 화면.

주부 신행담

기도하며 사는 삶 (上)

남편이 세상뜨자 눈앞이 캄캄

"예수쟁이는 싫다 그러니 성당에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 몇 번의 충돌 끝에 내려진 남편의 엄명이었다.

맏형수가 교회에 다니면서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지 않아 집안 내부에서 분란이 끊이질 않자 그 과정을 지켜본 남편이 당시 성당에 나가던 나에게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우리집에서 3㎞ 떨어진 성당엘 다녔다. 어른도 다니기 힘든 이른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사를 다니던 나에게 온 동네 어른들이 겁도 없는 '특별한 아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신심이 깊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천주교에 대한 종교적 신앙심보다는 하얀 나비같은 모자를 쓰고 계신 수녀님의 고결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성당엘 다녔던 것 같다. 하얀 피부에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수녀님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다.

20대 초반 여군생활을 할때도 군성당엘 나가 열심히 기도하며 어릴적부터 꿈꾸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적도 있었다. 특히 1971년 2군 사령부에 근무하며 성당일을 맡아 할때 한 사건으로 수녀가 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로 성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성당에서 가끔씩 마주치며 안면이 있던 장교 한분이 월남전에 투입돼 백마부대로 파월되니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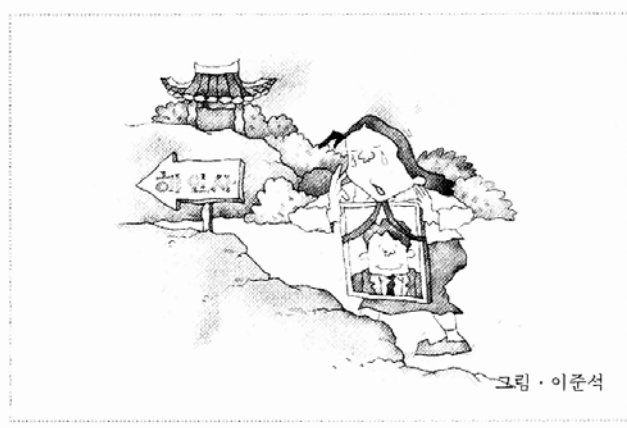
월남전 막바지에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으로 떠나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부탁이라 휴가때를 제외하고는 성당에서 매일 기도를 올려 주었다. 내 기도가 먼 남쪽 나라로 전해졌음인가. 그 장교는 1년뒤 살아 돌아 왔고, 성당을 방문해 그것이 모두 나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마워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평생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졌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자연스레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전생에 불가와 지중한 인연이 있었음인가, 우여곡절 끝에 15년전 대구에서 지금의 해인사 앞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이사와서 몇 개월이 지났을까 목욕을 다녀온 남편이 아주 흐뭇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오늘 정말 부처님같은 분을 만났다고 감격해 하는 것이었다. 대체 어떤분이길래 생전 남의 칭찬이라고는 잘 안하는 남편이 저렇게 감동할까 나도 따라 무척 궁금해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부처님 같다는 그 분은 해인사 길상암 명진 스님이었다. 스님이 암자에서 키우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을 목욕탕에 데리고와 한 명씩 정성껏 씻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한 것이다.

평범한 가정 주부의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도 인생의 큰 고비가 왔다. 절대적인 기둥이었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변해 버렸다. 눈앞이 캄캄했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다. 한동안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다. 〈계속〉

전혜진〈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그림 · 이준석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⑥

■ 손톱과 건강

손톱을 뼈의 연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피부의 일부다. 반달 모양의 뿌리 부분이 손톱을 만드는 조직인 것이다.

손의 빛깔처럼 손톱의 상태나 빛깔도 신체의 상태를 미묘하게 반영한다. 예컨대 손톱의 반달이 깊숙히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좋다.



손에 대한 건강 서적에서 말하는 손톱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난히 길이가 긴 손톱을 가진 사람은 호흡기 계통이나 혀의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짧은 사람은 하반신이 약하기 쉽다. 그리고 지나치게 신경이 과민하므로 의식적으로 느긋해질 필요가 있겠다. △가로로 골이 있는 손톱은 4개월에서 1년 사이의 병력을 나타낸다. 손톱이 빠졌다 다시 나는 시간은 연령에 따라 짧게는 4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린다. △세로로 골이 있는 손톱은 정신적인 피로를 드러낸다. △잘 부러지는 손톱은 빈혈이나 내분비선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무른 손톱은 칼슘 부족과 체력 저하가 주원인이다.

긴손톱 호흡기 질환 주의

무른손톱 칼슘 체력부족 탓

△반짝거리는 손톱은 갑상선의 기능의 항진을 나타낸다. △새파란 손톱은 빈혈이나 순환계의 상태가 아주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검붉은 손톱은 울혈이 있거나 심장이나 폐 등 순환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다. △누런 손톱은 뼈의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현대 의학의 진단 능력이 눈부시긴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가끔씩은 자신의 손톱을 들여다 볼 일이다.

불교 청소년문학상 수상자

(시) 김두연 (희곡) 김미란 (수필) 장지성

아동문학상 김진식 교수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는 4일 '제 6회 한국불교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와 '제 18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 부문에 '가을 숲길'을 지은 김두연군(서울 중경고교 3년), 희곡부문에 '풍경소리'를 주제로 쓴 김미란양(서울 정신여중 3년), 수필부문에 '연꽃인연'을 쓴 장지성군(충북 청주고교 1년)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6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개월간 현상 공모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희곡, 봉사활동 수기 등 7개 부문에서 1천7백여편이 응모됐다.

불교아동문학상에는 23년간 불교 동요와 동시 창작에 전념해 온 김진식 교수(경기대 국어국문학과)가 선정됐다. 특히 김진식 교수는 '관세음의 피리' '고요를 기다리며' '원두막' 등 220여편의 불교 동시를 발표하며 어린이 문학 포교에 공헌 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불교 글짓기 대회도 열어 전국 초등학교에서 응모한 4만여편 중에서 우수작 70편을 심사해 시상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한글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02)425-3902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광주대불청 문화예술제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는 12월 3일 오후 5시 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부다가야 청년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김태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청년불자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행사에서는 각 사찰에서 준비한 허슬춤을 비롯해 고전무용과 성악, 합창곡 연주, 사물놀이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백양사 합창단과 광주 시립국악단이 찬조 출연해 불교 음악과 국악 등을 연주한다. (062)225-3570

디지털상담실 자원봉사

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은 26일 혜능보육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날 봉사에서는 보육원 실내 청소 및 세탁, 레크리에이션, 체육활동 등이 펼쳐진다. (043)259-5711

명성여고 효도잔치

종립학교 명성여고는 18일 구내 학교식당에서 학부모 및 지역노인 1백명을 초청해 '경로효도 잔치'를 열었다. 지난달 먹거리 및 알뜰 장터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 어머니회 '수심회'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또 식사후에는 노래자랑 등 흥겨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진짜로 믿고 놓는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자리를 할 때도 언제나 이 날 저 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만, 부처님 진리로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천차만별로 모두 정해 놓고 질서를 지키고 가야만 옳은 것이니까 벌써 2000년이라는 것이 지나고 1년이라는 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2000년이라는, 1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양력으로는 그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양력 음력이 없이, 이끌어 가는 길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또 1년이라는 해를 만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말입니다. 나라에서 모두 야단들을 그렇게 하니까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대신 마음을 내 주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한 생각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게 살 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녕코 제각기 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가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합니다만, 그래서 인간이 살아 나가려면 공생이어야 하고, 몸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이어야 하고 몸 한 체의 움죽거림을 봐도 공심이어야 하고 공용이어야 하죠. 그리고 공체고 공식입니다. 그렇게 인간 모두가 더불어 살아 나가는 현실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때는 100번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땐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리를 말을 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을 텐데 모두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고 차원에 따라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구리는 구리하고 첨부가 되고 금은 금하고 첨부가 따라서는 공용이라고 그러죠. 공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체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알기 쉽게 누구나가 다 알게끔 공식이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몸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으로 산다는 걸 아시죠. 공용으로 산다는 것도 아시고, 공심으로 천차만별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거를 하나로 공식으로 뭉쳐서 우리가 여여하게 해나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인간 사는게 모두 공생

그런데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번 왔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넉넉히 가는 분도 있고, 이해가 더 가서 아주 여여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여하게 하고 알고 가고 보고 이러는 것이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하나



그림 · 최주현

뿐만 아니라 일이 생겼다한다면 오늘 아침에 비가 왔다고 하듯이 일이 거론이 됐을 때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내 마음이 공심으로 살고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살고 공체로서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기면 그대로 일체 모두가 속속들이 다 연락처가 되는 거고 다 공심으로 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습게 듣지 마세요. 우습게 알지 마시고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껍데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처를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면처가 아니라면 일체 부처님도 상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잠자 줄 수도 없고, 먹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생각으로 인해서 내부나 외부나 다 살고 또 여러분이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데에서 남이 섭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하는 버릇을 하면 그렇게 습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 보지 않던 분들은 당장은 죽어도 그렇게 안되죠. 화가 벌컥 벌컥 나는데 웃어야 할 일이, 웃어야 할 일이 생기면 금방 변해서 화난 거는 다 없애버리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생각해 주고 부드럽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다 보면 금방 아빠가 되고, 금방 형이 되고, 금방 남편이 되고, 금방 아들이 되면서 여여하게 해 나가고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걸림이 없이 말입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맡길데 있어 살기 편해

연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 하는 데에 있습니다. 크고 작고가 없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나가는 대로 늘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지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도 말 한마디가 왔다 하면은 그새 알았어 하는 건 뭐냐. 모든 걸 다 전폐하고, 모든 건 사람의 생각대로이지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요, 모두가. 그런데 자기 마음이 더럽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자기 앞발을 한발 한발 떼어놓을 수가 없이 그냥 너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는 보이지 않아도 불이 켜지는 거와 꺼지는 거는 보이죠.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켜지고 꺼지는 거는 알고 그걸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못 보고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력이 나고 드는 것을 못본다고 안나온다 할 수는 없죠. 그렇듯이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건 마음이 알았다고 할 때 벌써 미국이고 어디고 다 챙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한국이라고 해도 가깝거나 멀고가 없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래도 멀고 가깝고가 없어요. 요 문지방 너머나 마찬가지예요. 더 멀고 더 가깝고가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주장자를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로 믿어져야 편안하게 다 도량이 풀어지죠.

나는 여러분을 웃기는 재주가 없나봐요. 오전에 법사스님은 여러분을 웃기고 그러시던데, 나는 여러분을 웃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저 스스로 웃고 스스로서 얼굴을 펴세요. 간판이나 한가지예요. 마음이 우그러들면 벌써 몸도 얼굴도 우그러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마음을 우그러뜨리면 모든 식구가 아주 힘들고 죽고만 싶다고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우그러지죠. 그러니까 얼굴도 우그러져요. 아버지가 왜 또 저렇게 화가 나셨나? 왜 저이가 저런가? 하고 식구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편안치 않죠. 식구 수대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므스하게 편안하게 거기다 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데가 있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맡길 데가 없다면 정말 편안치 않겠죠. 맡길 데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편안하다. 그런데 맡기기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산다 하는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요. 생각대로이니까 생각을 옹졸하게 하지 마시고 펼쳐서 편안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마음이 여지껏 그렇게만 보고 살아와서 넓은 세계를 모르고 편안한 세계를 모르고 편안한 일을 모르니까 크게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이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좁히고 우리나라, 나라가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대로 위하고 또 종교가 다르니까 모두들 맡아 가지고 있겠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사람만이 맡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밉다 하면은 그 사람 미운 거 하나 가지고 온 나라를 다 그르쳐 놓는 거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웃음도 나오고 남에게도 좋게 말을 해 줄 수 있고 좋게 이끌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남을 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나간다고 뭐 그렇게 될까 하겠지만,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애쓰지는 않으셨죠. 그쯤만 되면 편안한 거죠 뭐. 조그맣든지 크든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조그만 걸 가지고도 몸이 불안하고 편치 않아서 온통 이를 사흘이 가도록 엉클어지게 되고 오래 가면 병이 되고 그런 거죠 뭐. 혈관이 막히고 피가 제대로 돌질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분들은 모두가 자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일체로, 지금 현실로만이 다 갈 수가 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에 미래도 있는 거고 과거도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생각대로 모든 거를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본은 세세생생 영원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누진을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이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면서 모든 것을 거기다 놓는다면, 입력이 되어 있는 거기다 다시 놓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이 되어서 현실에 그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업이 많은가 하는 것도 다 무효죠.

모든 건 생각대로 이루어지니 스스로 웃고 스스로 펴고 살라

엊그저께도 과거인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업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지금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먹는 사이가 없이 먹고, 사는 사이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껍질을 이끌어 가면서 상대성으로서 모두 더불어 같이 봐야만 다 잡히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물질로서 그렇게 봐야만 사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차라면 끌고 다니는 속의 운전수가 더러우면 닦고, 망가지면 고치고 또 다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생각에 그렇게, 미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요 한 발짝 너머가 미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중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다른 혹성이 되고, 은하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전부 뜻으로, 진리의 뜻으로서 혼합이 되니까 여기서 물질로 살던 분들이 가면 그게 맞지 않아서 누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걸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데 참 편안하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편안하다. 지금 금방 죽을 일이 생겨도 네가 한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너밖에 할 놈이 없으니까 고치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야 하고 그 자리에 맡기세요.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마음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여기서 하는 줄은 아는데 거기서 응답이 오는 분들은, 무슨 꿈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시에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놓으세요. 부처님은 항상 일대사의 인연을 둘 아니게 다 치우셨다 했으니 둘이 아니다. 모든 생물도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꿈에 어떠한 게 나와도 말을 안 하더라도 없어져요.

이 모두가 현실로서, 우리가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건 이 마음입니다. 그

☞ 20면으로 계속

금방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듯 여여하게 걸림없이 사세요

되고 무쇠는 무쇠하고 첨부가 되고 철은 철하고 첨부가 되어서 제각기 천차만별로 끼리끼리 만나서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본은 한 군데서 다지만 갈래갈래 차원대로 끼리끼리 뭉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보신다면 다 아시겠죠. 왜 이런 말을 또 하느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곱게 가느냐, 좀 거북하게 가느냐, 아주 거북하게 가느냐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로 죽고 불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말해서, 말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깐 비가 부슬부슬 오더군요. 그런데 퍼뜩 어느 스님이 오늘 비가 오는데요,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니, 그러니까 저도 비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 지금 오고 지금 보고 지금 듣는 것도 모자라지 않아. 이 마음은 한 찰나에 전 우주를 도니까 말이야. 그리고 따로따로 용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분별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 그래서 때에 따라서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진실을 실천해 나가죠. 그래서 가정에서 바쁜 분들은 여유롭고 지혜가, 여유가 없는 분들은 가정에 있는 일들을 해하고, 마음내는 게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벌써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옳다 하게 되고, 그게 법이지만 그러나 공법은 못돼요. 내가 같이 살아 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말을 어떻게 해야만 옳겠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삼 분단으로 나누어서 말할 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대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한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소꿉장난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은 다 헤어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아주 모르는 분들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그저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거를 놓고 편안하게 사세요. 거기다 놓지 않으면, 자기 기둥 주장자에 놓지 않고는 안되는 거니깐요.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통신처가 거기이니까요.

그래서 놓고 가되 만약에 우리 한국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삼라만상 통신처는 자기 주인공 뿐

☞ 19면에서 계속

래서 마음이라는 건 껍질, 모습은 다 망가져서 벗지만 자기의 모습 아닌 내면의 근본은 세세생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사는 거죠. 모습을 진화시켜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편리한가, 또 때에 따라서 사람모습으로, 움죽거리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고달프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딴 게 뭐 있나 하고 좀 보고요.

이런 게 있죠, 도깨비가 말입니다. 비유해서 지금 얘깁니다. 도깨비 장난하는 건 봤어도 보살들의 행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도깨비는 금방 여길 뛰어와서 다 보고 또 딴데로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보살은 없어지는 것보다도 개구리를 진화시키는 마음을 줄려면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초에 모습이 가고 오고 전부 그 마음이 진화를 해서 다른 걸로 모습을 가져나오고 하죠. 그런데 억수같은 모든 마음의 장난이라고 할까, 마음으로서 도량을 이끌어 가는 문제들, 내 몸을 적은 도량이라 해도 됩니다. 큰 도량 적은 도량, 도량도 여러 가지 많은 도량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돌아 갈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면 이 도리를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도리를 진짜로….

일체만법 한곳서 나와

어떤 분들에게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데 왜 못 믿느냐고요. 나를 믿으라면 못 믿고 또 부처님을 믿으라면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데 왜 못 믿느냐고 합니다. 왜 좀 있는 집에서는 잘 차려 놓고 식구가 다 모여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없는 집에서는 밥 한 바가지 김치 한바가지 갖다 놓고 숟갈 몇 개 꽂아서 여러 식구가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오손도손 웃고 장난도 치고 합니까?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정, 뗄 수 없는 이치, 예를 들어서 이 종자는 이 종자대로 저 종자는 저 종자대로 문제를 가지가지 수를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 거를 어떻게 세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승려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켜라 지켜라 하지만 계율이 한 두건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지킵니까? 그러나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 다면 지킬 것도 없고 안 지킬 것도 없죠. 지킨다는 말이 거기에 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지식만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죠. 선지식이 아니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얼른 쉽게 말해서 2000년은 가고 새해가 닥쳐왔다 한다면 1년에 속하니까 2000년은 벌써 없어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과거는 돌아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걸음을 걸어봐도 알겠죠. 그래서 현실의 걸음 걷는데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장자를 진짜로 믿을 수만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모두 못 믿어서 걱정이죠. 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 근본을,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이니까 자기를 부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는 자(子)라고 하는데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항상 같이 돌아가는데 왜 자기를 못 믿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딴데다 놓고 빌고 찾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영이 들려서 온통 애쓰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주인공에 한데 합쳐 넣으면 됩니다. 영에다가 영을 만개를 갖다 넣은들 그냥 영입니다. 흡수시키고 모든 거를 해결하고 풀고 하는 원인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것 참 이런 도리를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는 이 공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산에도 거지가 다니느냐고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허허, 그러기도 했지만 하여튼 자기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부로 하나가 되고 생각을 했다 하면 자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깐 이리로 가도 하나고 저리로 가도 하나고, 하나도 없죠 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개별적으로 우리 하나 하나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이 되기 전에 모두 생물들이 생겨서 잡아먹고 무섭게 살다가 그게 없어지고 진화가 돼서 사람까지 올라와서 할만하니까, 사람이 진화를 해서 참 진짜로 부처님같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세생생을 두고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고 모습은 없지만,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응신이 돼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에요. 다른 게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입니다. 마음은 한 군데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살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손이 천이라고 했는데 천이라는 게 숫자를 두고 말한 게 아니죠. 천은 숫자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발도 천, 눈도 천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인간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명체들이 전부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먹고 살 수도 없죠. 지수화풍으로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또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귀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뭘 똑똑하다고 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똑똑하다고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이 없고요, 안 똑똑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묵묵히 살 뿐이죠.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걸어가다가 쓰러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 좀 일으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쓰러트린 게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구녁없는 구녁, 문없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아닌 나 내가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 모습이 전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잘났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종문서를 면치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종이 안 될려면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면은 주인도 아니다. 그냥 자유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가만 있으면 父로 생각내면 子로 '하나'

일체만법 나 아닌 내가 함이 없이 하죠

주장자 있어야 주는 법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무조건 좋게 해서 진짜로 믿거든 닥치는 대로 편리하게 거기 놓고 또 참 자기를 믿으세요. 믿어야 그걸 믿는다 안 믿는 다도 없이 그냥 놓게 되죠.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다 안 믿는 다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발에 밟히는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거든지 풀어서 순간 다 하는 거니까요.

어떤 분이 다 망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여길 왔는데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냥 무조건, 즉했으니까 그냥 믿고 공부하다 보니까 일이 그냥 슬슬 풀리더니 거반 다 풀렸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죽겠으니까 틀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수술 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병은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면은 도리어 고생만 진탕하고 식구들 고생만 시키고 굶어 죽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것을 왜 생각들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원통해서요. 죽는 것을 원통해 하지말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난 여태 그냥 죽을 복도 없나봐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몹쓸 병을 가지고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이것 떼어 내고 저것 떼어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쪽은 낫는데 다른 쪽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수술을 해서 나았는데 또 해야 되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 3자는 얘길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땐 돈도 없이 너무 딱한 분들은 댁의 마음에 달렸으니까 죽는 거 이렇게도 한번, 저렇게도 한번,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사는 거 뭐 그렇게, 지금 즉어도 즉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면 어떤 땐 병원에 안가고 그냥 살다보니깐 살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아니라 더한 분이 계셔도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즉을 사람이 있고, 고생을 안 하고 즉을 사람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 돌아가시게 됐는데 3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고 온 방에 똥을 뭉갠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산 사람도 견딜 수가 있나요? 또 우리 애가 뼈가 없이 드러누워서 살면서 열아홉 살이 됐는데 부모가 늙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럭하다 보니깐 가난은 뭐 말도 못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정말 공짜죠. 요담에 공부 잘해라 하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공짜로 줄려고 그래도 공짜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에너지를 요만큼 가지고 이만큼 나오는 걸 만드는 과학자들 있죠. 그런 거와 같애요. 부처님 법을 진짜로 진실하게만 믿고 공부한다면 정말 그렇게 자기 살길을 개척해서 요만큼 밖에 없는 것을 이만큼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어느 부처님이 응하시다 어느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릴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쌀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있어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남도 주고 내가 먹으면서 거침없고 걸림없이 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근본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타인을 믿고 타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타신이나 타인을 믿으란 말을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다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못난 자기의 주장자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장자가 있어야 일체제불도 다 그 주장자를, 주장자 있는 사람에게 주지 주장자가 없는 사람에게 주장자를 주질 않아요. 전에 임제스님이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수 없다고요.

빛보다도 더 빠른 마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노릇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심으로 정말 여기서 걸어나올 때에 둘 아니게 잡숫고 피를 만들고 이 세상의 에너지를 다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일체에다 모두 합장을 하고요.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전체 한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없으면 그것도 없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본이 있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상대성이 모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면 나도 편안하겠지만 내 하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세생생 여러분이 진화하는데 걱정이 없을 거고,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벌써 보이지 않는데서 다 돌아요. 온기가 돌 듯이, 김이 들 듯이, 구름이 들 듯이, 연기가 돌 듯이 모두 진화하는 머리가 아주 나쁜 글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화를 해도 정말이지 인생을 만드는 공장을 벗어나야겠다 하고 벗어나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편 틀림없이 막대기 하나에다 사탕 하나는 꽂아 드렸는데 어디에고 걸림없이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 그렇게 진짜로 믿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편안하게 사실 수 없고 고생하시고 속을 태우시고 그러는데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속태우지 마세요.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느 책에 써 놓은 거 보니까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틀림없겠구나, 틀림없이 수두룩하게 부처님들이 나시겠구나하는 생각이, 정말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니가 잠시 잠간이라도 편안하게 살아야 죽어서도 남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각자 여러분의 나 아닌 나가, 그 속에 참 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000년 1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 · 小)
산사의 향기(大 · 小)
연화의 세계(大 · 小)
탑이 있는 풍경(大 · 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 사진 : 안 장 헌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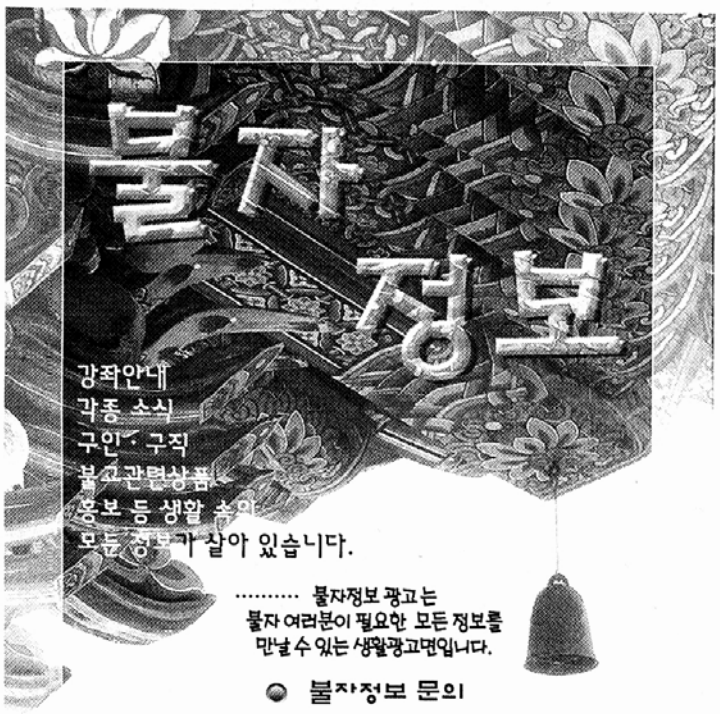
8절 대지 마닐라(14매)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홍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미니 차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기도·공부·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과거(科擧)시험 합격 비법(秘法)
◎ 사법고시·행정고시·각종국가고시·자격시험
◎ 주소, 성명, 생, 월, 일, 시 전화를 접수하시면 신척법(神尺法)비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지장 禪院 053)982-6778
011)812-3679

수맥(水脈)강의 안내
• 과정: 기초부터 강의 • 강사: 유준혁(수맥전문가)
• 과목: 수맥 양택 음택(수강료:6개월 5만원)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 본회연혁: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 위치: 지하철7호선 상도역 1번 출구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회회 세종수맥회회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하면 건강이 점차 악화되며 정신력이 약해지고 무기력해 집니다
문의: 02)817-9996
www.suyo.co.kr



벼락맞은 양류목
(精灵 기거하는 나무)
◎ 규격 : 130cm×60cm
◎ 수령 : 약 300년 안동 수몰 지구 ◎ 양도가 : 180만원
• 벼락맞은 양류목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성취는 물론 무소불성(無所不成)이요
• 능히 미래 과거 길흉(吉凶) 화복(禍福)을 판한하여 선견지명을 통달 함이요
• 앉아서 천리보고 서서 만리를 볼 수있음 일지라.
그외 기문 장신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일지라.
Tel : 053)985-4675 018)512-5544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배우자 구함
신체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여성으로 35세-40세미만인 여성을 원하며 물질공양과 남은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현 42세 건강한 남성으로 포교원 운영 중
016)710-8535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에서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음의 병, 불치병 치료, 역학기도로 소원성취시키는 비구 스님입니다. ◁
(신중한 전화 바람)
018) 611-067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울산 ◁
011)9027-8207
052)211-1009

급-찾습니다.
▷비구니·사미니 스님
▷강원을 졸업한 수좌
▷외국에서 유학이나 포교 할 수있는 스님 환영
▷위치: 미국 시카고 불심사
전화 : 02) 907-1643
016) 243-1643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부전 스님 구합니다.
◆ 50세 이하 ◆
051) 508-6779
051) 508-516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54)437-0700
054)437-537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세 - 60세)
▷ 울산 ◁
052)288-4520

불자 약사님(남자) 모십니다.
· 의약분업 제외 지역
· 사당역에서 승용차로 30분거리
· 우대하여 드립니다 (급여)
· 45세 이상 (자가운전 가능)
011)9743-8064
지광 법사

40대 비구스님 조용한 암자 관리하여 드립니다.
▷명리학·침술 능통◁
011)879-321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평생절을 관리 할 60대 부부도 환영합니다.
02)3159-8886
02)3158-6977
대 덕 사

사찰 안내
● 평수 : 3층 50평, 4층 5평
● 위치 : 안양 박달 1동 內 주택은행 4거리
● 법당 : 삼존불, 약사여래불
● 특징 : 시설일체 제공
● 가액 : 4천만원 (보증금 포함)
031)469-156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 맞은 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3개)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2자 반 칠성 부처님 3자반 후불탱화 53부처님 지장전 문수보살
053)565-0430/016-875-093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소재
● 평수 : 약 1000평
● 법당, 요사채 2동
● 가액 : 7천만원
055)862-6199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대지 : 720평
● 법당 : 5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고시 공부방 (각각있음)
● 가액 :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산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남골당불사주을 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경남 진주시 관내 사찰 부지 저렴하게 파실 분 연락요망!
011)830-2880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태호동 오일시장 대로변 동강병원 2분거리
● 구조 : 2층 건물 2층 30평(법당, 방 2개) 비구니, 무속인 절확하시는 스님 적립
● 시설 : 아미타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절충
011)874-456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법당 12평, 요사, 방 2개, 주방, 마당 50평
● 특징 : 40년된 절
● 가액 : 4.0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02)853-8612/856-3405

사찰 양도
● 위치 : 경북 김천 ● 대 지 : 600평
● 법 당 : 28평 (사무실 포함) 산신각/창고/주차장 요사채 55평, 방 7개
● 특 징 : 경관이 수려하고 산속 맑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기도처로 최적지
054)436-5036
011)805-773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480평 ● 건물 : 35평
● 가액 : 2억 3천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칠성탱화, 대북, 법종, (불단조각, 단집)경탁, 경상, 경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 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 부 지 : 자연녹지 임야 6000평
● 요사채·법 당 : 건축 허가유
● 주차장 있음
● 양도가 : 18억 (분할가능)
※ 부산시내 사찰건축 및 납골당 건립불사 스님께서는 상담바람 좋은 조건임
● 위 치 : 전남 여수시내 소재
● 대 지 : 40평
● 법 당 : 25평 (2층)
● 요사채 : 30평 (1층)
● 양도가 : 1억 7천 (은행융자 있음)
※ 15년 된 도심포교건물 임 신도수 많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양양
● 법당 : 10평(목조)
● 요사 : 20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1억 9천
● 위치 : 경기 양주
· 법당 : 11평
· 산신각 : 10평
· 요사 : 70평
· 부지 : 997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강원 원주
● 법당 : 10평(목조)
● 산신각 : 3평
● 요사 : 30평
● 부지 : 200평
● 가액 : 1억 1천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 요지
● 垈 : 250평 이상 建 : 120평 이상
● 법당 : 50평 포교당 최 적지
● 가액 : 답사후 결정
부산시내 사찰허가 있음
● 垈 : 1,300 평당 50만원
051)208-1122
011)874-8122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영천 신녕에서 15분거리
◎ 물좋은 계곡접 토굴, 기도터, 적지
◎ 밭 724평 2500만원
◎ 토목공사 50%진척



◎ 경남 합천 대양면 소재지
◎ 대지 69평 현대식 올수리
◎ 급양도가 1600만원 (전세 가능)
◎ 휴양, 기도, 공부 적합
주인 011) 506-1254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바닷가 부근
● 구조 : 법당, 공양간,주지실 (총 53평)
● 특징 : 최고의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1)868-59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4,500 만원
월세 : 2,000-40만원 1,000-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790-1779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20분 거리
● 대지 : 법당 10평, 산신각 6평, 주방(2), 방(4), 목욕탕시설 일체 완비
● 특징 : 교통이 편리하면서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아 기도정진 하시기 적합.
● 가액 : 5,200만원
052)292-32977

사찰 안내
● 법당 : 23평 (삼존불 봉안)
● 요사 : 25평 (방4, 공양방) 지하 방1, 욕실, 다용도 공간
● 활용할 수있는 주변 나대지 500여평
● 위치 : 서대문구 백련산 (시청에서 10분 거리)
● 가액 : 4억원 (절충가)
주 : 017) 323-2174
야 : 02) 699-3818

사찰 안내
● 위 치 : 충남 예산
● 부 지 : 700평 조립식 건물, 45평
● 가 액 : 4,700만원
041)333-1163

사찰 안내
● 위 치 : 울산시 상북면 신불산 기도처
● 가 액 : 전세 1,500만원 답사 후 결정
하실 분 전화요망!
011)488-6364

사 찰 안 내 (수안정사)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4번지
● 대지 : 300평 ● 건평 : 총 62평
● 법당 : 20평 전통 양식, 외 5포 내 7포
● 종각 : 8평 주포 ● 산신각 : 2평 주포
● 용왕각 : 2평 주포 ● 요사채 : 30평 슬레이트 블록 5칸
● 무안 국제 공항 인접지역 ● 가액 : 금 1억 8천만원
Tel : 061)452-1214 H.P : 011)605-6972

토굴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동면 조일리 보삼마을
● 평수 : 150평, 옛집 2채
● 가액 : 3천 7백 5십만원 절충 가능
051)508-6779

사찰(포교원) 안내
● 위 치 : 대구시내중심가 (2층독채48평) 기름보일러
● 구 조 : 법당1, 큰방2칸, 부엌, 화장실, 샤워장, 베란다
● 조 건 : 보증금(6백에 월 45만원), 시설비 = 2천3백만원
● 특 혜 : 포교초보자는 의식지도 써비스 한다 (운영중)
053)255-6628

철학원 하실 분
● 위치 : 서울 상계동 중앙시장 부근
● 평수 : 7평 1층
보증금 500 월 3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1)271-213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평수 : 18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 가액 : 오천만원
016)608-9981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요사 36평 2층 법당 25평
011)234-5967

사찰 안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치악산)
● 부 지 : 대지 204평 田 110평
● 건 물 : 방 4개 25평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창고 有
● 특 징 : 계곡 있고 산세 수려 함 교통 편리
● 가 액 : 1억 2천
031)575-5831
017)378-8380

포교원 안내
● 위 치 : 방학 전철역 부근
● 평 수 : 20평 2층
● 가 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만원
02)955-6609

방콕 대리석사원에 한국불상

충북불교회관 1돌 기념 내달 15일 봉안식
세계 각국 청동불 전시…매년 3천만명 방문
한태문화교류 법회 · 한인학교 기금전달

세계적인 사원인 태국방콕 대리석사원(벤차마 보핏)에 한국불상이 모셔진다.

충북불교문화회관(관장 박호표. 청주대 교수)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재〉선학원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해 12월 15일 3백여명으로 구성된 한-태교류방문단(단장 정일스님)이 대리석사원에서 한-태 문화교류법회와 한국의 부처님 봉안식을 갖는다. 세계인들의 참배가 잦은 태국 대리석사원에 한국의 불상이 모셔짐으로써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석사원에는 현재 본당과 회랑에 석가모니 좌상, 입상, 고행상, 열반상, 걷는 부처님상 등 중국, 일본 등 세계 53개국의 청동불상이 봉안돼 있다.

매년 2천만~3천만명의 세계 각국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리석사원의 한국불상 봉안은 몇 번 추진됐던 사안이다. 특히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불상을 조성해 봉안하려 했으나 회랑에 장소를 마련할 수 없어 야외에 에밀레종 모형만 안치했었다.

한-태교류방문단 단장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은 "세계적 사찰인 대리석사원에 한국부처님을 모시게돼 기쁘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한-태 불교계간의 지속적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2천만~3천만명이 찾는 세계적 사원인 태국 대리석사원에 모셔지는 한국불상. 청동 석가모니좌불이다.

이와 함께 한-태교류 방문단은 태국교민회가 주최하는 태국교민의 밤에도 참석하여,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민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인학교 건립기금도 전달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이암왕국(1350~1767)의 수도인 아유타와 유적등 태국불교 성지순례도 실시한다. 참가문의 (043) 294-6193.

한편 대리석사원은 노예제도를 없애고 외세의 식민지침략을 막아내어 태국에서 성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쫄라롱콘대왕(1868~1910)이 왕자시절부터 세계 각 나라의 부처님을 모시고 세계불교문화를 집대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1900년 건립한 사찰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자 재소자들이 공옥진 명창이 각색한 '흥부전'을 통해 참회와 재발심의 의지를 합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성진 가락에 담은 참회심"

대전교도소 불자재소자 창극 '흥부전' 공연

"이 몸이 부서져도 번뇌를 끊으리라. 창살속에서 만난 불법인연, 이생의 업이 다해 흙으로 가더라도 소중히 간직하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불자 재소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찬불가와 춤, 연기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펼쳐져 화제. 재소자들이 교도소 밖에서 공개 공연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탐욕의 허무함과 참회, 새 발심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해 불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대전교도소(소장 강봉학)에서 복역중인 불자 재소자 14명은 15일 대전 엑스포트홀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교도소 직원 및 가족, 교화위원, 불자 등 1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 달여 동안 연습해 온 각색 창극 '흥부전'을 무대에 올렸다.

대전교도소가 주최하고 대전교도소교정협의회(회장 혜명스님)이 주관한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무형문화재 공옥진 명창이 흥부의 아내로 출연, 창극을 직접 연출하면서 쪼들리고 고통스런 생활에서의 한과 재소자들의 새 서원을 창과 춤으로 표현해 불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흥부전의 막이 오르기에 앞서 진각종 심인합창단과 재소자들은 함께 '업', '흙으로 가더라도' 등 지금까지 지은 죄업을 깊이 참회하는 내용의 찬불가를 합창했다.

이어 세상의 열림과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법고 연주와 함께 결쳐친 본무대에서는 법고 소리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재소자들이 등장해 인간 세상의 일탈과 방종 및 범죄, 또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 등을 몸짓으로 담아 냈다.

재소자들은 또 흥부의 가족들이 박을 타는 장면부터는 원전을 각색, 박에서 쏟아지는 재물들을 흥부의 자식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 아귀다툼을 벌이는 순간 재물이 사라지고 흥부의 처도 함께 없어지게 함으로써 재물의 덧없음과 재물욕으로 인해 우리는 진실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깨닫도록 했다.

공연의 막바지에는 다시 법고 연주가 시작되고 출연진과 관객 모두가 감동에 젖어 반야심경을 암송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시간도 연출됐다.

대전교도소는 이번 공연 내용을 비디오로 제작, 전국 50여개 교도소와 소년원의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혜명스님은 "죄가를 치루고 참회한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불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김재경 기자

영주 사립교 '종교편향'

동산여중등 6개교 수업시간 성경공부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동산여중, 동산여자전산학교, 영광여자중·고, 영광남자중·고)의 종교편향 교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실천승려회(회장 도기스님)와 영주·봉화사원연합회(회장 덕운스님)는 13일 "영주시내 6개 일반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배를 1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정규수업시간에 각 반별로 성경교육을 하고있다"며 70여명의 스님과 1700여명의 학부모가 서명한 진정서를 영주시교육청 교육장 앞으로 전달했다.

실천승려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해 항의를 해 왔지만, 종교편향 교육이 계속되어 불자 등 타종교인 자녀들이 등교를 싫어할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교육청은 스님들의 4차례의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창학 이념' 운운하며, 형식적인 공문 발송으로 책임 회피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경 기자

부산 티베트불교센터 개설

나아란다청년회 사찰 기증

부산 나아란다불교청년회(지도법사 김도완)는 원찰인 부산의 광성사를 티베트인 쵸곌 스님에게 기증해 티베트 센터로 가꾸기로 했다.

티베트 불교의 관례대로 운영되는 광성사는 앞으로 각종 법회와 티베트어 강좌, 달라이라마의 저술과 티베트경전의 번역, 출간,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티베트 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쵸곌 스님은 "광성사를 티베트와 한국 불자들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직지 찾기' 고승 대법회

27일부터 충북불교회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선양하는 법회가 열린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충북지구는 오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직지 대법회'를 마련한다.

이 법회는 큰스님을 초청해 '직지'에 담긴 뜻을 집중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직지'는 과거 부처님과 인도의 조사, 중국의 선사들의 말씀을 적어 놓은 불전. 고려말 백운화상이 편찬한 것으로 인도 중국 한국 고승들의 법어와 대화, 편지 중에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만을 초록한 것이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27일), 조계종 전계대화상 혜정스님(28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29일), 백련사 조실 운경스님(30일), 선학원이사장 정일스님(12월1일) 등이 법문을 강의한다.

강연시간은 매일 오후 6시30분. (043)294-0107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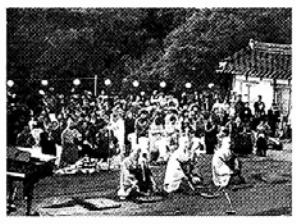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 하나되길"

미황사 산사음악회 성황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사진〉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산 미황사(주지 금강스님)는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을 주제로 한 산사 음악회를 11일 밤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가수 한치영의 노래와 박남준의 시낭송, 정기열의 관소리 등이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수놓았다.



금강스님은 "너무도 청명한 달과 별을 혼자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같이 보자고 초대했다"고 행사 취지를 말했다.

조윤오 목포지국장

종단소식

조계종

포교사고시 실시

포교원(원장 정련)은 26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LA 등 7곳에서 동시에 제6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6백3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합격자는 12월 26일 발표하며, 1차 합격자 연수가 1월부터 열린다.

화엄산림 대법회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허)는 오는 26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12월25일까지 한달 동안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상우스님의 입제법문과 신허스님의 회향법문 때까지 무비 종범 월운 지안 성공 현근 화산 각성 스님을 법사로 〈대방광불화엄경〉을 공부하게 된다. (055)382-7182

태고종

'동방인의 밤' 행사

종립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도성)는 12월 4일 오후 5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제4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친교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천태종

재가자 동안거 결제

동계 승려교육이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구인사 인광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달간 총본산 구인사 5층 법당에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년 동안거를 실시한다. 결제는 29일 밤 10시.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 불사

13일 서울 탑주심인당, 14일



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야계단에서 진기 54년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사진〉가 봉행됐다. 각해 총인이 증명아사리, 도흔 종사가 전계아사리, 혜일종사가 갈마아사리, 지광종사가 교수아사리로 열린 이번 관정불사에서는 서울지역에서 175명, 대구지역에서 320명 등 총 495명의 신교도가 보살십선계를 받았다.

법륜종

창종 12주년 기념법회

창종 12주년 기념법회가 30일 오전 11시 논산 지장암에서 종정 정각스님, 총무원장 덕산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된다. 또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임시 주지총회가, 2시부터는 정기중앙종회가 열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

무량종

총무원장 혜안스님



14일 제2차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제3대 총무원장에 정혜안스님(지리산 칠보정사 주지·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혜안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체제와 기틀을 바로 세우고 화합 단결하여 한국불교 발전과 붙국토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임 총무원장 혜안스님은 1943년 경남 하동 生으로 76년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88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종화종 재무·사회·총무 부장과 부원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교육원장을 역임했고 99년부터 무량종 중앙종회의장을 맡아왔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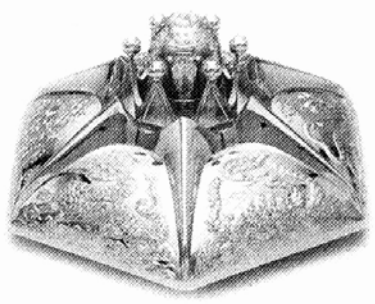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기(氣)란 : 현실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효험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 구입처 ◆ 사찰, 암자, 철악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주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주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 천화 4방주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

교계 노숙자 대책 '급하다'

복지관·보현의 집 등 14곳 490명 수용

재정부담-자활프로 개발 등 걱정 태산

최근 노숙자가 다시 늘기 시작한 가운데 교계 노숙자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운영 여건 및 프로그램 활용 등 전반적인 상황이 노숙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3년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장 물가가 오른 올 겨울을 보낼 일도 걱정스럽다.

현재 교계의 노숙자 시설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용산·종로·부산 동래 등 보현의 집 4곳을 비롯해 경불련의 아침을 여는 집, 우리는 선우의 화엄동산 등 6곳과 구로·길음·능인·본동·삼전·자양·옥수·청담 등 복지관 8곳을 합해 모두 14곳으로, 490여명의 노숙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노숙자 3500여명의 14%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빈약한 재정,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재정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설들은 노숙자 1인당 한끼 부식비 1012원과 50여만원의 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외에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다. 겨울철이라고 난방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복지재단과 복지관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지원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보현의 집 4곳은 구두수선, 농산물판매 등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도 낫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자활의지를 잃은 만성체류자에 대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를 초빙한 심성교육 및 정보제공, 법사초청 법회 등이 필요하지만 난방비 대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누가 봐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 당장 올 겨울이 걱정이다. 기름값과 전기세, 물가 등이 올라 난방비와 김장, 겨울생활용품 구입 등 재정부담이 작년과 비교해 최소 20~30% 가중됐기 때문이다. 시설의 한 관계자는 "돈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라며 열악한 분위기를 전했다.

영등포 보현의 집 이영훈 복지사도 "돈이 없어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숙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모금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노숙자 시설을 정규 복지시설로 인정해 지원을 늘리고, 노숙자들이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취업위주나 사회교육 등 시설별로 특성화해 노숙자를 선별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주한외국인 불교체험

"사찰에서 차를 마시고 참선을 해보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한외교관, 유럽상공회의소 직원, 서울국제부인회, 독일부인회, 재한 외국인교수 등 43명이 11일 조계사에서 참선과 다도를 체험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지도법사 무심스님(화계사 국제선원 지도법사)은 "마음을 닦는 일은 곧 즐거움"이라며 참선에 대해 강의했다.

사찰·단체 종사자 '보험 사각지대'

사찰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은 거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지난 10월 한달간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서울지역 주요사찰과 불교단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종무원 및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가입), 산재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구본사 중에서는 조계사만이 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외에는 일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찰 중에는 능인선원이 모두 가입했으며, 봉은사는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단체 중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우리는선우가 모두 가입했으며, 재가연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실천승가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중앙신도회, 대불청, 불교상담개발원 등 기타단체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김재경 기자

티베트 난민촌 봉사

가족아카데미아

내년초…성금 모금

티베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네팔로 이주해와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살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의약품 봉사가 펼쳐진다.

가족아카데미아(회장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는 내년 1월 20일부터 10박 11일간 네팔의 티베트 난민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네팔에 거주하는 티베트난민은 대략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시로 집을 짓고 주위의 산간을 일구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 및 약품이 부족하여 영양실조 등은 병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난민들의 의료현실은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가족아카데미아는 티베트 난민촌과 네팔간질협회에 전달할 비타민과 항경련제 구입을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구좌 1만원. (02) 760-5138.

김원우 기자

조계사 신협 '파산선고'

24일까지 채권신고

조계사 신협이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계사 신협은 재산처분 등의 파산절차를 밟은 후 없어지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03억원 가량의 조합원 예금지급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조계사 신협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이맹북(55)씨는 "대출금과 외부금융기관 예치금, 건물임대 보증금 등 남아있는 신협자산을 현금화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 103여억원에서 최소 4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구상권 청구 등 이사장의 책임범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계사측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예금보험공사측이 금강정사 법당과 농지 등 신협 이사장 지홍스님의 재산을 압류했다"며 "이달말 예금보험공사측의 부책심의(책임소재와 범위)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의 책임한계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이번 파산선고와 함께 이달 24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는다. 최대채권자는 신협 조합원의 예금을 대지급한 예금보험공사가 되며, 예금명의는 있으나 소유가 불분명한 예금지급보류자들도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12월22일에는 채권자 집회가 소집돼 파산경과 및 신협 재산상태가 보고되며, 파산정리방향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파산재산(신협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배당이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선고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파산종결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명우 기자

일산노인복지관 '실버타임즈' 창간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신문 '실버타임즈'를 창간, 20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했다.

실버타임즈(발행인 능인스님)는 취재와 편집, 사진까지 노인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순수 노인제작 신문으로, 창간호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노약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노년기의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신문은 8면으로 제작되며,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일산노인복지관 관장이자 실버타임즈 발행인인 능인스님은 "각종 노인문제와 사회문제를 노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또 사회 각 계층이 노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살아있는 신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경주 장애인복지관 수탁

ARS 모금전화도 개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이 13일 경주시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했다. 운영은 11교구본사 불국사에서 맡게 되며, 각종 기자재가 갖춰지는 내년 1월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경주시장애인복지관은 연건평 756평에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주간보호실, 사회교육원, 강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5400여명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불국사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사회복지 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동국대 부속 한방·양방병원 의료진과 연계해 체계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재단은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모금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이번달 내로 ARS 모금전화 '700-1545(일어서요)'를 개설한다. 전화 한 통화로 2천원이 적립되며, 이 적립금은 실직자지원사업, 결식아동지원사업을 비롯해 재단 산하시설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사찰환경문제 토론회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23일 오후2시 조계사 회의실에서 '사찰의 환경문제를 생각한다-한국불교의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환경운동가 초청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인 밀양산업대 교수,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 오구균 목포대 교수,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 등 사찰환경 전문가를 비롯 조계종 환경위원회 및 지리산 범불교연대 참여단체, 학계, 환경·시민단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가 참석한다. (02)720-1654

김재경 기자

부패근절 전담기구 재가연대, 설립추진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6일 제29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종단내 부정부패 및 폭력 등을 근절키 위한 전담기구(재가연대 부설)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재가연대는 최근 조계종 주요 소임에 관리부실, 부패 등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종단이 개혁이전의 구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부정부패와 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인사가 종단 주요 소임을 맡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재가연대는 조만간 제30차 집행위를 열어 이같은 전담기구 설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사설 납골시설 64% 불교계 운영

조계종 복지재단 조사

전국의 불교계 납골시설은 모두 36곳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사설 납골시설(56개소) 가운데 불교계 납골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9~10월 두 달간에 걸쳐 실시한 조사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 놓은 '불교계 납골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불교계 납골시설에 대한 공식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불교계 납골시설은 26개소이고, 공사중인 시설 9개소, 공사준비중에 있는 시설 1개소 등 모두 36곳이다. 이중 납골당은 능인선원·장안사 등 19개소, 납골탑은 태고종공제회·갈월사 등 12개소, 영탑은 한마음선원 광명선원 등 4개소, 납골묘는 보현원 양평공원 1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5개 시설이 5000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규모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8개소, 경남 7개소, 충북 3개소, 경북 2개소였으며,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남, 제주 지역이 각 1개소로 경기기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또 운영주체 종단별로는 조계종이 16개소, 태고종 8개소, 법화종 3개소, 선학원 2개소, 법륜종·불입종·금강선원·1개소, 기타 4개소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삼원선원 관련 '무혐의'

삼원선원 대책위원회가 문재현 삼원선원장을 상대로 제소한 먹는 물 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건이 최근 서울고검에서 '무혐의'로 기각됐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의정부지검에 부처님 78대손 지칭 등 5건도 함께 제소했으나 불기소됐다.

삼원선원 대책위는 99년 12월부터 원장 개인명의 토지소유권 이전, 부처님 78대손 지칭, 이모씨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내세우며 선원 해체를 주장해왔다. 〈본지 제252호 23면 기사 참조〉

삼원선원측은 "탈퇴한 신도들이 시주금과 불사금까지 모두 되돌려 받았음에도 불구, 계속적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및 기존신도의 탈퇴 종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퇴강요 글을 올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1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 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 개강일시	2000년 12월 13일(수) 오후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http://www.dongsanbud.org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아미타정토대학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연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과정의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 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3. 입학일시	2000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연종집요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미타예참법 왕생론 인도정토사 중국정토사 한국정토사 반주삼매경 정토미술
5. 모집인원	정규반 30명 동산반 30명
6.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7.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8. 원서교부	2000년 11월 12 - 12월 7일 입학금 (150,000원)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이수한자는 졸업장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 문의 : 본대학 사무국
☎ 02)732-1215~17 FAX 02)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웅혼한 선불교의 '이상향'



◇구산선문을 세운 당시 선승들의 웅지와 기상을 짐작할수 있는 성주사지.

가람의 장면들 37

성주사지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요즘 TV에서 화제의 드라마로 꼽히는 것은 단연 '태조 왕건'이다. 후삼국의 혼란 속에서 고려라는 새 국가를 세우는 주인공 왕건은 개성의 유력한 호족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주, 나주, 충주 등 전국 각지에 유력한 호족들이 지역의 실세로 웅거하고 있었고, 그들의 배후에는 이념적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승려들이 등장한다. 왕건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도선대사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신라말 불교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된다. 화엄학이나 유식학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불교는 그 어려운 철학적 논리와 함께 수도 경주 일대의 귀족불교로 전개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호족이라는 사회 세력들은 중앙 귀족에 대한 반발과 함께, 귀족적인 교종불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 뜻있는 승려들은 중국으로 유학하여 새롭게 개화되는 선불교에 몰입하였고, 귀국 후에는 경주를 떠나 전국 구석에 선풍의 웅지를 틀게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9개의 문파를 일컬어 구산선문이라 부르게 된다.

9개의 선문 가람 가운데, 개산 당시의 모습을 일부나마 간직하며 현존하는 곳은 실상산 실상사, 가지산 보림사, 희양산 봉암사 정도다. 동리산 태안사나 사자산 흥녕사 등은 전혀 다른 가람이 되었고, 나머지는 폐허로 남거나 복한에 있다. 그러나 현존 유지와 유구들만 살펴보아도 당시의 번성했던 모습과 웅장한 기상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다개 선문 가람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에 위치한다. 비록 산속이라 할지라도 가람의 터는 광활한 공지에 잡았고, 넓은 절터에 수십, 수백동의 건물들이 가득했던, 산속의 수행 도시였다. 구산 가람의 주변 동네에는 아직도 그 광대했던 규모에 대한 전설이 전해온다. 예를 들어 식사 때마다 절에서 씻은 쌀 뜨물이 개울을 따라 10리나 내려왔다는 식의 전설이다. 적어도 수백명의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하며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선종가람이 산 속 경사지의 좁은 터에 3~4동의 건물로만 이루어졌던 옹색함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어려운 경전에 의존하던 기존 교종과는 달리, 순간적 깨달음과 직관을 강조하는 선불교는, 비귀족 출신의 호족들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그들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역으로 호족들은 지역의 중심 산문들을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보호라는 이중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왕건의 금성(현 전남 나주) 공략 과정에서 금성의 호족들을 견훤 편에서 왕건 편으로 이반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는 가지산파의 형미선사였다고 전한다. 그만큼 가지산문과 일대 호족들의 관계는 돈독했던 것이다. 각지에 할거했던 여러 선문들 가운데, 9산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산문들은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다소의 공헌을 했던 곳들이라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성주산문의 본산이었던 대현 성주사는 현재 완전한 폐허로 터와 일부 석물들만 남아있다. 성주산문의 개산조는 신라말의 백월화상(801~888)즉, 유명한 무열국사였다. 태종 무열왕의 8대손으로 태어난 왕족으로 청년기에 일찍이 당나라로 유학하여 법성, 화엄학은 물론, 중국의 선사들로부터 선지를 전수받게 된다. 백월화상의 행적을 적은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 (국보 8호)〉는 성주사의 한편에 서 있다. 신라말의 대석학 최치원이 글을 짓고, 동생인 최인곤이 글씨를 쓴 비석으로, 당시의 골품제도나 정치체제 등을 연구하는데 무척 귀중한 자료다.

초창기 선문들은 엄격한 교학의 토대위에서 수행의 방법으로 선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람의 구성은 기존 교종 사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선수행에 필요한 선방 등이 발달한 정도의 차이뿐이었다. 보림사나 실상사의 예를 보면 금당은 2층 내지 3층의 대규모 건물이었고, 주변으로 회랑을 두른 전형적인 고대 가람의 모습이었다.

석탑 3기 나란히 배열

선종특유 파격미 눈길

성주사는 또 다른 가성을 지니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없어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땅 위로 노출된 유구들만 살펴보아도 그 특색이 드러난다. 금당지 앞에는 높은 5층석탑(보물19호)이 솟아 있는 것까지는 예의 가람과도 같다. 그러나 금당 뒤, 강당터(추정) 앞에는 작은 3층석탑 3기가 옆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보물, 20·47호, 유형문화재 26호). 한 절에 중요한 4개의 탑이 있는 셈이며, 강당부는 특이하게도 이른바 3탑식 가람이다. 이런 경우는 성주사가 유일한 예다. 교종의 엄격한 가람 구성법을 따르면서도, 선종 특유의 파격과 개성을 드러내는 듯하다. 때로 건축은 집주인과 건축가의 개성을 닮는다. 성주사의 폐허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다. 또한, 새로운 불교,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던 당시 선승들의 웅지와 기상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절터이기도 하다.



◇뛰어난 조각솜씨가 돋보이는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문.



◇각 문살마다 화병에 꽃을 꽂은 형태의 정수사 대웅전 문살.



◇쌍계사 대웅전 꽃살문의 화려한 색채와 문양.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문/살

법당은 불국정토의 영원하고, 행복하고 번뇌가 없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장중하고 화려하게 장엄을 한다. '진리의 집' 법당을 참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門)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법당의 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입구를 나타내기에 역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대웅전이나 극락전, 비로전 같은 중심 법당은 물론 관음전, 미륵전 등 보살전의 문짝은 대개 빗살문이나 솟을빗살문, 또는 솟을빗꽃살문 등 화려한 장식 문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찰 법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살문은 우물 정(井)자 문살을 45도 기울인 형태이며, 솟을빗살문은 빗살의 교차지점을 관통하는 장살(수직 살대)을 하나씩 첨가한 것이다. 또 솟을빗꽃살문은 솟을빗살문의 살에 여러 가지 꽃이나 추상문양을 새겨 넣어 훨씬 화려하다. 이처럼 법당을 화려한 꽃살문으로 장식하는 것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채의 문짝이 단순하고 검소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산사 대장전의 문살

솟을빗꽃살문 형식이며, 문살이 교차하여 형성된 육각형의 영역안에 꽃잎이 여섯장인 관념적인 꽃을 새겼다.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었으며 같은 색의 꽃들은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정수사 대웅전의 문살

보통의 문살이 사방연속문양의 배열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정수사 대웅전의 문살은 판장에 화병과 꽃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지금은 색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문양의 다양한 변화와 조화, 그리고 뛰어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극락입구' 울긋불긋 단장

빗 살 문 井자 문살 45° 기울여 장식

솟을빗살문 빗살 교차점 장살 덧붙여

솟을빗꽃살문 빗살에 여러 꽃·문양 새겨

법당 문짝 장식은 연꽃을 비롯하여 모란꽃, 국화꽃, 해바라기꽃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때로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념적인 형태의 꽃들도 찾아볼 수 있다. 꽃살문은 살대에 이런 꽃들을 새긴 문살을 사방연속식으로 짜 맞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꽃은 대개 6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 4장의 꽃잎으로 된 것도 있다. 또 꽃을 병에 꽂아 놓은 형태의 문양도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 병을 현병(賢瓶)이라 하는데, 현(賢)은 선(善)의 의미를 가지므로 선병(善瓶)이라고도 부른다. 또 보병(寶瓶), 만병(滿瓶), 감로병(甘露瓶), 덕병(德瓶), 길상병(吉祥瓶), 여의병(如意瓶)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문

1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사찰의 꽃살문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조각 솜씨가 정교하며, 불성을 깨우치는 단계를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을 그려 투각한 것을 중심부에 붙여놓았다. 이렇게 꽃병으로 불전을 장식하는 것은 불전 공양구의 하나인 화만에서 유래하는데, 길상과 만덕, 그리고 청정을 의미한다.

■성혈사 나한전의 문살

문살 전체를 연잎과 연꽃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 여백에 선승, 동자, 용, 물고기, 물새, 게 등 다양한 소재들을 사실적으로 조각해 놓았다. 민화에서 느낄 수 있는 순박함과 정겨움이 묻어난다.

■동학사 대웅전의 문살

병풍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동학사 대웅전의 문살은 사군자와 세한삼우(歲寒三友)를 투각하여 장식했다. 문인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난초와 매화는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지만, 사찰장식에서는 길상의 의미가 더 크다.

이은자 기자

불자기업 해탈불상조성원 02-435-2626 / 017-799-7730
해탈불상 조성원은 모든 불사현장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천왕 : 천왕문이 없어도 법당내에나, 출입문, 벽에 걸어 놓을 수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 호신불로 스님방에 모실 수있으며 천안에다 시주자 이름표를 달아드립니다. 불사에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동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삼존불도 조성하여 드립니다. ※

소자본 창업 비디오 영상편집 인터페이스 재택 창업

비디오 CD와 전자앨범 전문 제작용 TOOL

FireSpeed 400
- PCI 방식 (32bit 지원)
- 400Mbps 의 빠른 전송 제공
- DV 3개 포트 제공
- 고성능 저가격 DV/IEEE-1394 비디오 캡쳐 카드
- 출력및 입력 포맷 형식 : DV,AVI,MPEG-I/II
- 파일크기 제한 없는 고화질 캡쳐 기능 제공
- Windows 98, 98se, 2000 지원

VCD Express
- 아날로그 (32bit 지원)
- 고화질의 빠른 MPEG-I 의 저장 방식
- 파일크기 제한 없는 고화질 캡쳐, 편집 기능 제공
- 입출력 방식 Composite (RCA), S-Video 동시 지원
- Windows 98, 98se, 2000 지원
- 입력방식 : MPEG-I

내맘대로 찍고! 셀프 카메라 육아 영상일기 신혼 여행도 마음 놓고 찍자!



FireSpeed 400P
- PCMCIA CardBus 방식 (32bit 지원)
- 400Mbps 의 빠른 전송 제공
- DV 3개 포트 제공 (N170N의 허브 제공)
- 고성능 저가격 DV/IEEE-1394 비디오 캡쳐 카드
- 출력및 입력 포맷 형식 : DV,AVI,MPEG-I/II
- 파일크기 제한 없는 고화질 캡쳐 기능 제공
- Windows 98, 98se, 2000 지원

Firewire Kit



- 고속 DATA 전송, 저장
- 400Mbps 의 빠른 전송 제공
- Hot Swap 방식 지원
- 1394 지원하는 매킨토시 지원
- Windows 98se 이상 지원
- Fire Box 와 1394 카드

제공 소프트웨어

VIDEO WAVE III SE (비디오 캡쳐 편집용)
Nero 5.0 (비디오 CD 제작용)
VIDEO STUDIO 4.0 (비디오 캡쳐 편집용)
PHOTO VISTA 1.0 (이미지 편집용)
FLIP ALBUM 3.0 (전자 앨범 제작용)
PHOTO SUITE III (이미지 편집용)

활용분야
종교별 활용 : 인설, 설법 등의 영상자료 편집 후 CD에 수록 및 배포
개인별 활용 : Video CD 제작, CD-Title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 동화상 데이터베이스, 전자앨범
기업별 활용 : 방송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 멀티미디어 교육망 구축, 기업홍보물, 상품광고, 프리젠테이션 등 제작
의료진 활용 : 임상사진 활영 증례 발표시 활용

(주) 원이전산 02-703-8551~2 02-703-8561~2 WWW.IEEE-1394.CO.KR